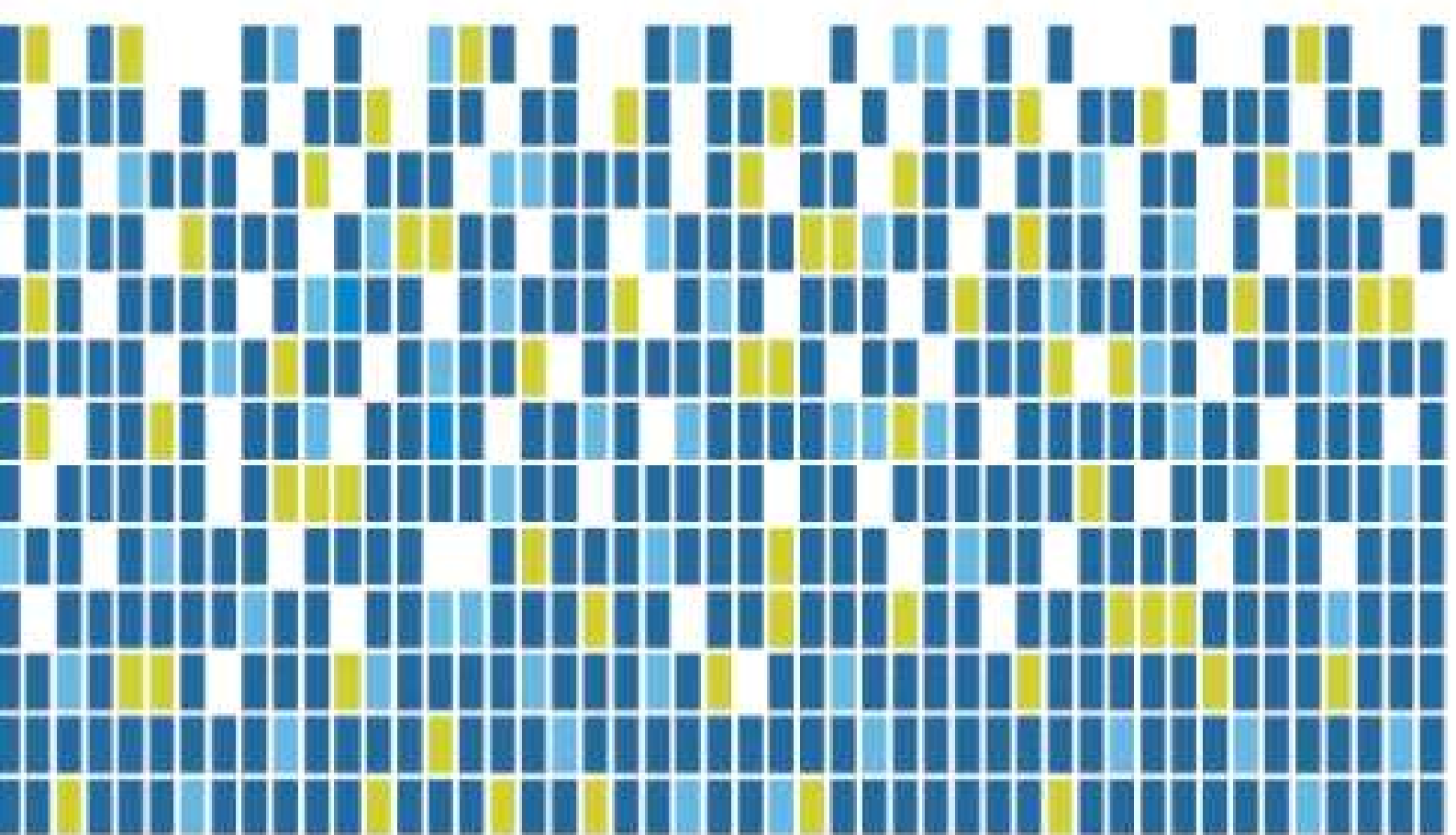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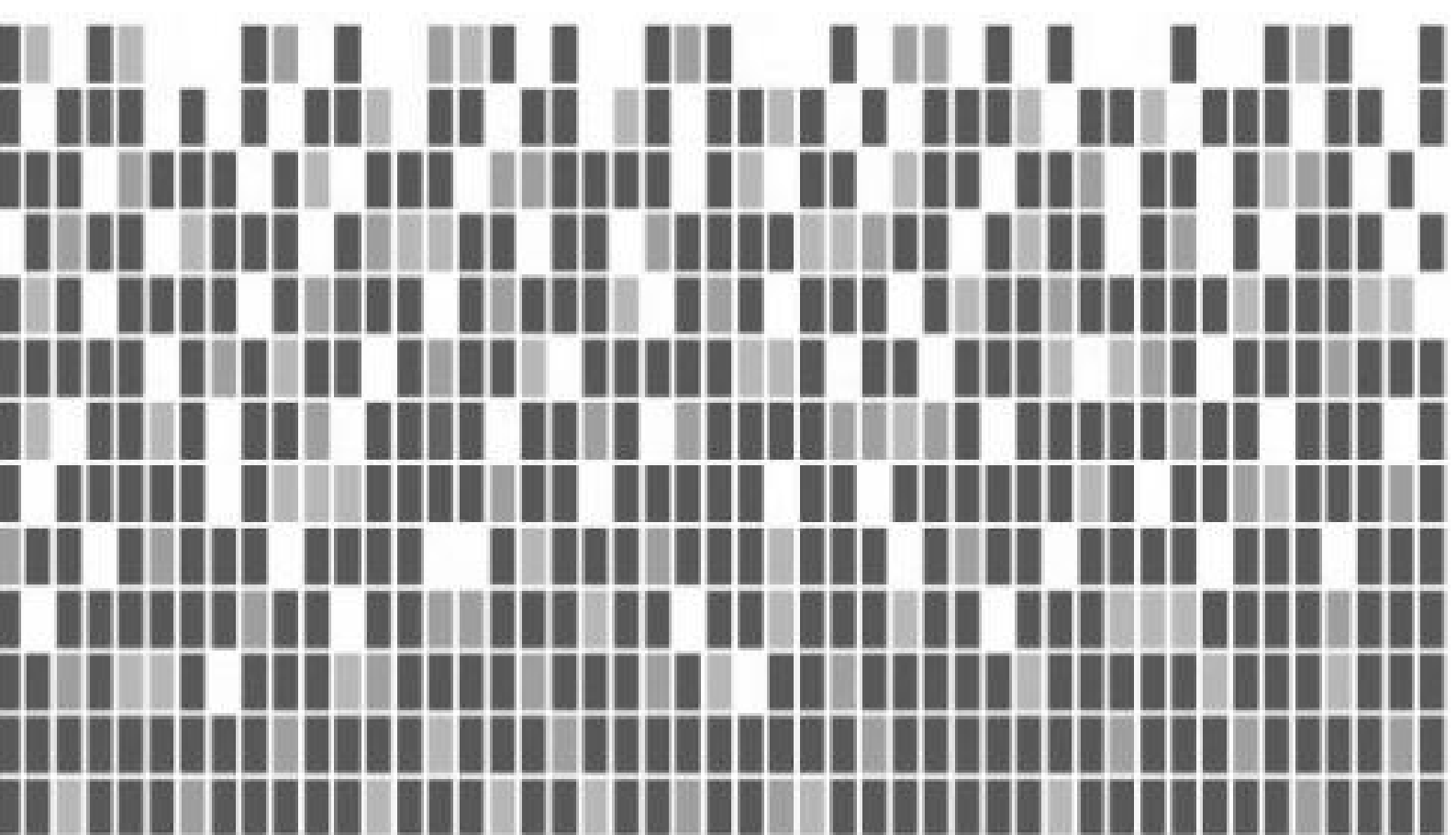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2018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진

책임연구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연구보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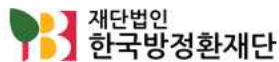
성연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이신영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부)

■ 설문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본 자료집은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발행처 한국방정환재단

발행일 2018년 5월

전화 02-322-5515

팩스 02-322-5452

이메일 happy365@korsofa.org

홈페이지 www.korsofa.or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3길 5 솔밭 3층 (우 04309)

목차

제1장 연구결과 요약	9
I.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11
II. 물질, 개인, 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18
III. 시험·성적 우려집단	20
제2장 연구개요	23
I. 조사설계	25
1. 개요	25
2. 조사설계	25
3. 표본 특성	26
4. OECD 자료	26
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32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32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32
제3장 OECD 행복지수	35
I. 물질적 행복	37
1. 상대적 빈곤	37
2. 미취업 가정	38
3. 결핍	39

II. 보건과 안전	41
1. 영아건강	41
2. 예방접종	43
3. 사고사	46
III. 교육	47
1. 학업성취	47
2. 교육참여	50
3. 고용으로의 전환	52
IV. 가족과 친구관계	53
1. 가족구조	53
2. 부모관계	55
3. 친구관계	57
V. 행동과 생활양식	58
1. 건강행동	58
2. 위험행동	62
VI. 주관적 행복	68
1. 건강	68
2. 학교생활	69
3. 개인 행복	70
제4장 물질·개인·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75
I.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 점수	77
II. 2009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유형 분석	78
III. 2018년 행복에 필요한 가치유형 분석	81
제5장 시험·성적 우려집단	83
I. 시험·성적 우려집단 분포	87
1. 시험·성적 우려집단 분포	87
2. 학교성적에 따른 분포	88
3. 계층인식에 따른 분포	89
II.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행복감	90
1.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주관/상대적 행복감	90
2.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생활만족도	91
III.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자살 생각	93
1. 연도별 자살생각 변화 추이	93
2.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자살생각	94
3. 사회적 관계수준에 따른 자살생각	95

제6장 공동체 의식과 행복감	96
I. 공동체 의식 범주 비교	101
1.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101
2. 자원봉사 활동 참여	102
3.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104
4.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106
5. 공동체 의식 범주 비교	108
II. 공동체 의식 수준과 긍정적 행복감	111
1. 주관 및 상대적 행복	111
2. 생활만족도	113
3. 학교생활 만족	114
III. 공동체 의식 수준과 부정적 행복감	116
1. 기출충동 경험	116
2. 자살충동 경험	117
부록1. 설문지	119
부록2. 1922~1923 어린이날 선언	137

표목차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11
표1-2.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12
표1-3.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주관적 행복	14
표1-4.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부모 및 친구관계	14
표1-5.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18
표1-6. 2018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18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25
표2-2. 표본 특성	26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27
표2-4. 2009-2015년 측정지표	29
표2-5. 2018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33
표4-1.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77
표4-2. 2018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77

그림목차

그림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12
그림1-2.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 변화 추이	13
그림1-3. 주관적 행복 세부 요소의 응답비율 변화추이	13
그림1-4. 2018년 주관적 행복도 세부 항목별 한국과 OECD통계 비교	15
그림1-5. 2009년과 2018년의 학교 생활 만족도 응답 비율 변화	16
그림1-6. 2009년과 2018년의 삶의 만족도 응답 비율 변화	17
그림1-7. 2009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중시 정도와 주관적 행복도	19
그림1-8. 2018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중시 정도와 주관적 행복도	19
그림1-9. 2009년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교급별 가치	19
그림1-10. 2018년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교급별 가치	19
그림1-11.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주관적 행복감	20
그림1-12.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20
그림1-13.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단위 :%)	21
그림1-14. 친구 도움 의식 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단위 :%)	21
그림1-15. 자원봉사 의식 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단위 :%)	21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37
그림3-2. 미취업 가정	38
그림3-3. 교육여건	39
그림3-4. 문화적 결핍	40
그림3-5. 영아사망률	41
그림3-6. 저체중아	42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43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44
그림3-9. DPT 예방접종	45
그림3-10. 아동사고사	46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47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48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49
그림3-14. 학업유지	50
그림3-15. 실업상태	51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52
그림3-17. 홀부모가정	53
그림3-18. 의붓가정	54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55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56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57
그림3-22. 아침식사	58
그림3-23. 과일섭취	59
그림3-24. 과체중	60
그림3-25. 운동	61
그림3-26. 흡연	62
그림3-27. 음주	63
그림3-28. 마약	64
그림3-29. 성관계	65
그림3-30. 콘돔사용	66
그림3-31. 임신과 출산	67
그림3-32. 주관적 건강	68
그림3-33. 학교생활 만족	69
그림3-34. 삶의 만족	70
그림3-35. 소속감	71
그림3-36. 어울림	72
그림3-38. 외로움	73
그림4-1. 2009년 교급 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	78
그림4-2. 2009년 교급 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78
그림4-3. 2009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응답 비율과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비율	79
그림4-4. 2009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순위	79
그림4-5. 2009년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80
그림4-6. 2009년 행복점수가 낮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80

그림4-7. 2018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81
그림4-8. 2018년 교급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81
그림4-9. 2018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중요도와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비율	82
그림4-10. 2018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순위	82
그림4-11. 2018년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83
그림4-12. 2018년 행복점수가 낮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83
그림5-1. 교급별 시험·성적 우려집단 분포	87
그림5-2. 성별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 분포	87
그림5-3. 성별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 분포	87
그림5-4. 학교성적 구분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 분포	88
그림5-5. 학교성적 구분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 분포	88
그림5-6. 계층인식 구분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 분포	89
그림5-7. 계층인식 구분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 분포	89
그림5-8. 시험 우려집단과 주관적 행복감	90
그림5-9. 성적 우려집단과 주관적 행복감	90
그림5-10. 시험 우려집단과 상대적 행복감	91
그림5-11. 성적 우려집단과 상대적 행복감	91
그림5-12. 시험 우려집단과 생활만족도	91
그림5-13. 성적 우려집단과 생활만족도	92
그림5-14. 교급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93
그림5-15. 초등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93
그림5-16. 중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93
그림5-17. 고등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94
그림5-18.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4
그림5-19.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4
그림5-20.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3회 이상 경험	95
그림5-21.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3회 이상 경험	95
그림5-22. 어머니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6
그림5-23. 어머니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6
그림5-24. 아버지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6
그림5-25. 아버지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6
그림5-26. 친구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7
그림5-27. 친구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7
그림5-28. 선생님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7
그림5-29. 선생님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98
그림6-1. 초등학생: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101
그림6-2. 중학생: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101
그림6-3. 고등학생: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101
그림6-4. 초등학생 성별 비교: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102
그림6-5. 중학생 성별 비교: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102
그림6-6. 고등학생 성별 비교: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102
그림6-7. 초등학생: 자원봉사 활동 참여	103

그림6-7. 중학생: 자원봉사 활동 참여	103
그림6-8. 고등학생: 자원봉사 활동 참여	103
그림6-9. 초등학생 성별 비교: 자원봉사 활동 참여	103
그림6-10. 중학생 성별 비교: 자원봉사 활동 참여	104
그림6-11. 고등학생 성별 비교: 자원봉사 활동 참여	104
그림6-12. 초등학생: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104
그림6-13. 중학생: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105
그림6-14. 고등학생: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105
그림6-15. 초등학생 성별 비교: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105
그림6-16. 중학생 성별 비교: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106
그림6-17. 고등학생 성별 비교: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106
그림6-18. 초등학생: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106
그림6-19. 중학생: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107
그림6-20. 고등학생: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107
그림6-21. 초등학생 성별 비교: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107
그림6-22. 중학생 성별 비교: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107
그림6-23. 고등학생 성별 비교: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108
그림6-24. 교급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108
그림6-25. 초등학생: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108
그림6-26. 중학생: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109
그림6-27. 고등학생: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109
그림6-28. 초등학생: 성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109
그림6-29. 중학생: 성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109
그림6-30. 고등학생: 성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110
그림6-31.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111
그림6-32. 자원봉사의식 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111
그림6-33. 반국에 대한 기부의식 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111
그림6-34. 지구보호 의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112
그림6-35.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112
그림6-36.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112
그림6-37. 반국에 대한 기부 의식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113
그림6-38. 지구보호 의식 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113
그림6-39.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생활만족도	113
그림6-40.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생활만족도	114
그림6-41. 반국에 대한 기부의식 수준과 생활만족도	114
그림6-42. 지구보호 의식 수준과 생활만족도	114
그림6-43.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115
그림6-44.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115
그림6-45. 반국에 대한 기부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115
그림6-46. 지구보호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115
그림6-47.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116
그림6-48.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116
그림6-49. 반국에 대한 기부의식 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116
그림6-50. 지구보호 의식 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117

그림6-51.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117
그림6-52.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117
그림6-53. 반국에 대한 기부의식 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118
그림6-54. 지구보호 의식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118

제1장 연구결과 요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I. 2017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10년 만에 30.3점 증가하여 **평균에 근접**

- 2018년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 94.6점, OECD 평균에 근접, OECD 22개 국가 중 16위
-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 상승의 직접적인 이유는 ‘주관적 행복지수’를 이루는 여섯 개의 항목 중 ‘학교생활 만족’과 ‘삶의 만족’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 본 연구를 시작한 2009년과 비교해 ‘학교생활 만족’은 40% 이상, ‘삶의 만족’은 30% 이상 향상. 변화값이 아닌 절대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 만족’은 최상위 기록(학교생활 만족 22개국 중 3위)
 -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은 OECD국가 중 꼴찌 기록.
 - ‘외로움’은 26개국 중 10위
 - ‘어울림’, ‘소속감’은 최상위 기록 (어울림 26개국 중 1위, 소속감 26개국 중 2위)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순위	주관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보건과 안전		물질적 행복		교육		행동과 생활양식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1위	스페인	117.51	이탈리아	119.98	스웨덴	118.55	핀란드	118.99	네덜란드	116.68	대한민국	126.24
2위	네덜란드	114.07	네덜란드	115.25	노르웨이	113.05	대한민국	114.16	포르투갈	110.75	네덜란드	110.90
3위	노르웨이	113.25	대한민국	114.52	아이슬란드	111.28	덴마크	111.83	일본	110.45	아일랜드	110.85
4위	오스트리아	111.59	노르웨이	110.40	일본	110.70	독일	108.26	폴란드	109.99	아이슬란드	110.29
5위	그리스	109.06	포르투갈	108.19	대한민국	110.65	오스트리아	108.23	아일랜드	109.40	스위스	105.97
6위	스위스	106.89	스위스	107.47	핀란드	105.94	스웨덴	108.17	벨기에	108.18	포르투갈	104.91
7위	덴마크	106.44	덴마크	105.85	네덜란드	105.14	체코	106.40	대한민국	107.90	스페인	104.57
8위	아일랜드	106.40	아일랜드	104.10	스위스	104.99	폴란드	104.18	체코	107.82	덴마크	102.48
9위	아이슬란드	103.36	스페인	100.87	프랑스	103.82	네덜란드	103.76	호주	106.57	벨기에	101.60
10위	독일	101.58	스웨덴	99.64	독일	103.71	헝가리	98.78	덴마크	106.37	오스트리아	100.55
11위	스웨덴	100.91	아이슬란드	99.51	아일랜드	103.28	프랑스	96.68	노르웨이	105.27	스웨덴	100.12
12위	이탈리아	99.52	독일	97.71	스페인	103.21	벨기에	95.21	아이슬란드	102.85	캐나다	98.80
13위	핀란드	96.71	벨기에	97.63	그리스	101.84	호주	94.68	핀란드	102.69	핀란드	96.71
14위	프랑스	95.23	핀란드	97.47	체코	101.78	이탈리아	94.02	독일	102.61	영국	96.06
15위	영국	95.08	헝가리	97.27	덴마크	100.83	아일랜드	93.11	스웨덴	101.79	독일	95.06
16위	대한민국	94.65	프랑스	93.03	호주	99.60	포르투갈	92.49	뉴질랜드	99.20	폴란드	94.83
17위	포르투갈	92.45	오스트리아	92.93	벨기에	98.00	영국	91.18	스위스	95.52	프랑스	93.63
18위	헝가리	91.58	그리스	92.81	영국	97.41	스페인	90.94	캐나다	94.47	체코	90.98
19위	캐나다	89.85	폴란드	92.17	헝가리	96.43	그리스	90.71	미국	94.30	이탈리아	87.86
20위	폴란드	87.97	영국	86.48	폴란드	94.23	미국	78.22	프랑스	93.92	그리스	85.50
21위	벨기에	85.75	캐나다	84.23	이탈리아	93.24			스페인	93.35	헝가리	82.10
22위	체코	80.16	체코	82.49	오스트리아	89.73			영국	89.06		
23위					포르투갈	88.75			헝가리	83.39		
24위					캐나다	88.62			이탈리아	83.00		
25위					뉴질랜드	80.81			오스트리아	82.98		
26위					미국	74.41			그리스	81.50		

* 괄호 안의 숫자는 평균 100점, 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 한 표준점수를 뜻함.

* 점수가 없는 국가는 가용한 데이터의 부재로 순위에서 빠짐

그림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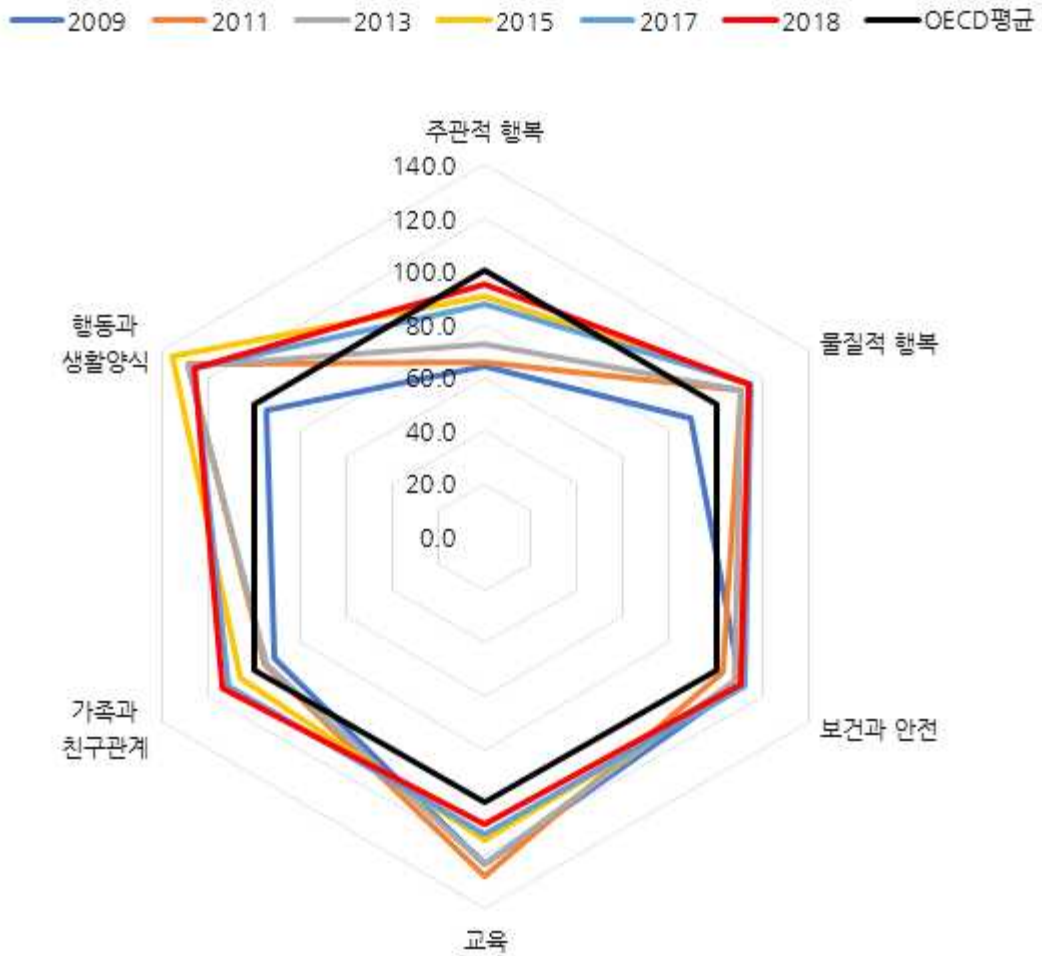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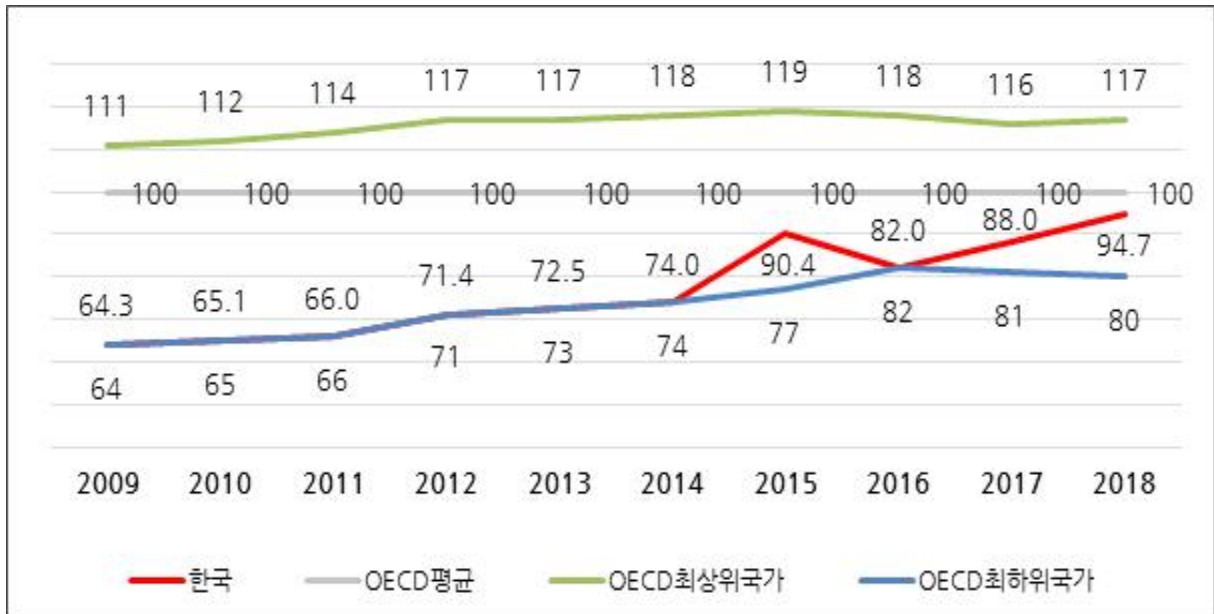


표1-2.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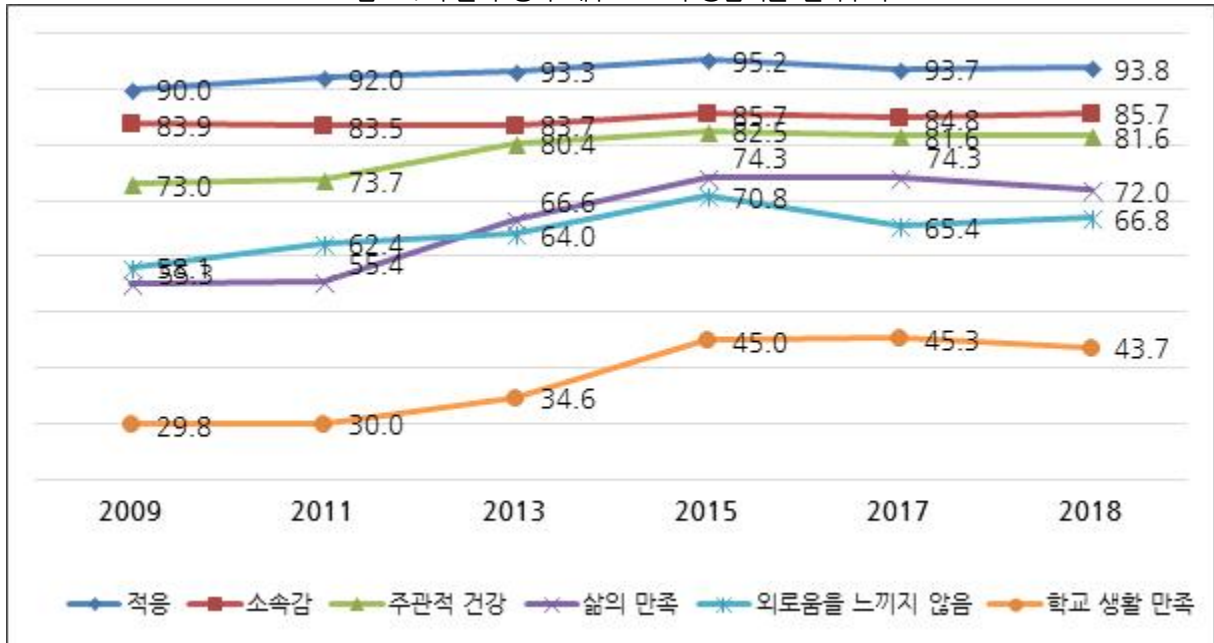
	주관적 행복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2009	64.3	89.1	110.5	123.4	91.6	95.1
2010	65.1	96.9	104.2	109.6	99.4	129.2
2011	66.0	110.7	102.6	127.8	96.1	129.3
2012	71.4	110.1	102.6	133.9	96.7	126.6
2013	72.5	110.8	108.4	123.0	95.1	129.1
2014	74.0	111.9	111.1	122.2	98.9	128.8
2015	90.4	114.4	110.7	114.5	106.1	135.7
2016	82.0	112.4	113.0	114.5	104.8	129.8
2017	87.6	115.3	112.5	112.0	111.9	126.4
2018	94.7	114.2	110.7	107.9	114.5	126.2

그림1-2.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 변화 추이



* OECD 평균을 100, 표준편차를 10으로 표준화시킨 점수

그림1-3. 주관적 행복 세부 요소의 응답비율 변화추이



- *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혹은 '다소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 혹은 '다소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소속감을 '매우 느낀다', 혹은 '다소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주변사람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 혹은 '다소 잘 어울린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외로움을 느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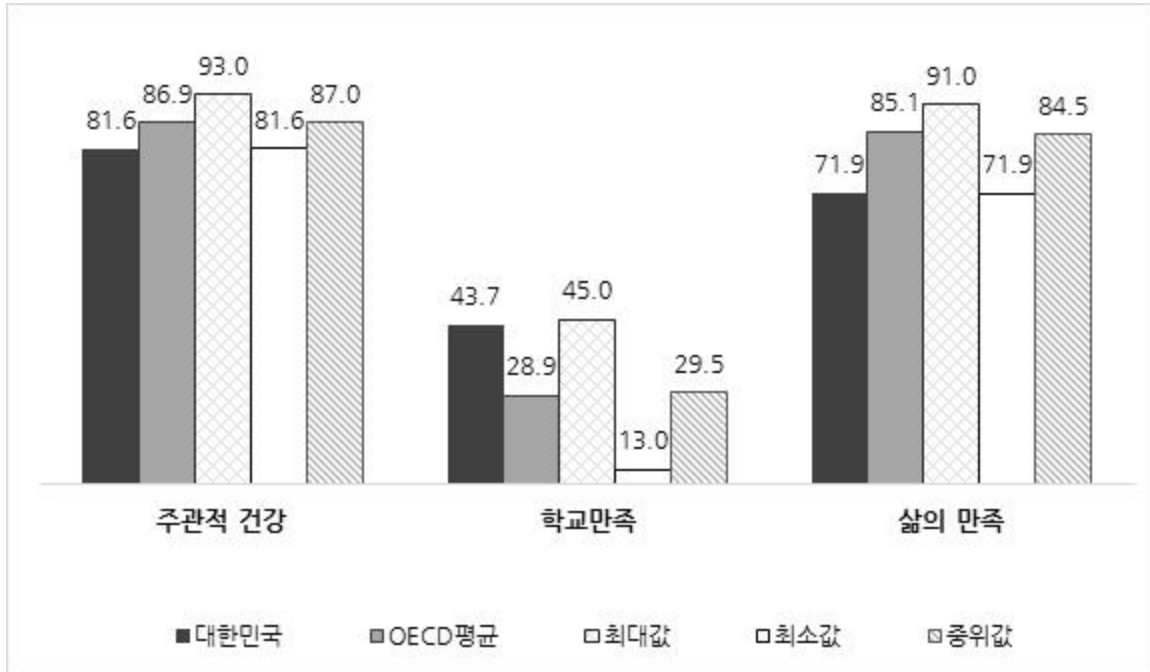
표1-3.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나쁨	학교 생활 만족	삶에 만족	소속감 못 느낌	주변상황 적응 못함	외로움
2009	24.4	29.4	55.4	10.1	8.2	20.1
2010	26.5	27.0	53.9	18.3	7.7	16.7
2011	26.2	30.3	55.4	15.9	7.2	16.2
2012	22.6	34.0	63.6	11.5	6.3	16.1
2013	19.6	35.6	66.6	16.3	6.7	15.3
2014	20.0	37.6	67.6	13.0	5.7	18.0
2015	17.5	45.0	74.3	14.3	4.8	11.6
2016	18.9	43.7	73.2	14.5	6.5	13.9
2017	18.4	45.3	74.3	15.2	6.3	15.2
2018	18.5	43.7	72.0	14.3	6.2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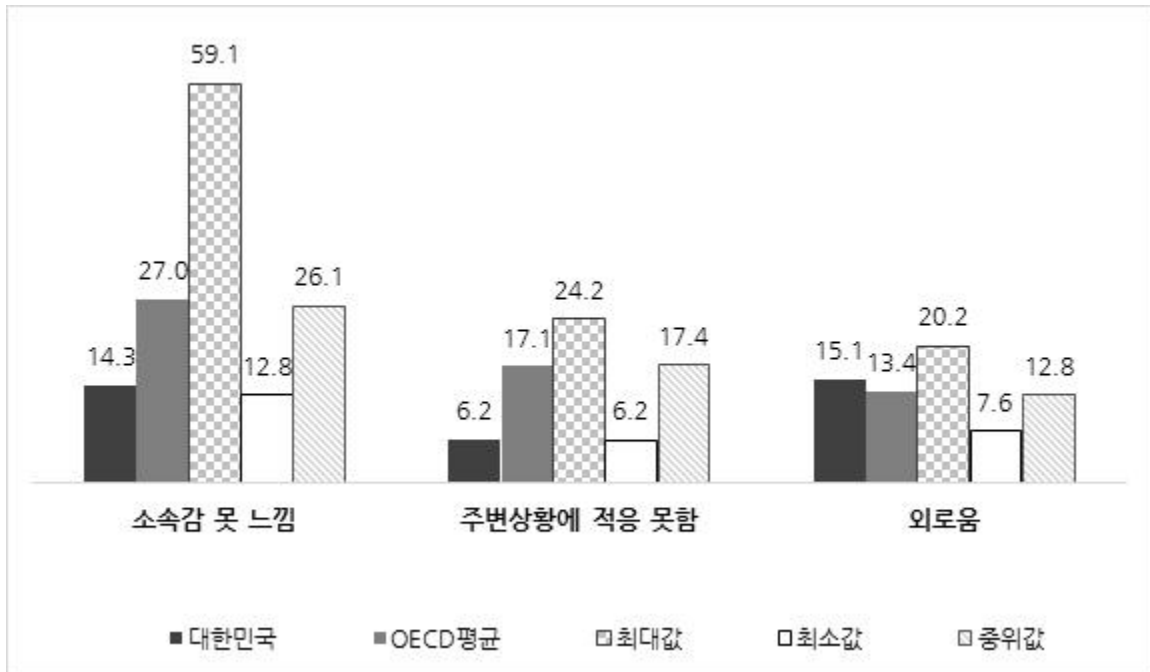
표1-4.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부모 및 친구관계

	홀부모 가정	이웃 가정	부모와 식사	부모와 대화	친절한 급우 관계
2009	6.1	1.8	68.4	58.3	59.6
2010	11.5	2.5	58.8	66.4	67.8
2011	9.5	2.2	53.2	41.9	70.9
2012	11.0	2.0	54.7	43.1	69.9
2013	8.9	2.0	50.6	41.2	66.1
2014	7.5	1.9	59.6	44.2	66.0
2015	6.2	0.7	59.7	47.1	77.2
2016	6.8	2.0	57.4	44.7	71.4
2017	8.5	1.6	69.5	53.9	75.0
2018	8.5	1.3	60.2	76.8	73.2

그림1-4. 2018년 주관적 행복도 세부 항목별 한국과 OECD통계 비교



- *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혹은 '좋다'고 응답한 비율
- * 학교 생활 만족: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삶의 만족: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 혹은 '다소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소속감: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 * 적응: 주변사람들과 주변 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 * 외로움: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1-5. 2009년과 2018년의 학교 생활 만족도 응답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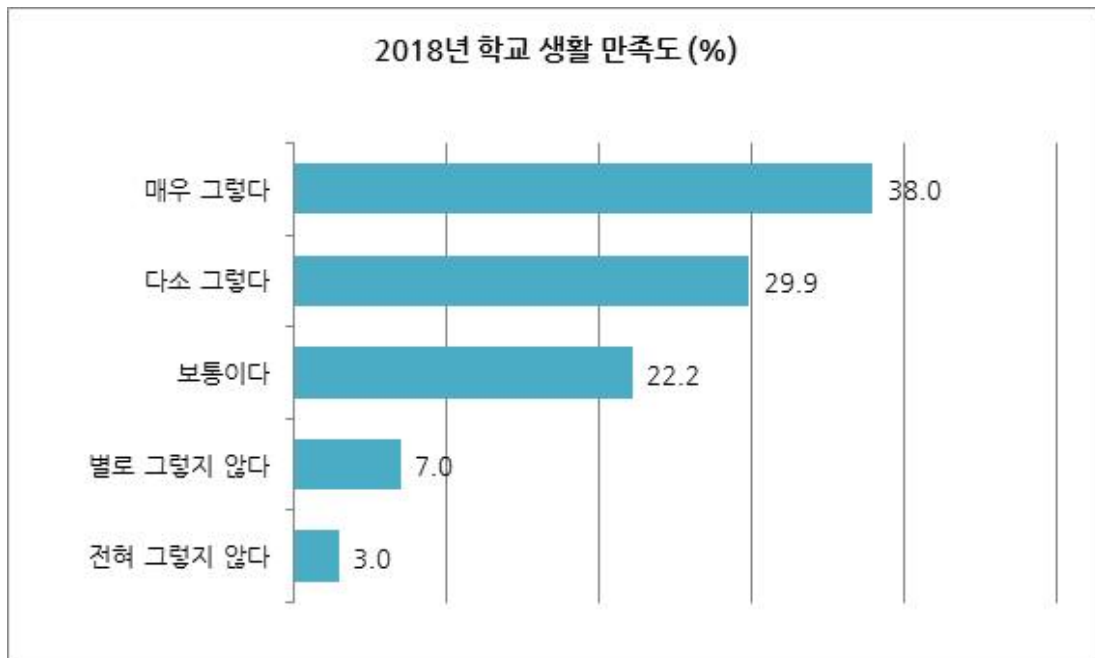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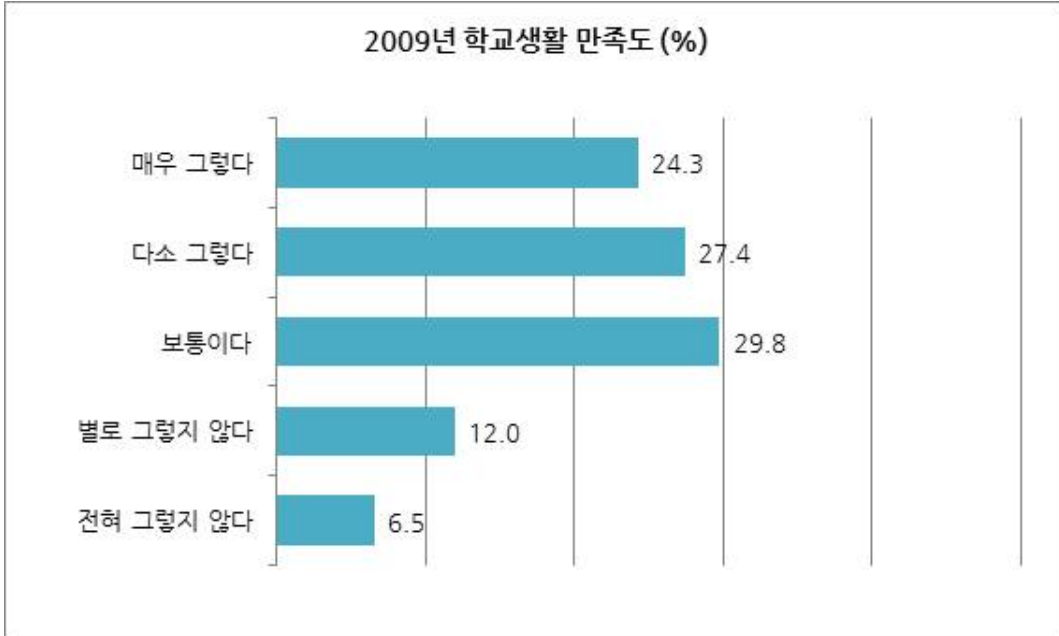


그림1-6. 2009년과 2018년의 삶의 만족도 응답 비율 변화



- 지난 10년 간 한국의 주관적 행복도는 30.3점 상승하여, OECD 평균에 근접하였다. 이는 주관적 행복도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 중 학교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의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24.3%에서 2018년 38.0%로 상승하였고,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 혹은 ‘다소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26.8%에서 2018년 43.2%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생활만족과 삶의 만족 응답비율 분포가 변화하였는데, 각 질문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크게 상승했고,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Ⅱ. 물질, 개인, 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행복을 위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증가

-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이 개인적, 물질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점수가 높았다. 관계적 가치의 하위 항목은 ‘동성친구’, ‘이성친구’, ‘화목한 가족’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요소에는 ‘건강’, ‘자유’, ‘종교’, ‘시간’ 등이 포함되고, 물질적 가치에는 ‘돈’, ‘성적 향상’, ‘자격증’이 포함되었다. 2009년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믿는 학생들의 비율이 4%정도 늘었으며, 반면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의 비율은 4%정도 줄어들었다.
- 이러한 양상은 교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행복을 위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1-5.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 명)

2009년		주관적 행복점수(0~5점)		
		3점 이하	3점 초과 ~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46)	479 (9.09%)	1,042 (19.8%)	1,521 (26.7%)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3.59)	377 (7.2%)	1,028 (19.5%)	1,405 (28.9%)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3.82)	423 (8.0%)	1,918 (36.4%)	2,341 (44.5%)
	합계	1,279 (24.3%)	3,988 (75.7%)	5,267 (100%)

* Pearson chi2(2) = 97.1249, p = 0.000

표1-6. 2018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 명)

2018년		주관적 행복점수(0~5점)		
		3점 이하	3점 초과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71)	455 (6.4%)	1,542 (21.7%)	2,219 (31.3%)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4.03)	274 (3.9%)	1,945 (27.4%)	1,997 (28.1%)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4.09)	278 (3.9%)	2,604 (36.7%)	2,882 (40.6%)
	합계	1,007 (14.2%)	6,091 (85.8%)	7,098 (100%)

* Pearson chi2(2) = 176.2172, p = 0.000

그림1-7. 2009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중시 정도와 주관적 행복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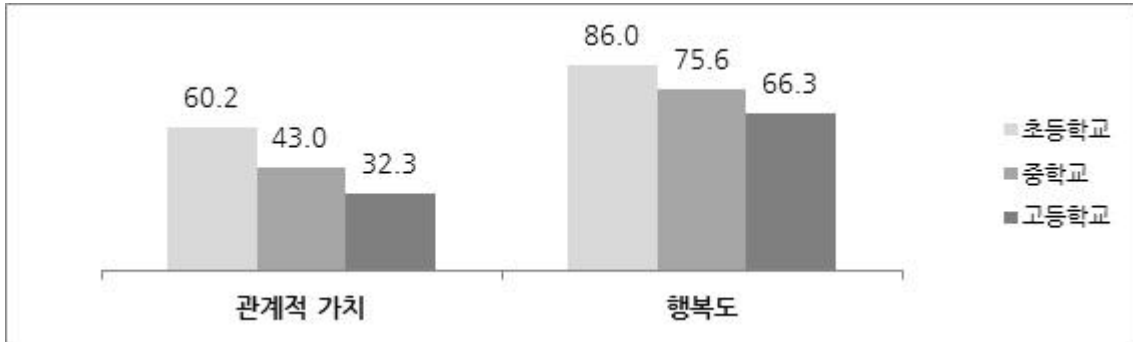


그림1-8. 2018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중시 정도와 주관적 행복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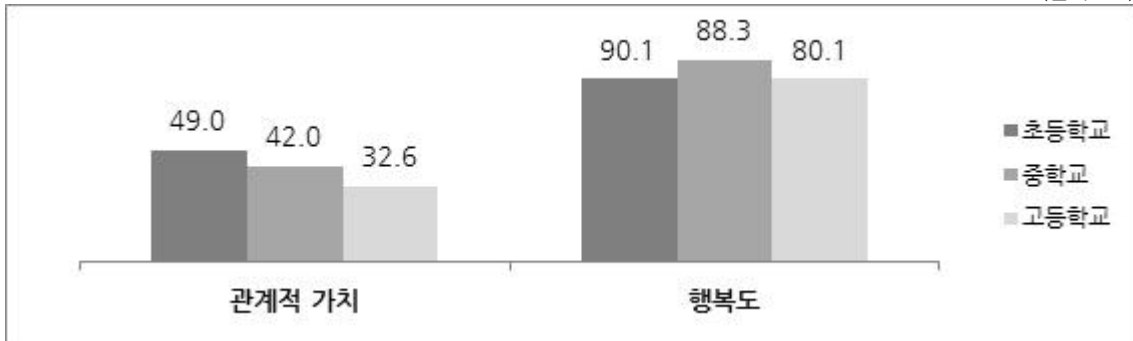


그림1-9. 2009년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교급별 가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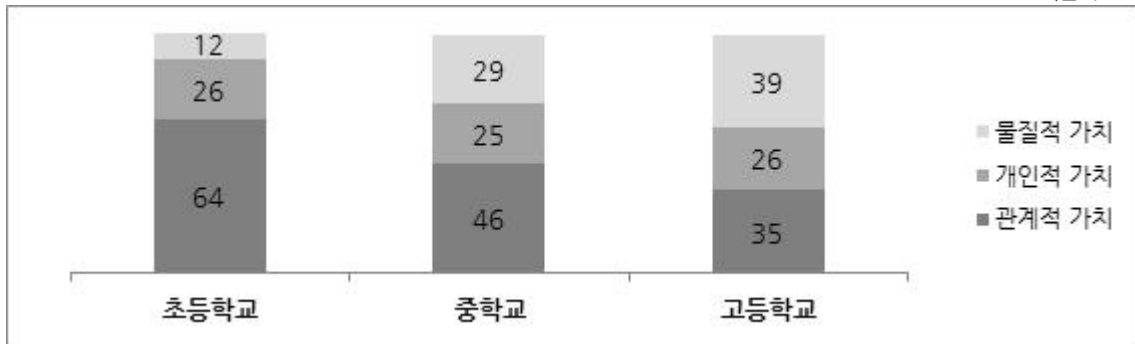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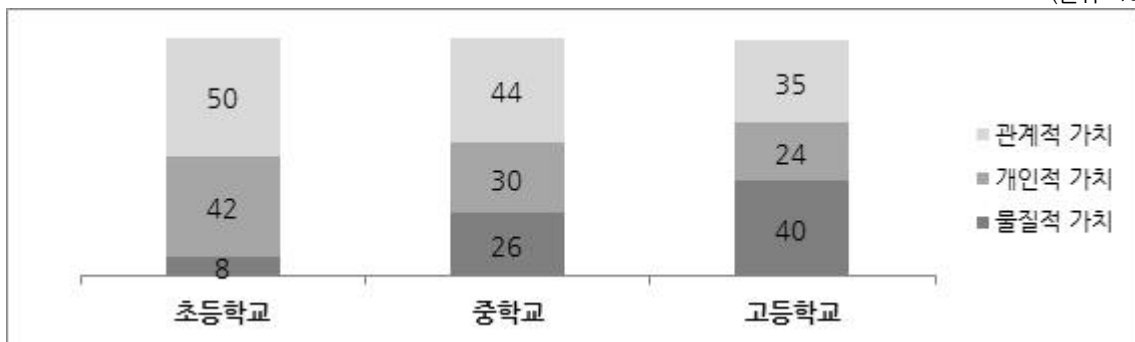


그림1-10. 2018년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교급별 가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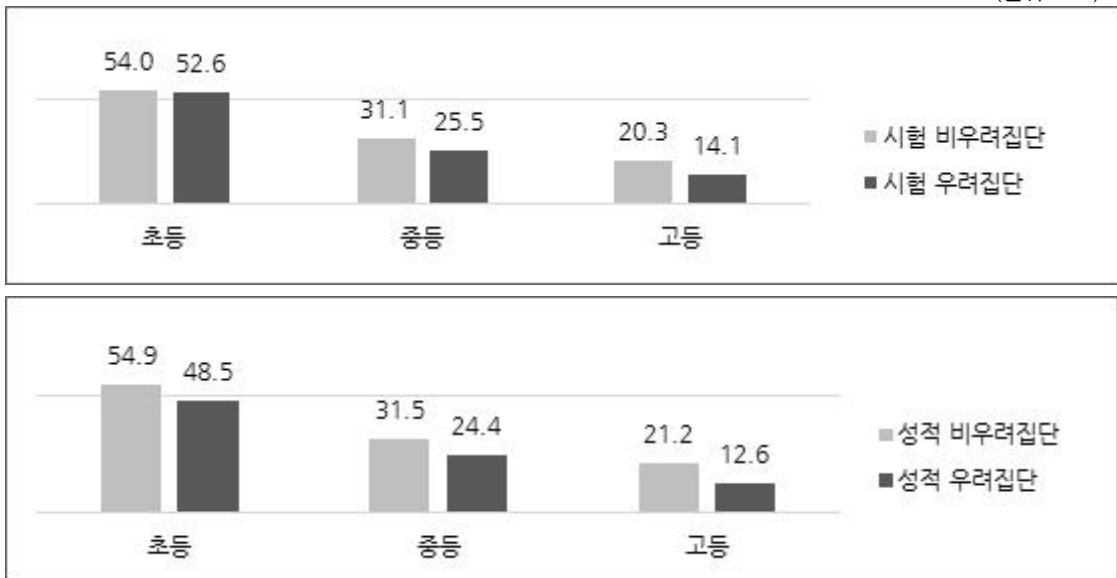


Ⅲ. 시험 · 성적 우려집단

-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해 두 집단이 주관적 행복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주관적 행복감이 교급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두 집단간 차이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1-11. 시험 · 성적 우려집단과 주관적 행복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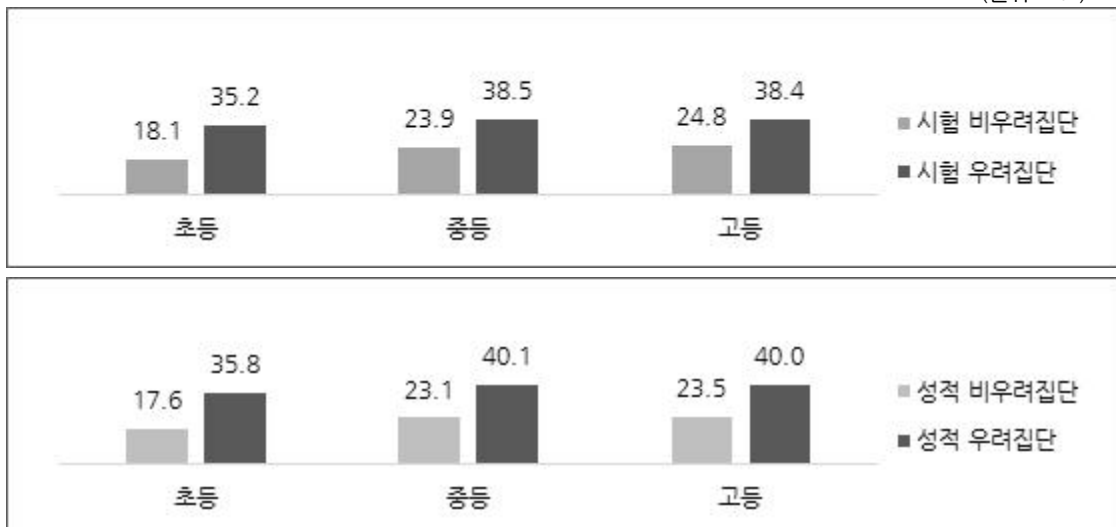


* 주관적 행복감(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또한 시험 및 성적 우려집단과 비우려집단이 자살충동 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시험·성적 우려집단은 전반적으로 약 2.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2배 수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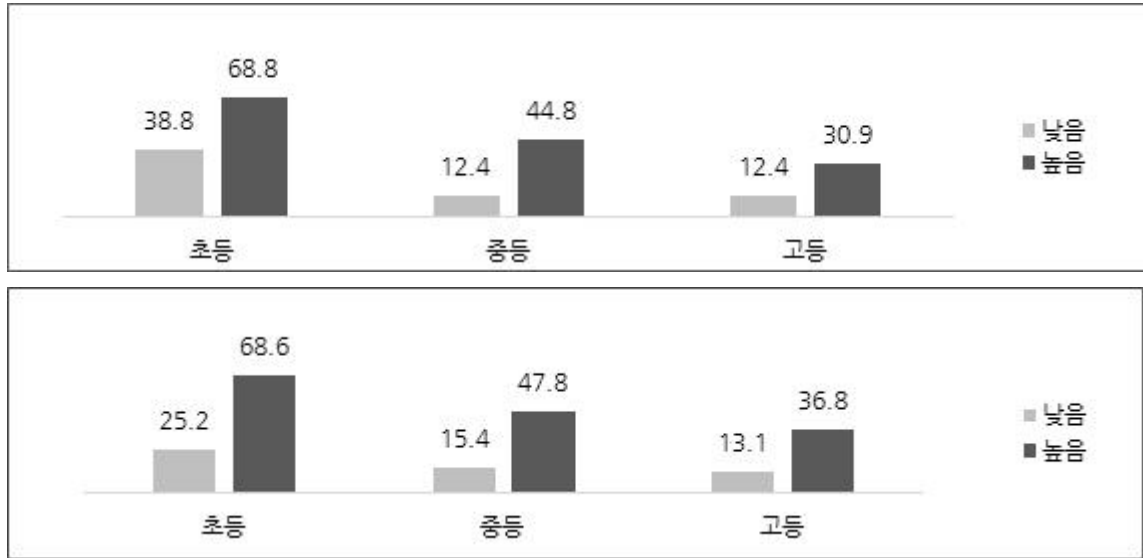
그림1-12. 시험 ·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 충동 경험

(단위 : %)



-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이들 집단이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주관적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으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1-13.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단위 :%)



*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또한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이들 집단이 자살충동 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4. 친구 도움 의식 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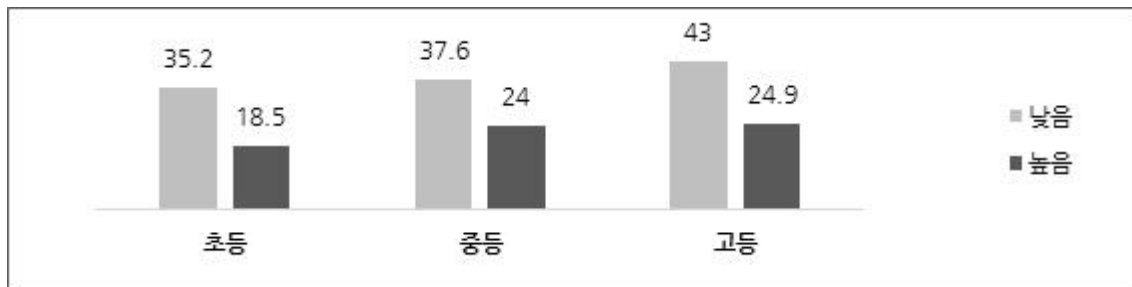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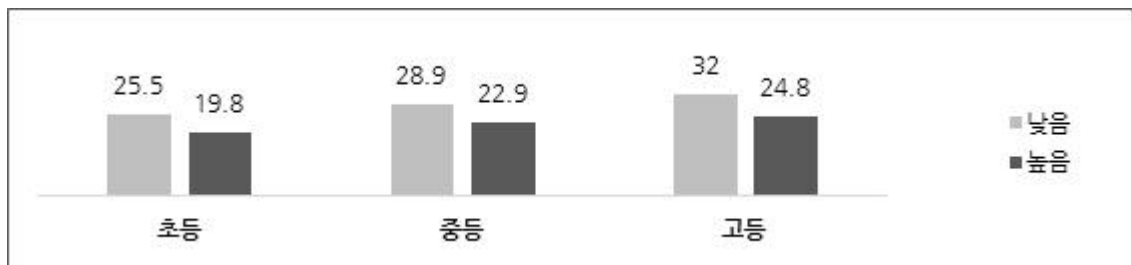


그림1-15. 자원봉사 의식 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단위 :%)



제2장 연구개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조사설계

1. 개요

-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 연구를 새로이 추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분석했으며, 2014~2017년 스마트폰과 게임이용, 친구관계 등을 새로이 추가해서 연구하고 있다.

2. 조사설계

- 2018년 설문조사는 2018년 3월 ~ 4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7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급을 표집 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크기 비례 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 무작위로 추출된 학급의 학교에 교감 선생님께 먼저 연락하여 조사 허락을 받은 후 각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유효표본 수는 총 7,345명으로 초등학생 2,201명, 중학생 2,424명, 그리고 고등학생 2,720명이다.
- 이 설문조사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조사지역	전국 (제주도 제외)
표 본 수	총7,345명(초등학생 2,201명, 중학생 2,424명, 고등학생 2,720명)
표본추출방법	크기비례확률추출법 (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조사방법	배포-수거방식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8년 3월 7일 ~ 4월 6일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3. 표본 특성

표2-2. 표본 특성

구분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7,345	100.0	2,201	100.0	2,424	100.0	2,720	100.0	
성별	남	3,831	52.1	1,115	51.0	1,313	54.2	1,403	51.6	
	여	3,514	47.9	1,086	49.0	1,111	45.8	1,317	48.4	
거주지역	수도권	3,368	46.0	1,012	46.0	1,164	48.0	1,192	43.8	
	강원도	269	4.0	72	3.0	99	4.1	98	3.6	
	충청권	814	11.0	275	13.0	249	10.3	290	10.7	
	영남권	2,124	29.0	597	27.0	679	28.0	848	31.1	
	호남권	770	10.0	245	11.0	233	9.6	292	10.8	
지역규모	대도시	3,223	43.9	906	41.1	1,100	45.4	1,217	44.8	
	중소도시	3,095	42.1	930	42.3	981	40.5	1,184	43.5	
	읍면지역	1,027	14.0	365	16.6	343	14.2	319	11.7	
학교급	초등학교	4학년	2,201	-	751	34.1	-	-	-	-
		5학년			726	33.0	-	-	-	-
		6학년			724	32.9	-	-	-	-
	중학교	1학년	2,424	-	-	-	785	32.4	-	-
		2학년			-	-	843	34.8	-	-
		3학년			-	-	796	32.8	-	-
	고등학교	1학년	2,720	-	-	-	-	-	823	30.3
		2학년			-	-	-	-	1018	37.4
		3학년			-	-	-	-	879	32.3

4. OECD 자료

-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수집하였다.
- 대표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서베이,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 올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사용한 데이터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14	통계청 2015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9세 이하	OECD 2014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¹⁾	15세	OECD 2012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12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WHO 2016		
		저체중아의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OECD 2015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HO 2016	
			소아마비 예방접종		0~11개월	WHO 2016	
			DPT3 예방접종		12~23개월	WHO 2016	
사고사	아동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당)	19세 이하	WHO 2008			
교육	학업 성취	학업성취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15		
	교육 참여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15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	15~19세	OECD 2016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1) 교육자재 : PISA(2009)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자기만의 계산기', '사전', '학교교과서'로 총 8개의 항목이 조사된 결과를 보여준다.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5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진 행위)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율	13, 15세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	11, 13, 15세		
	위험 행위	흡연/음주/마약/섹스	흡연/음주 경험 비율 마약사용 경험 비율		11, 13, 15세	
			섹스 경험 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10대 출산율		15-19세 (여)	OECD 2015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PISA 2015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표2-4. 2009-2015년 측정지표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 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0 (1999, 2001 부분적 사용)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6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13	통계청 2015	OECD 2014	통계청 2015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4세 이하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6 KCWI)	OECD 2014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OECD 2015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결핍	교육 여건	교육자재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OECD 2012		OECD 2012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3		PISA 2003		PISA 2006		PISA 2006		PISA 2012		PISA 2012		PISA 2012		PISA 2012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OECD 2002 2003	사망원인 통계 2007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WDI 2013		WDI 2013		WHO 2015		WHO 2016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OECD 2002 2003	OECD 2002 2003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OECD 2011		OECD 2011		UNICEF 2014		OECD 2015			
	예방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3		WDI 2013		WHO 2015		WHO 2016	
			소아마비 예방접종	0~11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UNICEF 2013		UNICEF 2013		WHO 2015		WHO 2016	
DPT3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3		WDI 2013		WHO 2015		WHO 2016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 당)	19세 이하	WHO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영역	구성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교육	학업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03		PISA 2006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12		PISA 2012		PISA 2015		PISA 2015			
	교육참여	아동의 학업 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09	국제통계연감 2007	OECD 2009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OECD 2010		OECD 2012		OECD 2012		OECD 2012		OECD 2012		OECD 2015		OECD 2015			
	청소년실업	실업 상태인 청소년	학교나 훈련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면서 직업이 없는 청소년 비율	15-19세	조사하지 않음		OECD 2009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3		OECD 2013		OECD 2014		OECD 2016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15세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HBSC 2001	HBS 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15세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사너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6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8 KCWI)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사너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 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13,15세	HBSC 2001		HBSC 2001	HBS C 2001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HBSC 2016		

영역	구성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행동과 생활양식	건강행동 (증진행위)	아침 식사	학교가기전 아침식사 하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06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HBSC 2016	본연구 설문지 (2017 KCWI)	HBSC 2016	본연구 설문지 (2018 KCWI)								
		과일 섭취	매일 과일 섭취하는 학생비율	11,13 15세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인 학생의 비율	13, 15세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운동	지난 1주일 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수	11,13 15세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위험행위	흡연 음주 마약 섹스	흡연/음주 경험비율 마약 사용 경험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06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HBSC 2016	본연구 설문지 (2017 KCWI)	HBSC 2016									
			섹스 경험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WDI 2011																				WDI 2011	WDI 2013	WDI 2013	WDI 2015	OECD 2015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건강상태가 '전혀', '별로' 좋지않거나 '보통' 응답자 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06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HBSC 2016	본연구 설문지 (2017 KCWI)	HBSC 2016										
	학교생활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HBSC 2006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6	HBSC 2016		
	삶의 만족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12	PISA 2012	PISA 2012	PISA 2015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응답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응답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15세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12	PISA 2012	PISA 2012	PISA 2015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했다.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지역별, 지역규모별, 교급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TATA MP와 SPSS를 활용해 분석했다.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 OECD 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개별지표를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 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 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표2-5. 2018년 한국 어린아·청소년 행복연구(KCW)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3)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OECD 평균	한국 표준점수		
					원점수	구성요소별 표준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0-17세	12.2	11.4	101.7	114.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아동	19세 이하	10.2	4.1	117.8	
	결핍	교육여건	15세	2.7	3.1	110.7	
	문화적 결핍	19세 이하	12.3	4.6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0-12개월	3.2	2.9	105.6	110.7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6.6	5.7		
	예방접종	홍역	12~23개월	94.3	98.0	111.4	
		소아마비		94.9	98.0		
		DPT3		95.2	98.0		
사고사	아동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3.8	22.4	103.2		
교육	학업성취 (PISA 표준화 점수평균:500)	읽기	15세	500.2	517.0	112.4	107.9
		수학		498.6	524.0		
		과학		501.0	516.0		
	교육참여	15-19세 아동 학업유지	15-19세	87	86	98.1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15-19세	5.4	7.7	89.2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15세	28.7	15.4	115.0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11, 13, 15세	15.2	8.5	127.9	114.5
		의붓 가정		9.0	1.3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15세	78.7	60.2	95.7	
		함께 대화하기		61.1	76.8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11,13,15세	70.5	75.0	102.3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증진행위	아침식사	11,13,15세	67.2	75.8	122.9	126.2
		과일섭취	11,13,15세	38.8	59.2		
		과체중 (BMI 25 이상)	13, 15세	14.5	9.6		
		운동 (평균 일 수)	11,13,15세	18.8	13.3		
	건강 위협행위	흡연	11,13,15세	5.0	1.4	124.9	
		음주		8.8	8.8		
		마약		14.9	1.0		
		섹스		15세	20.7		
	임신과 출산	15-19세 (여)	9.40	1.7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13,15세	13.1	18.5	84.6	94.7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11,13,15세	28.9	43.7	114.5	
	개인행복	삶의 만족	11,13,15세	85.2	71.9	91.1	
		소속감 못느낌	15세	27.1	14.3		
		어울림 못느낌		18.3	6.2		
외로움		13.7		15.1			

2) 생활과 행동양식영역에서 '폭력의 경험'은 한국에서 유니세프 연구와 같은 지표화와 측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표산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3) UNICEF의 원지표는 '지난 1주일간에 한하여' 음주여부'를 묻는 질문인데 반해, 본 연구 설문지(KCW)는 '지금까지 두번 이상 음주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율이 과대측정 되었다

제3장 OECD 행복지수 4)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하여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4) 그래프에서 수치가 0인 경우는 해당 수치가 조사되지 않은 국가로 기술 통계지에서는 0을 결측값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I.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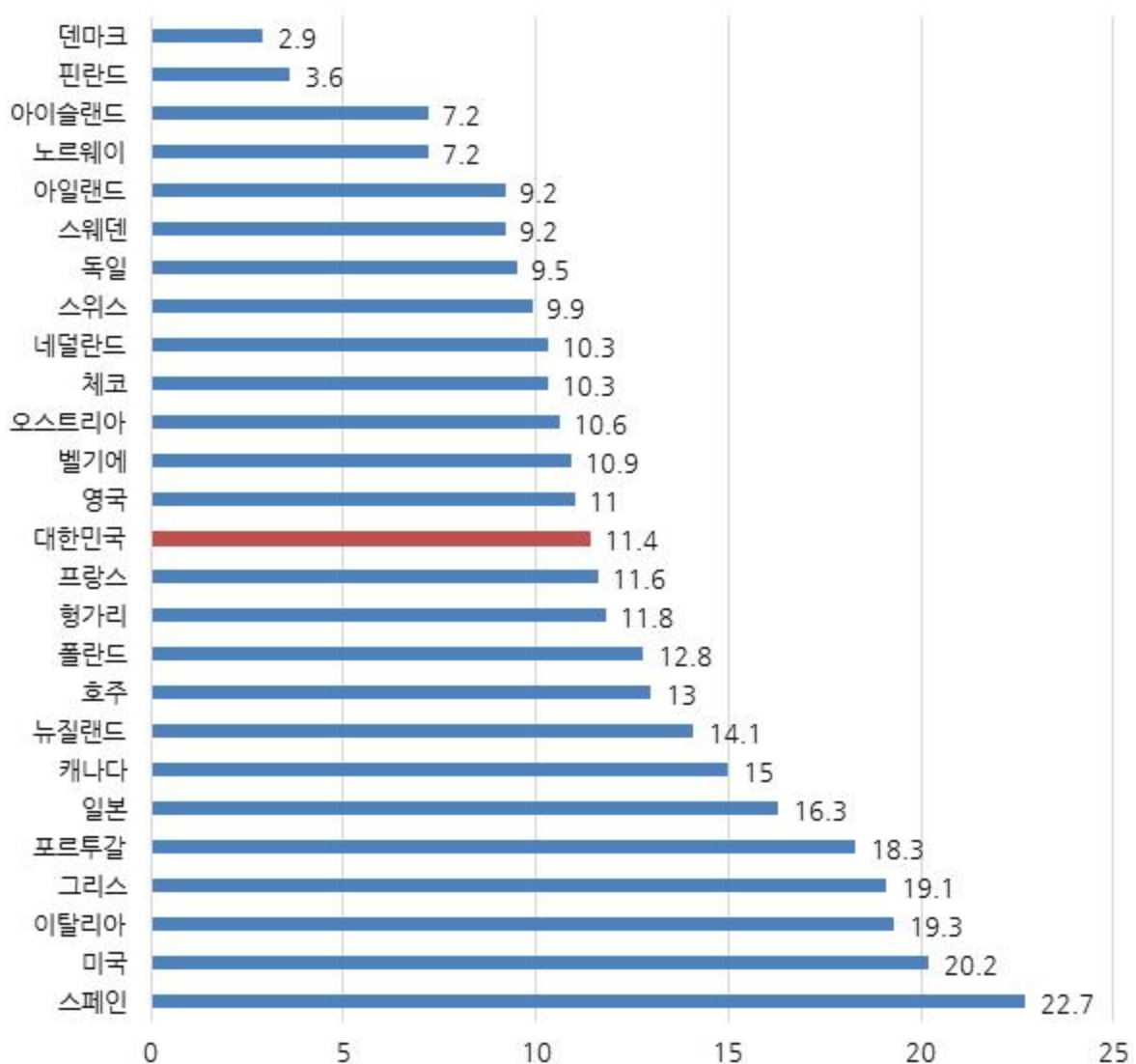
1.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1.4%로, OECD 국가 평균(12.2%)보다 근소하게 낮았다.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상대적 빈곤	12.2	4.8	2.9	11.4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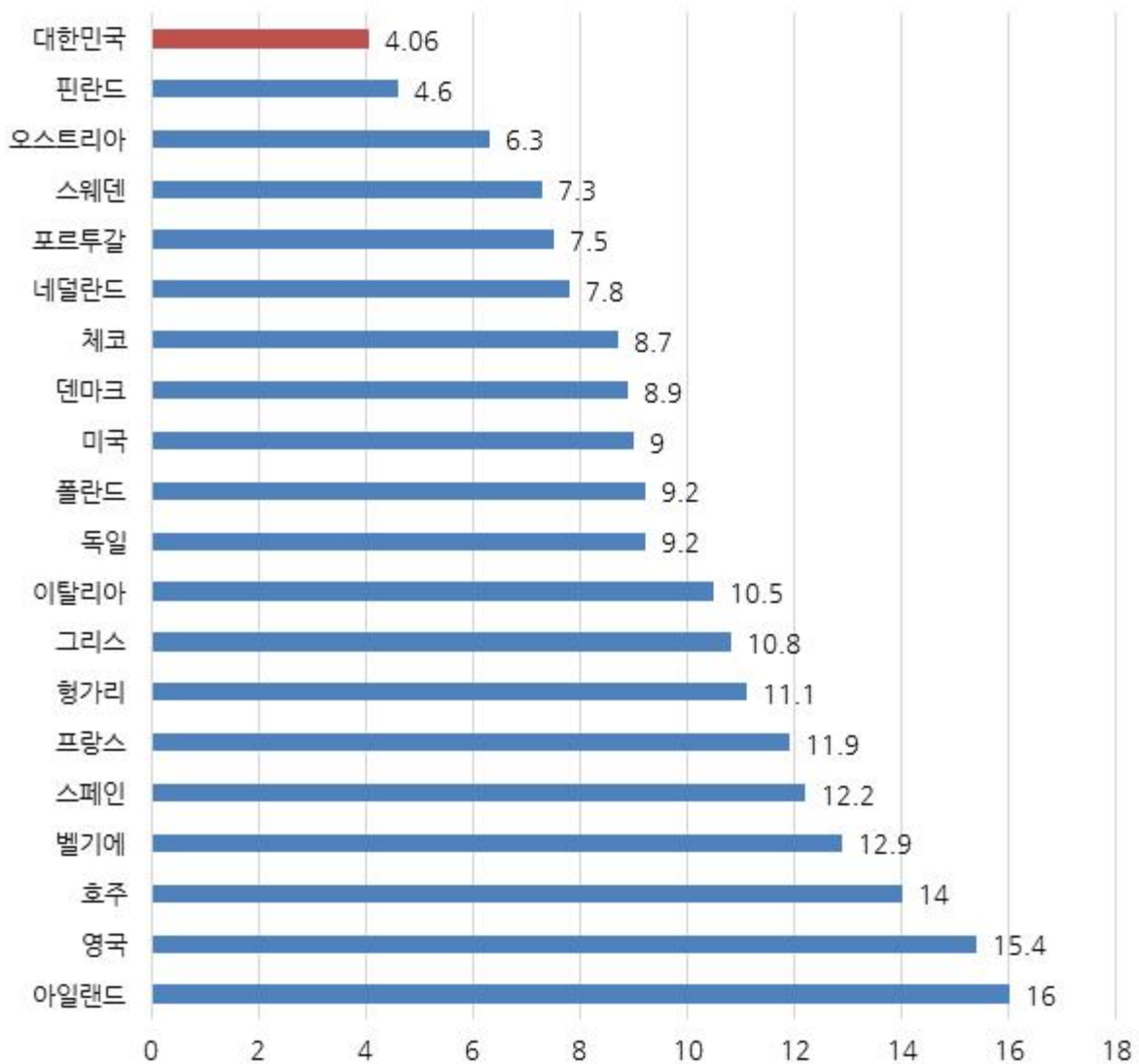
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비율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4.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 미취업 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미취업 가정	9.8	3.2	4.06	4.06	16

3. 결핍 교육여건

교육여건 : 교육자재-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를 4개 미만 소유한 비율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3.1% 로, OECD 국가 평균(2.7%)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3-3. 교육여건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교육여건결핍	2.7	1.9	0.8	3.1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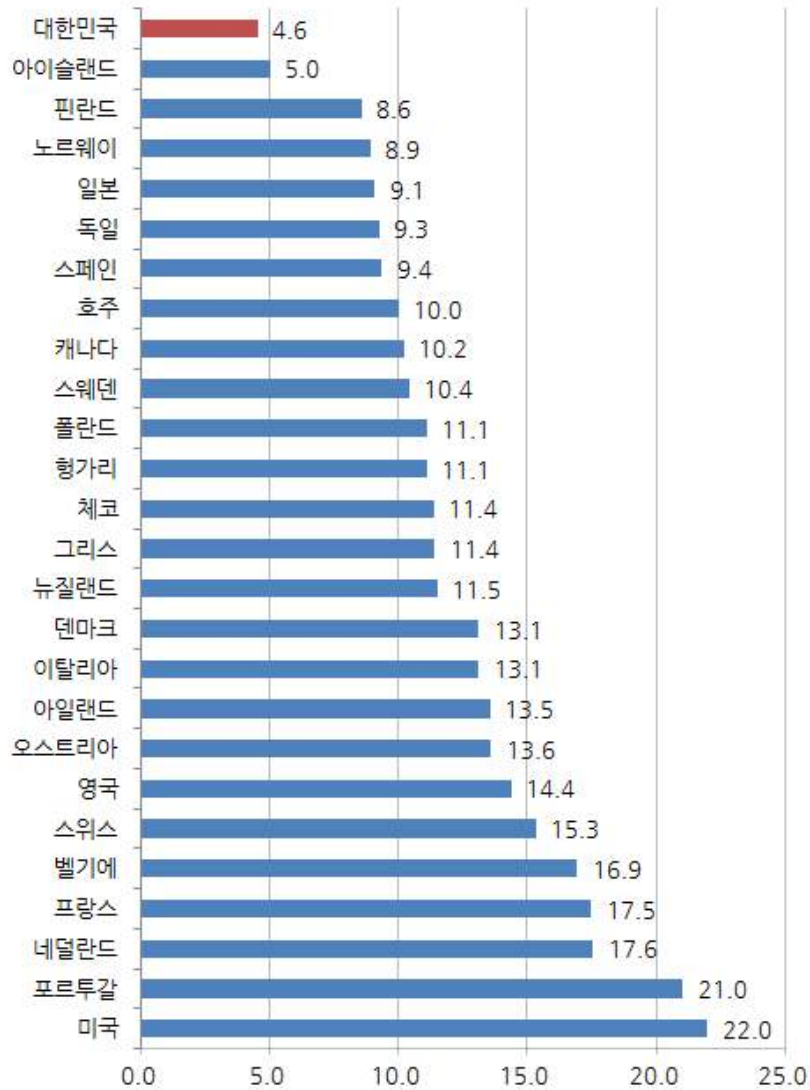
3. 결핍 문화적 결핍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권 이하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문화적 결핍수치는 4.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4. 문화적 결핍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문화적 결핍	12.3	4.2	4.6	4.6	22.0

II.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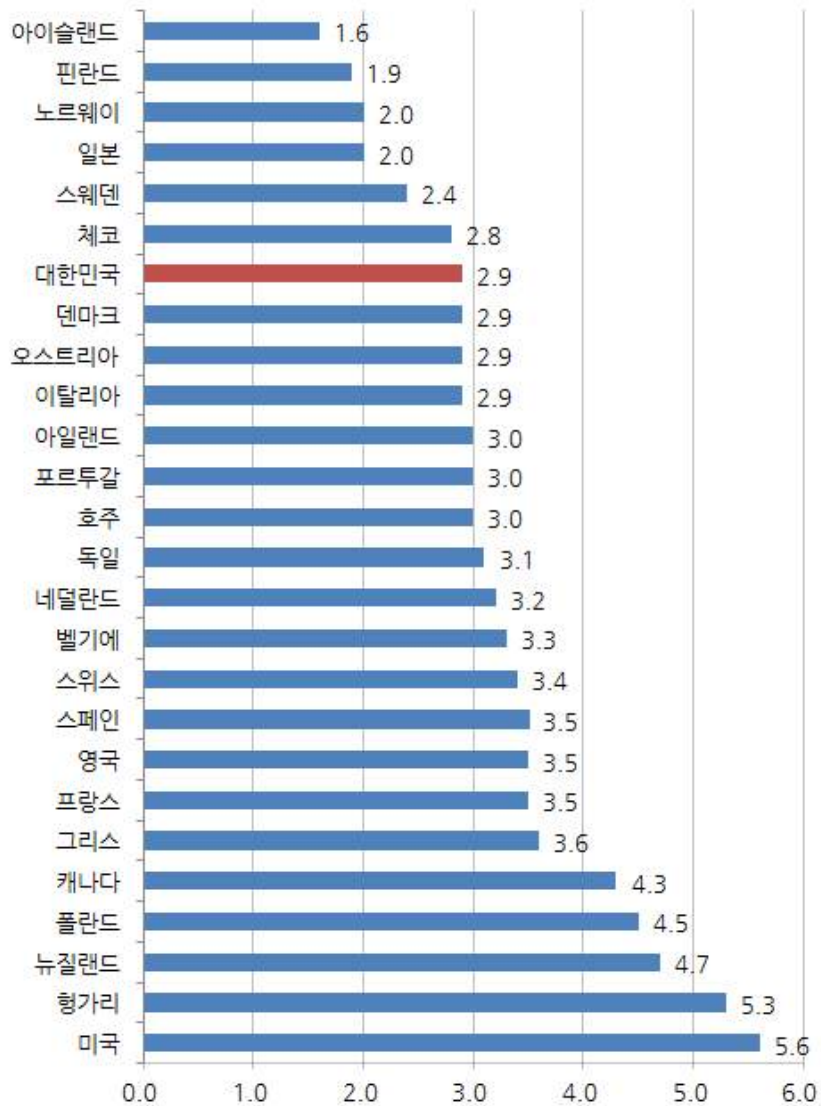
1. 영아건강_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세의 비율(출산 1,000명당)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9%로, OECD 국가 평균(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5. 영아사망률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영아사망률	3.2	1.0	1.6	2.9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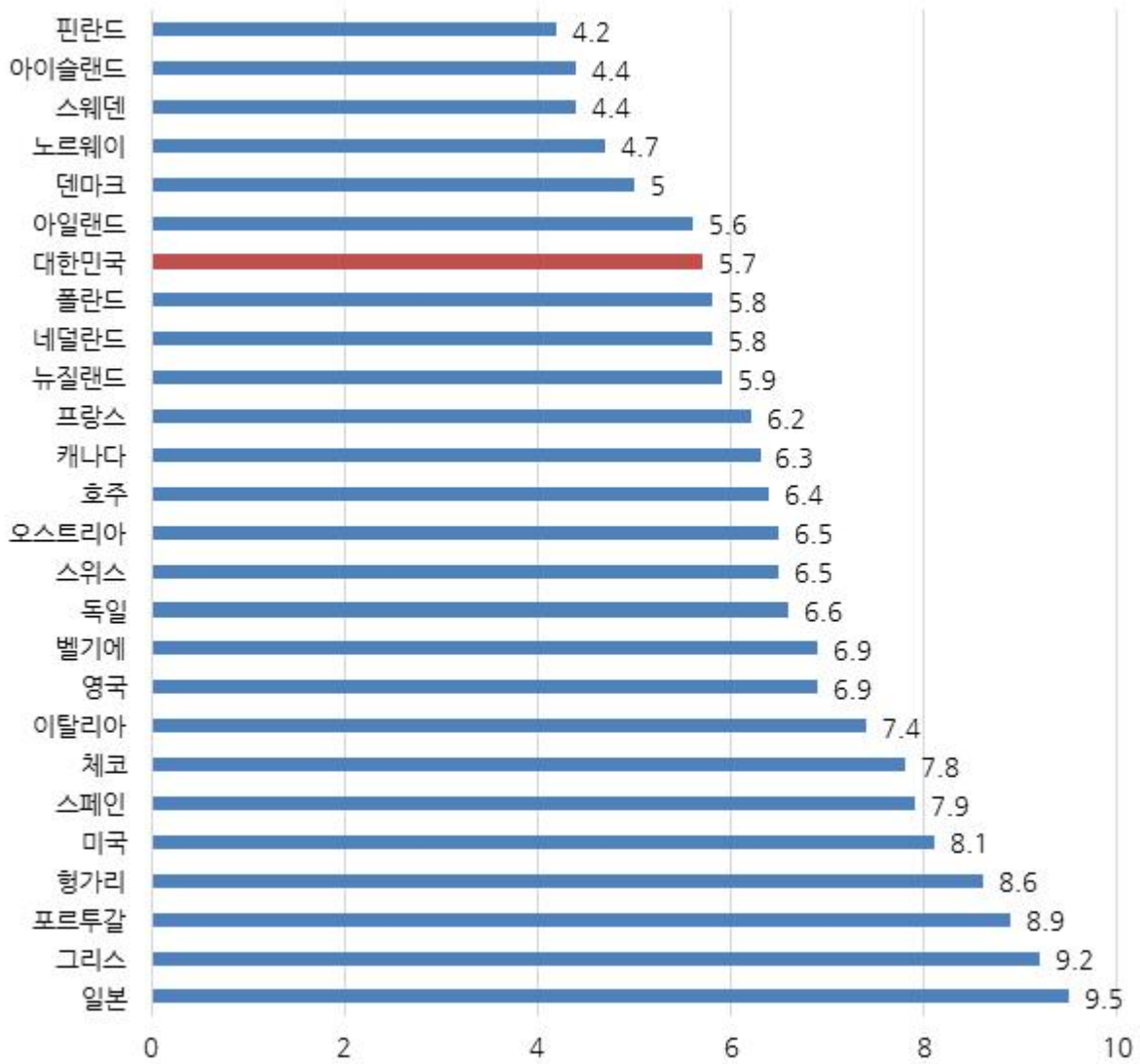
1. 영아건강_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5.7%로, OECD 국가 평균인 6.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6. 저체중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저체중아	6.6	1.5	4.2	5.7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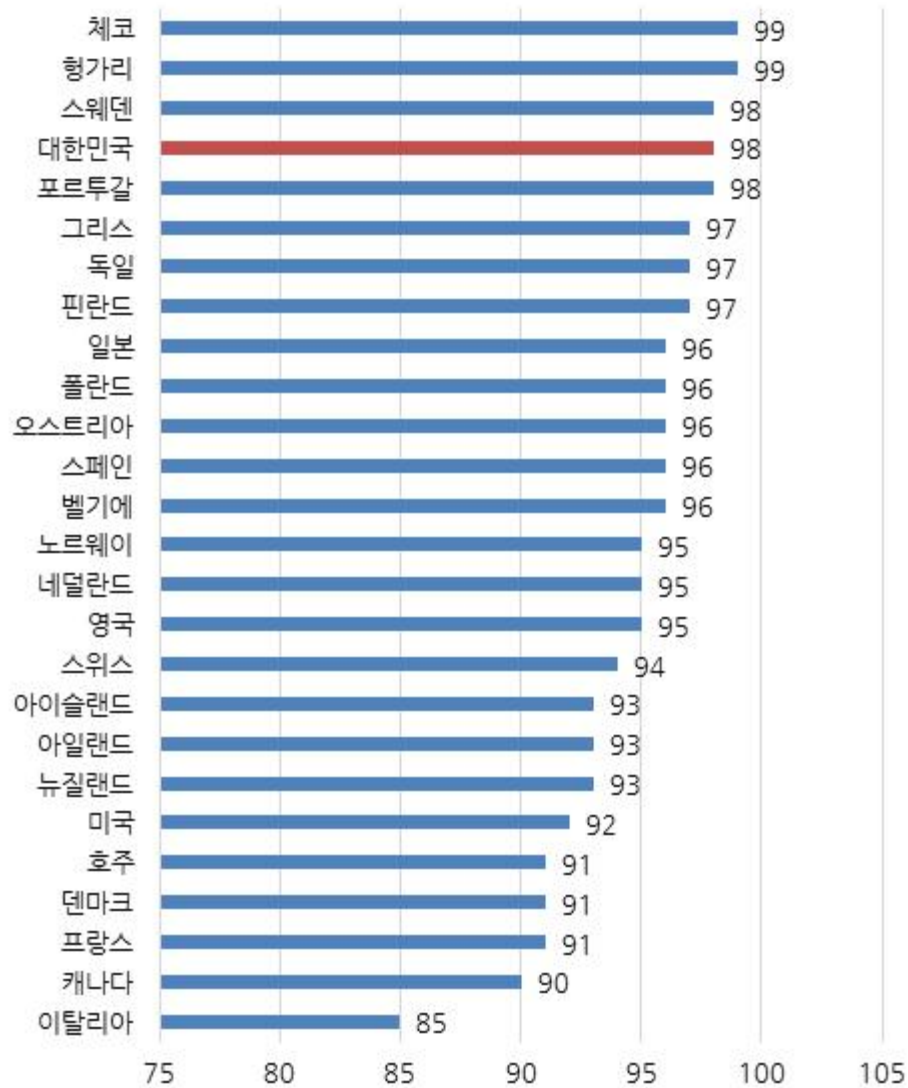
2. 예방접종_홍역

홍역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홍역 예방접종	94.4	3.2	99	98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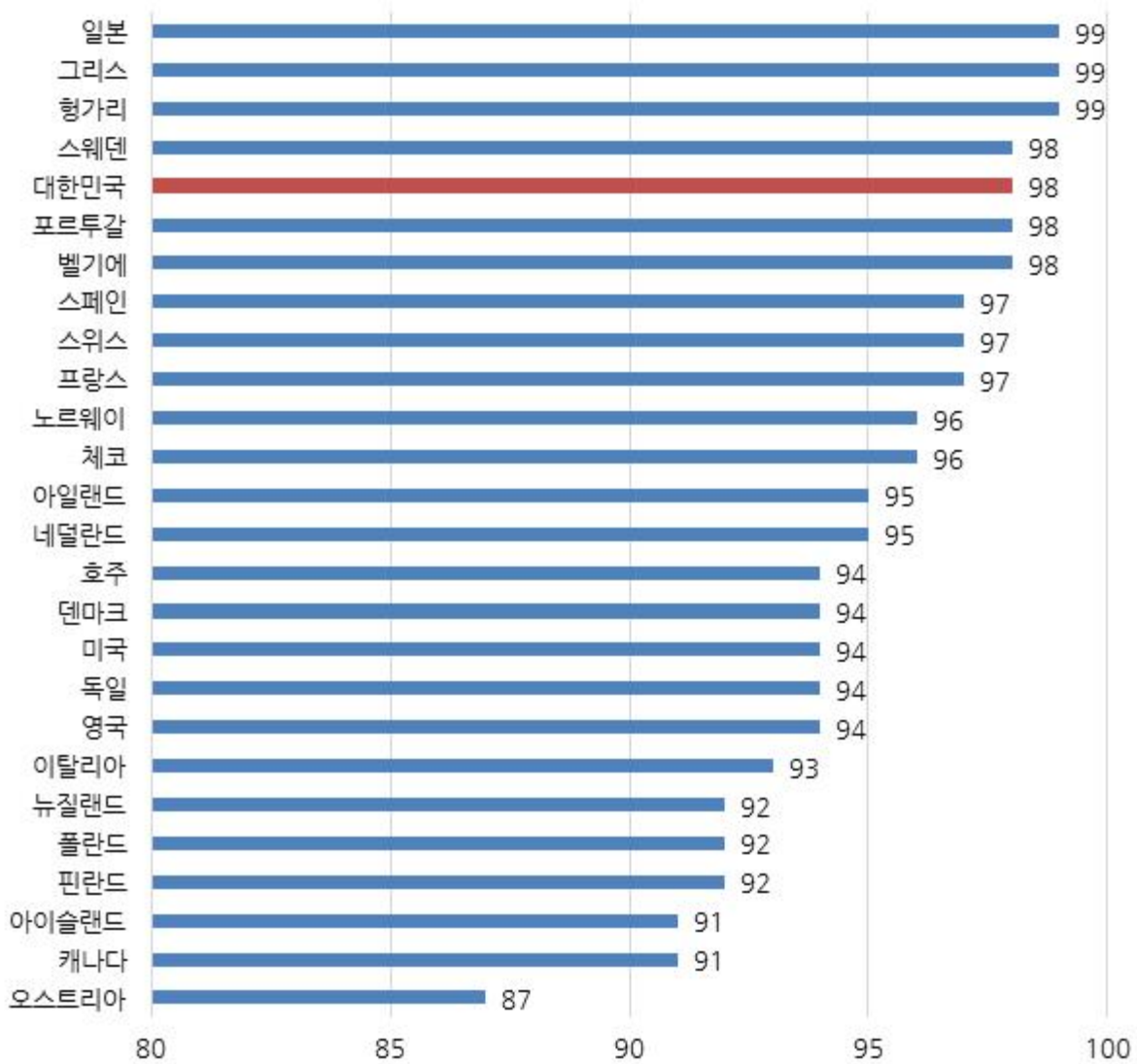
2. 예방접종 비율_소아마비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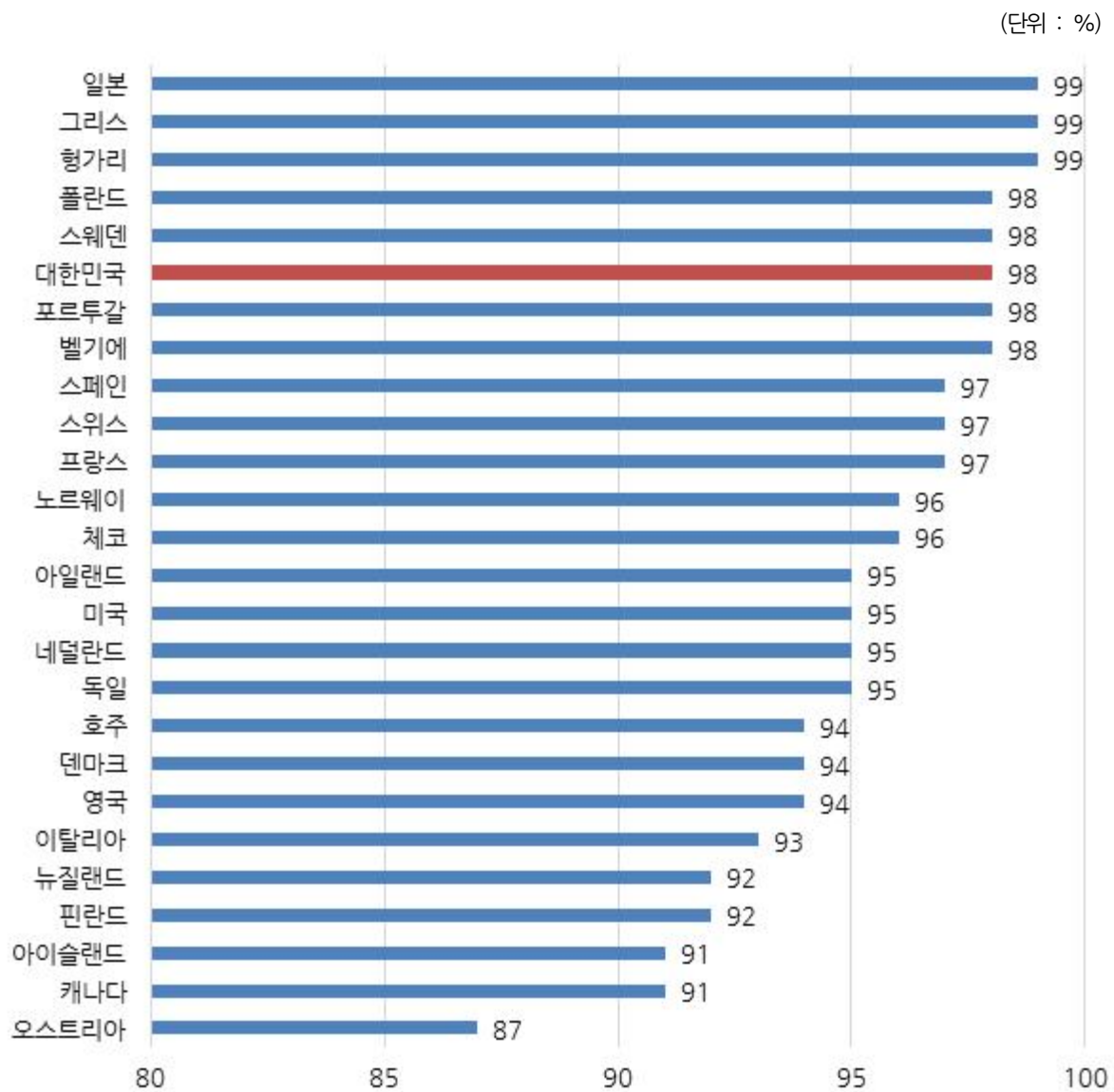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소아마비 예방접종	95	2.9	99	98	87

2. 예방접종_DP3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비율 : 12~23개월 영아의 DPT3 예방접종 비율

- DP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 역시 한국은(98%)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99%에 가깝다.

그림3-9. DPT 예방접종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DPT3 예방접종	95.3	2.9	99	9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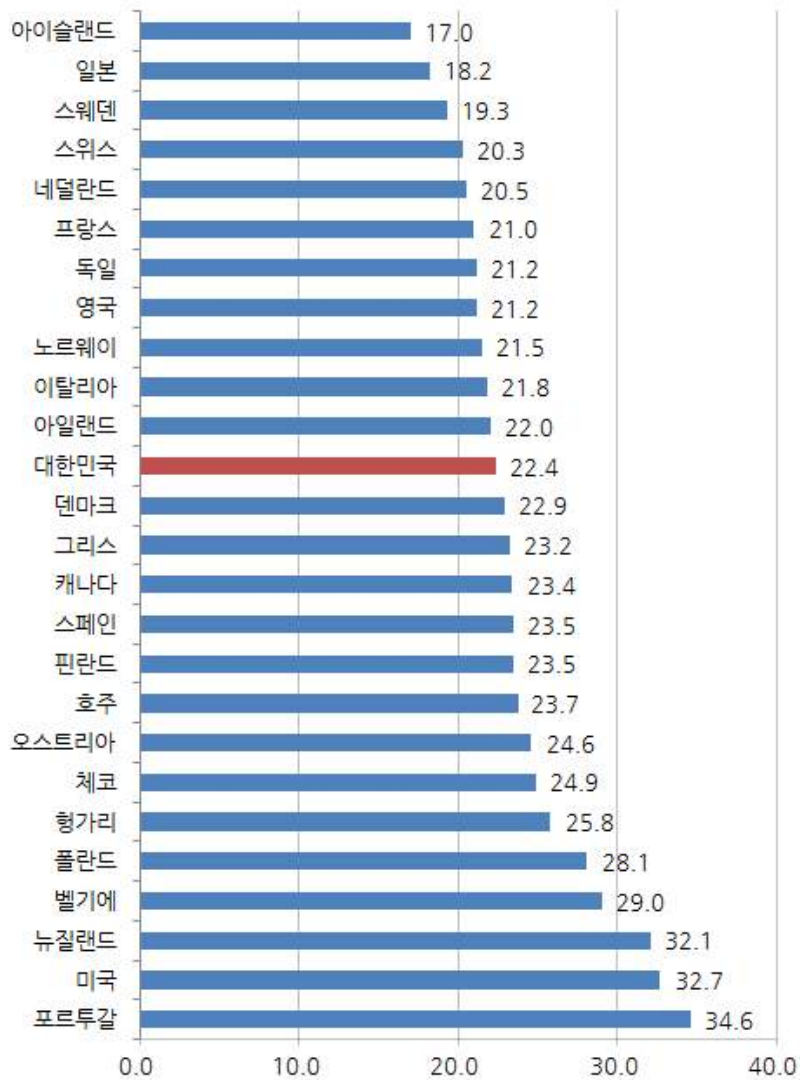
3. 사고사

아동사고사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19세 이하)의 십만 명당 비율

- 한국의 연평균 아동사고사 비율은 10만 명당 2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23.8명)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3-10. 아동사고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아동 사고사	23.8	4.3	17.0	22.4	34.6

Ⅲ.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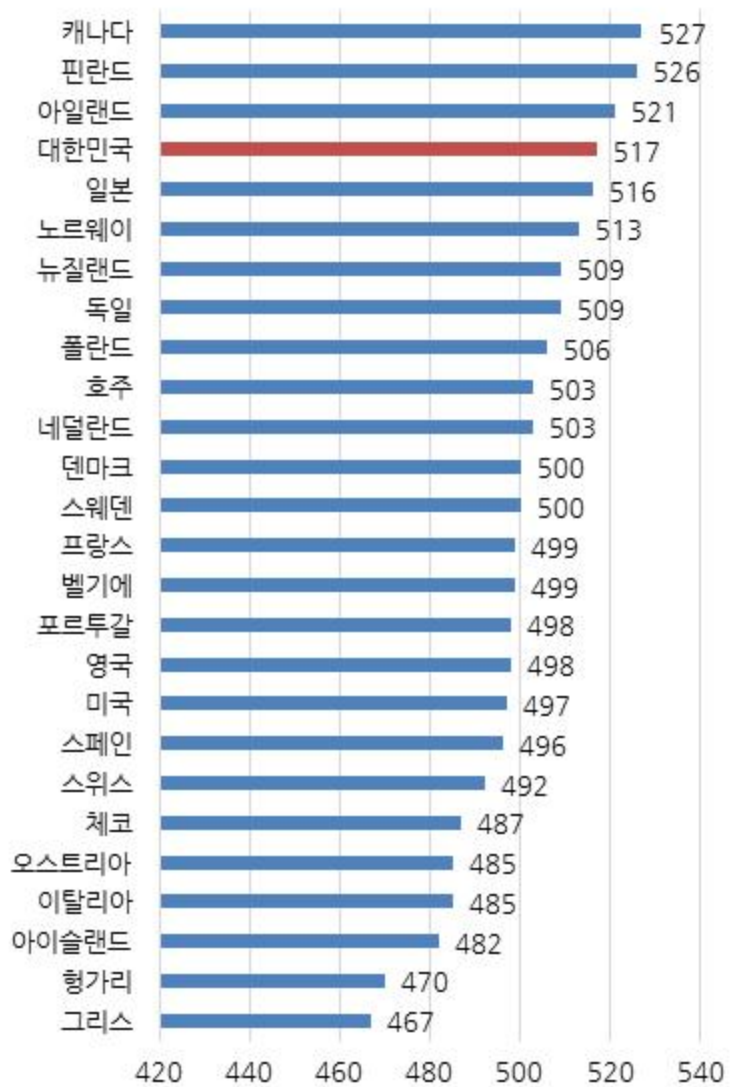
1. 학업성취_읽기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점수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17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4순위로 나타났다.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읽기 점수	500.2	15.1	527	517	467

1. 학업성취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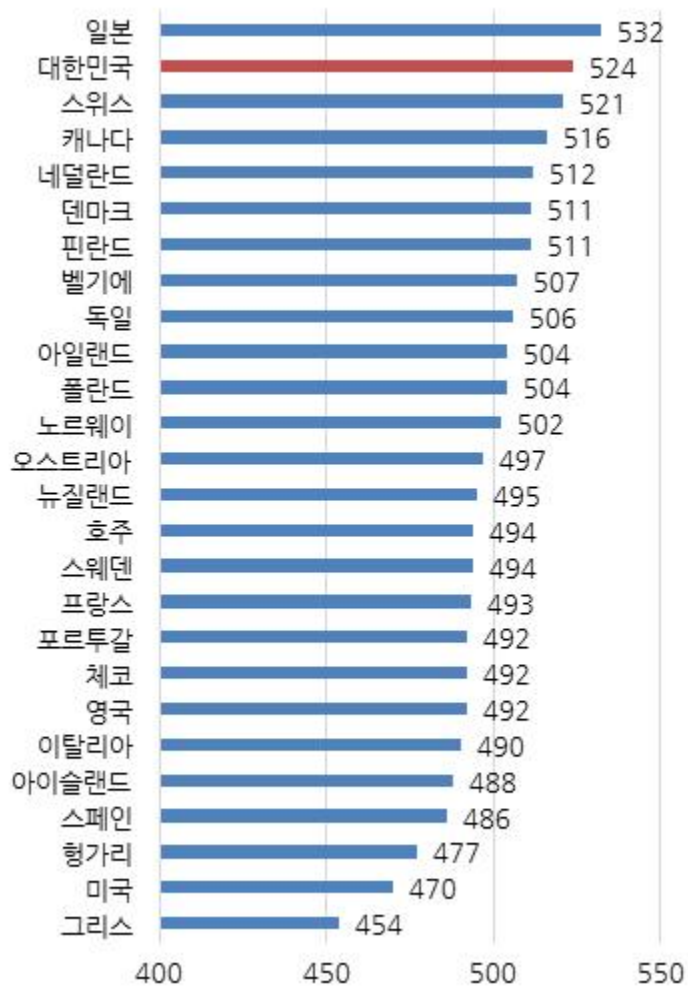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수학 점수

- 한국의 수학시험 점수는 OECD국가 평균(498.6)을 크게 상회하는 524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수학 점수	498.6	16.8	532	524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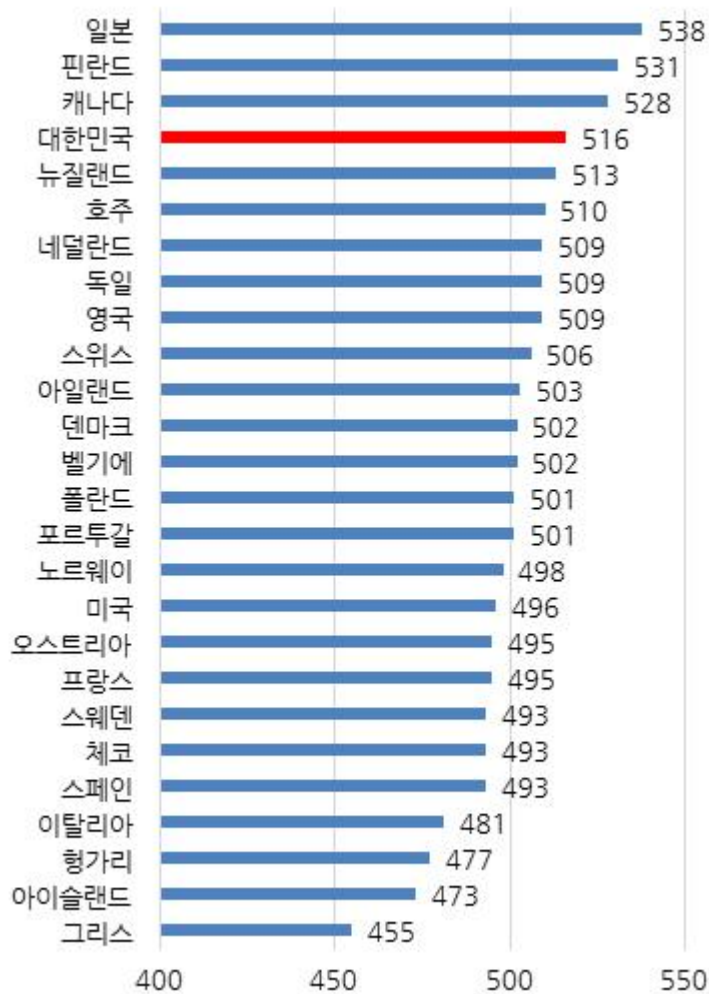
1. 학업성취 과학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과학 점수

- 한국의 과학시험 점수는 516점으로 OECD 국가 평균(501)보다 크게 높았으며, 핀란드, 일본, 캐나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학 점수	501	17.4	538	516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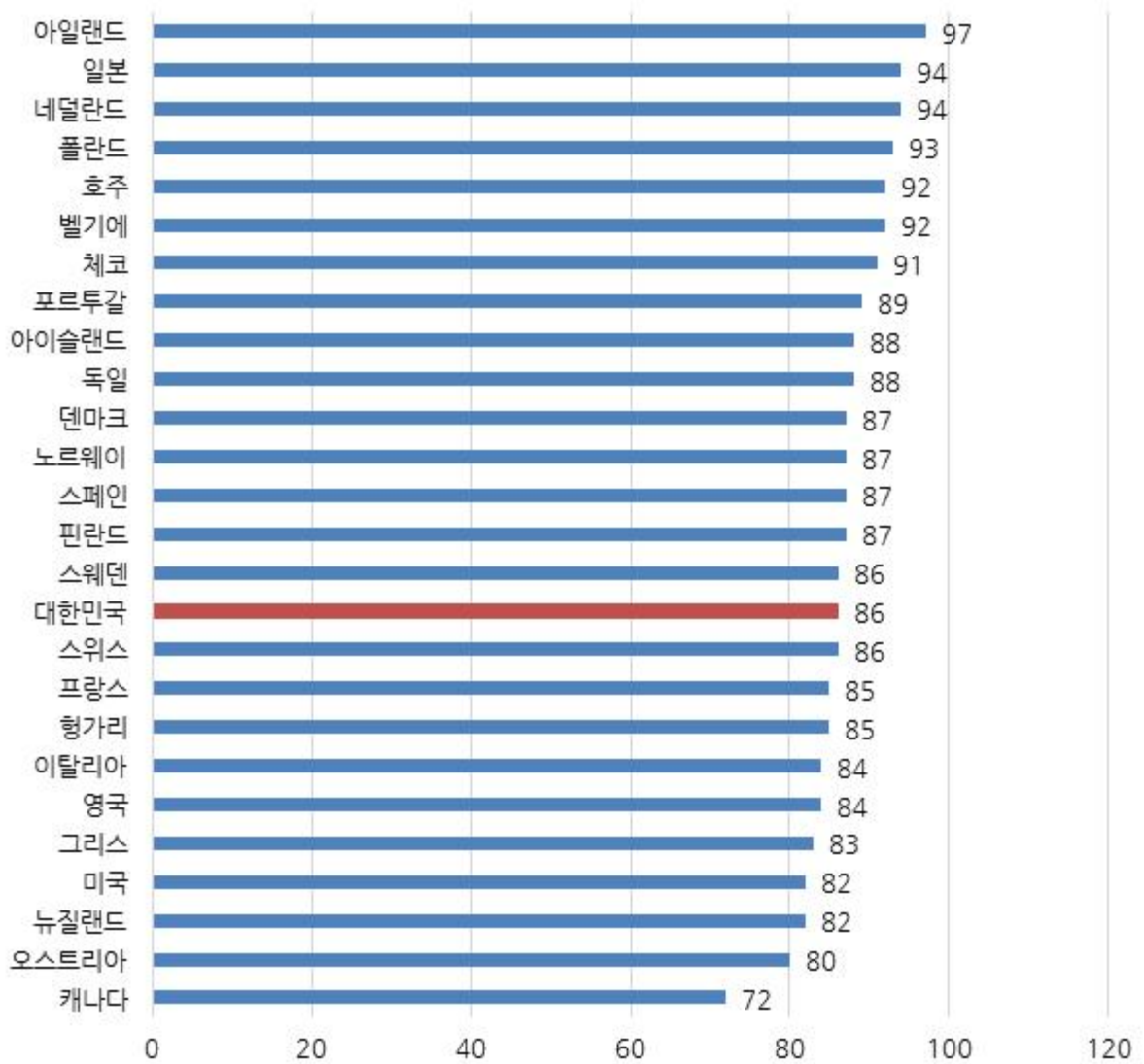
2. 교육참여_학업유지

15-19세 아동의 학업 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세의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학업유지 비율은 86%로, OECD 국가 평균 87%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3-14. 학업유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학업 유지	87.0	5.1	97	86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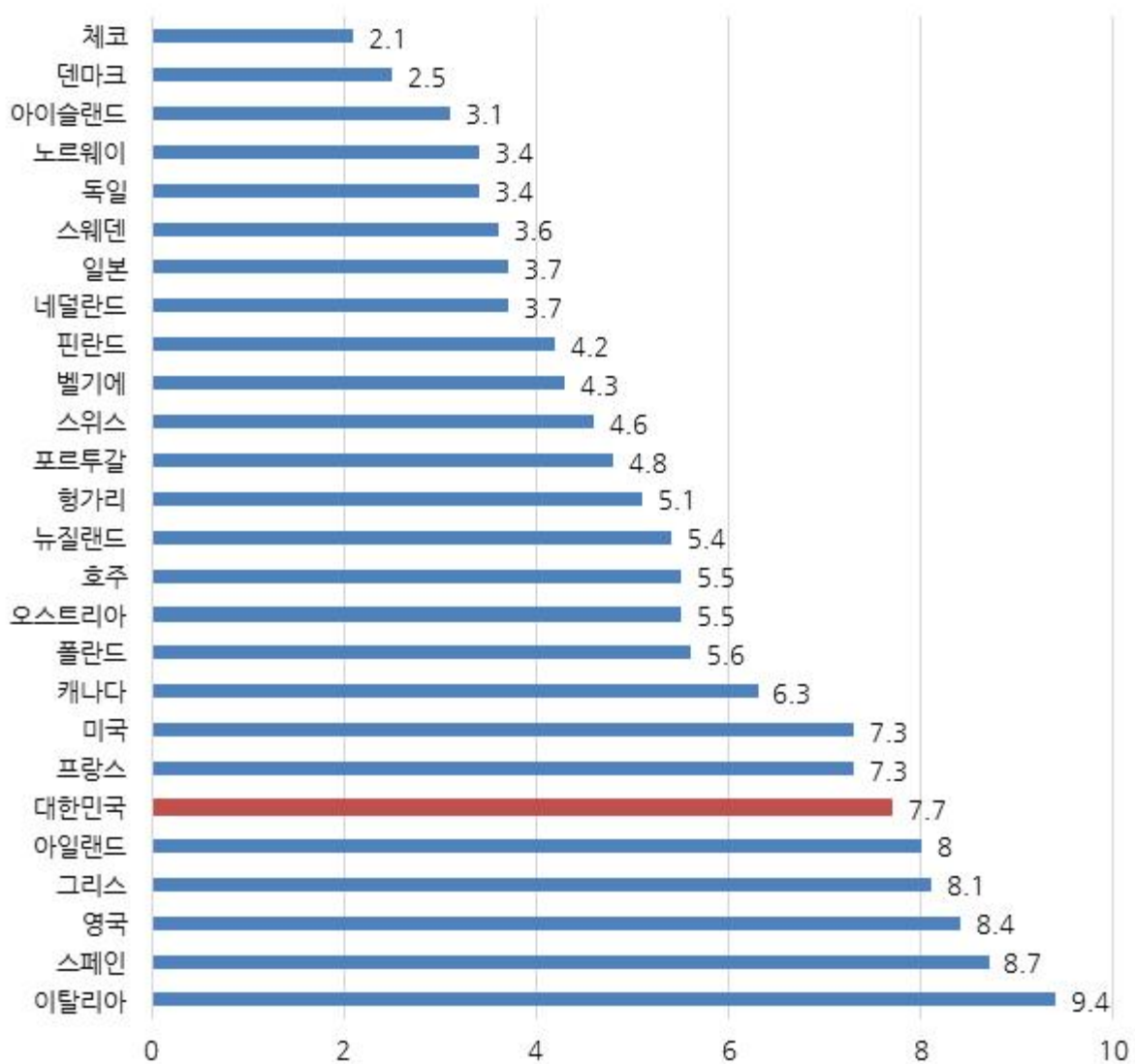
2. 교육참여 실업상태

실업상태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층의 비율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5.45%이며, 한국은 7.7%로 OECD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3-15. 실업상태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청소년 실업	5.45	2.0	2.1	7.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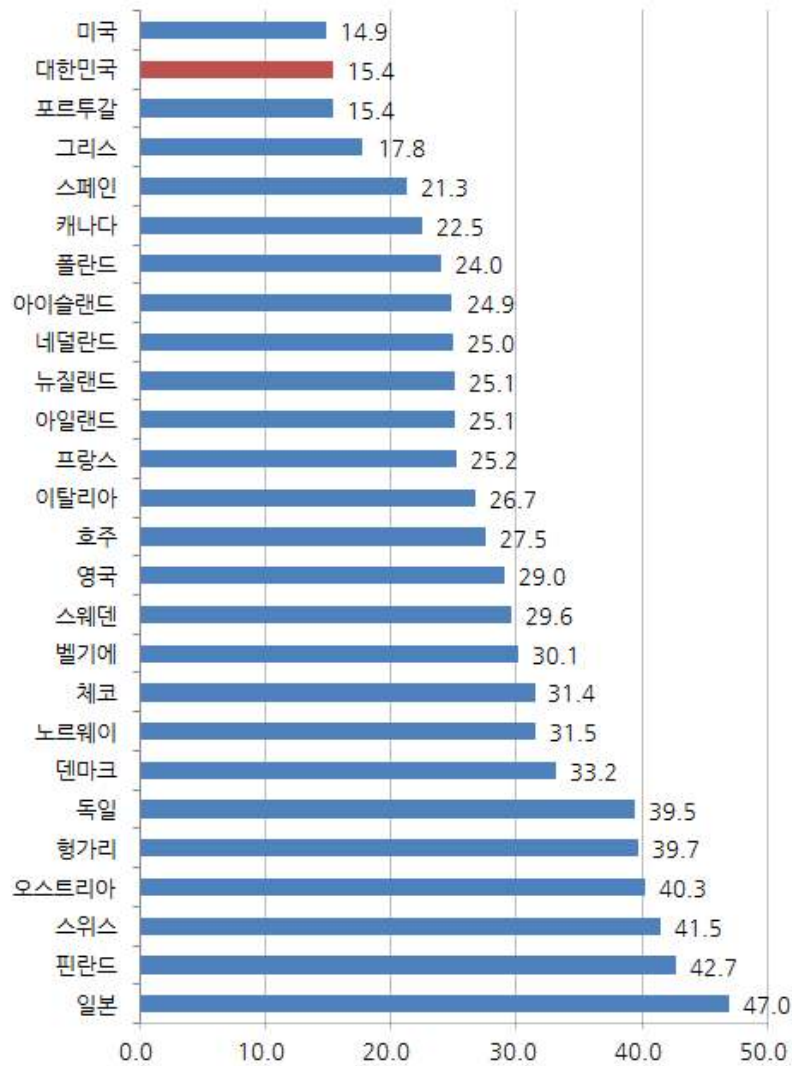
3.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인 28.7%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미숙련 일자리 희망	28.7	8.7	14.9	15.4	47.0

IV. 가족과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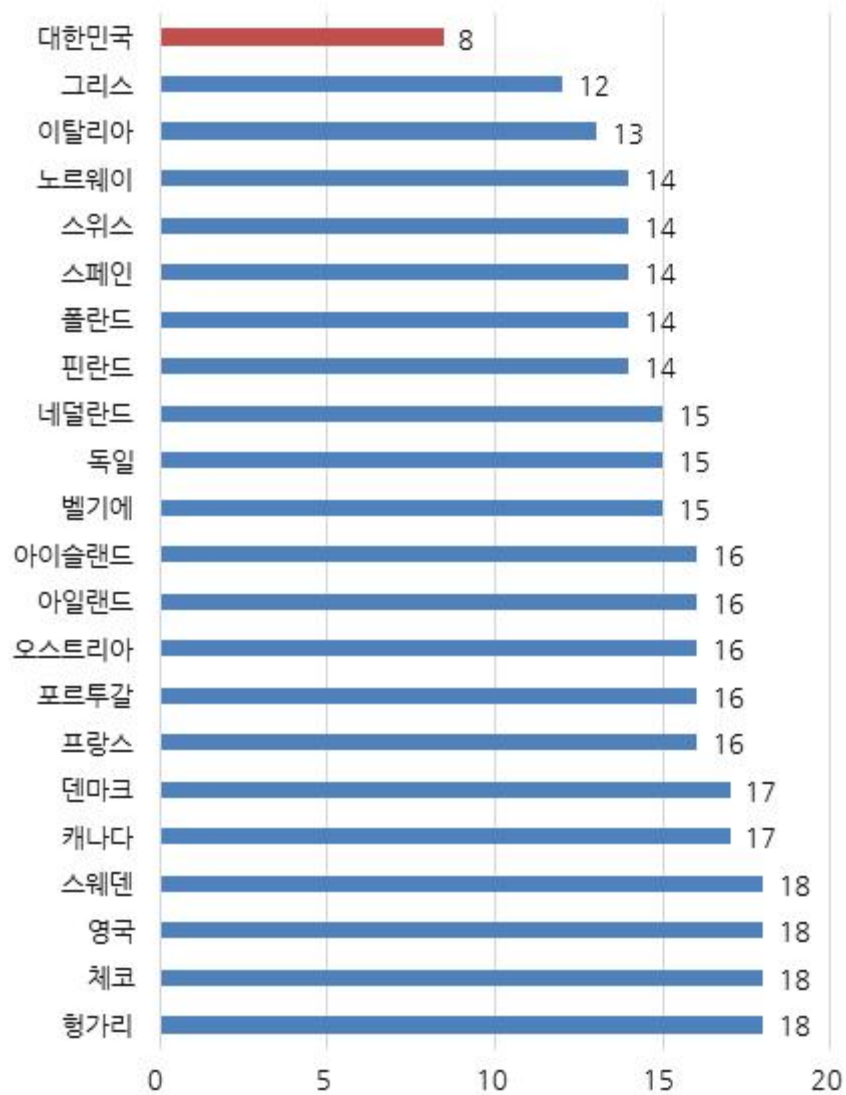
1. 가족구조_홀부모가정

홀부모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홀부모가정 비율은 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7. 홀부모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홀부모가정	15.2	2.2	8	8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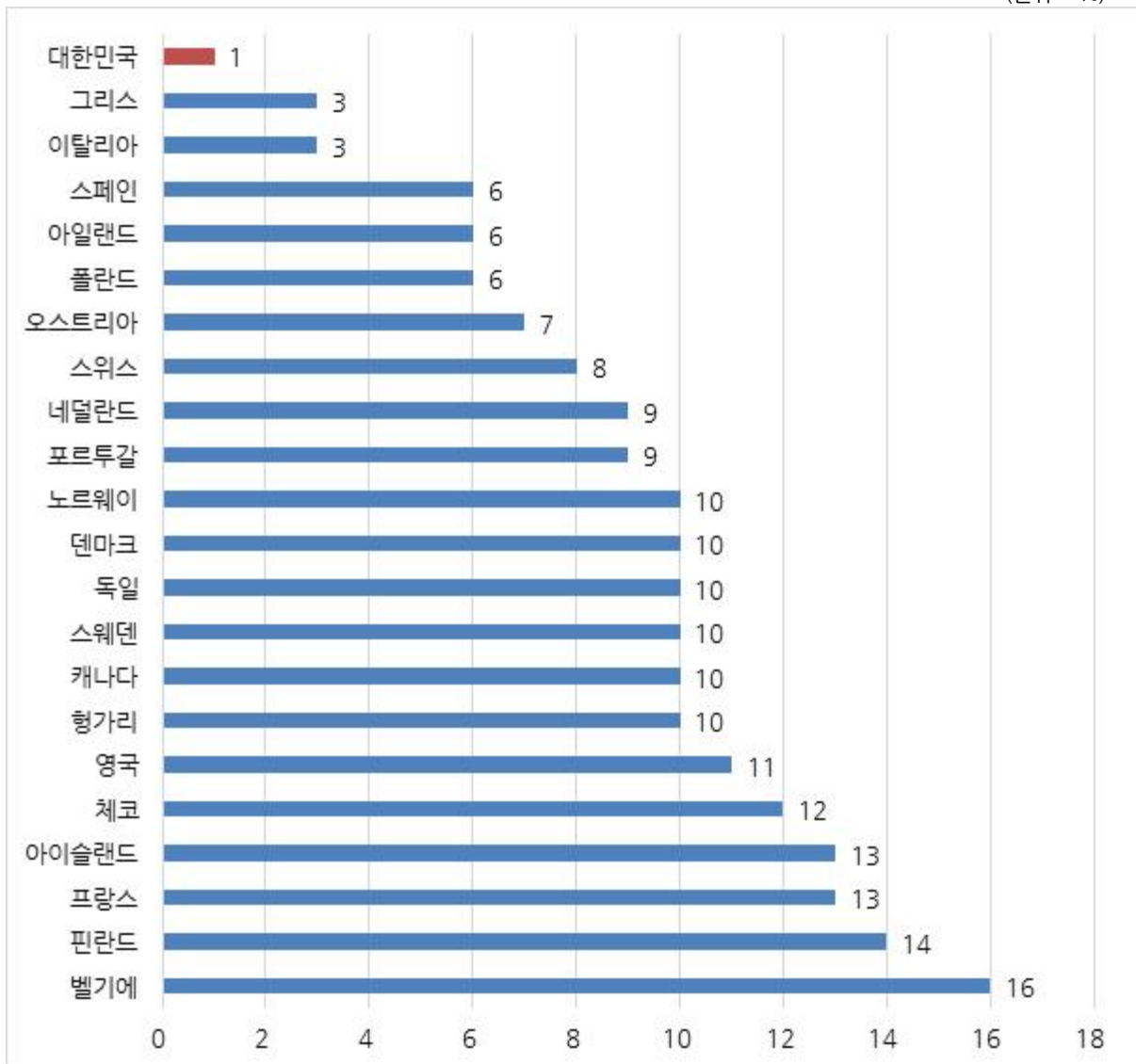
1. 가족구조_의붓가정

의붓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1%에 그친 반면, OECD국가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로 나타났다.

그림3-18. 의붓가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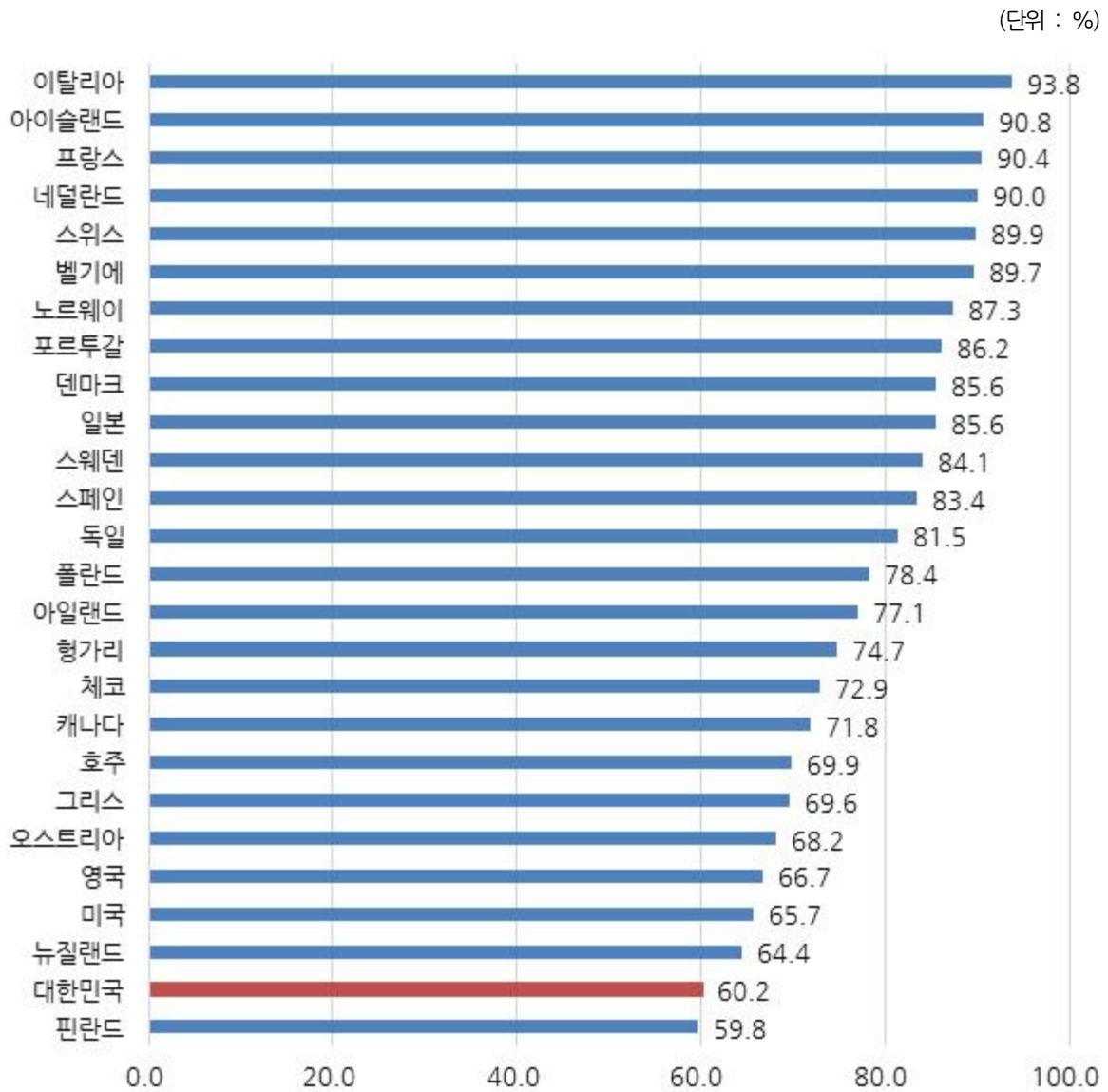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의붓 가정	9.0	3.6	1	1	16

2. 부모관계_함께 식사하기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60.2%로, OECD 국가 중 하위 2위로 나타났다.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부모와 함께 식사	78.3	10.3	93.8	60.2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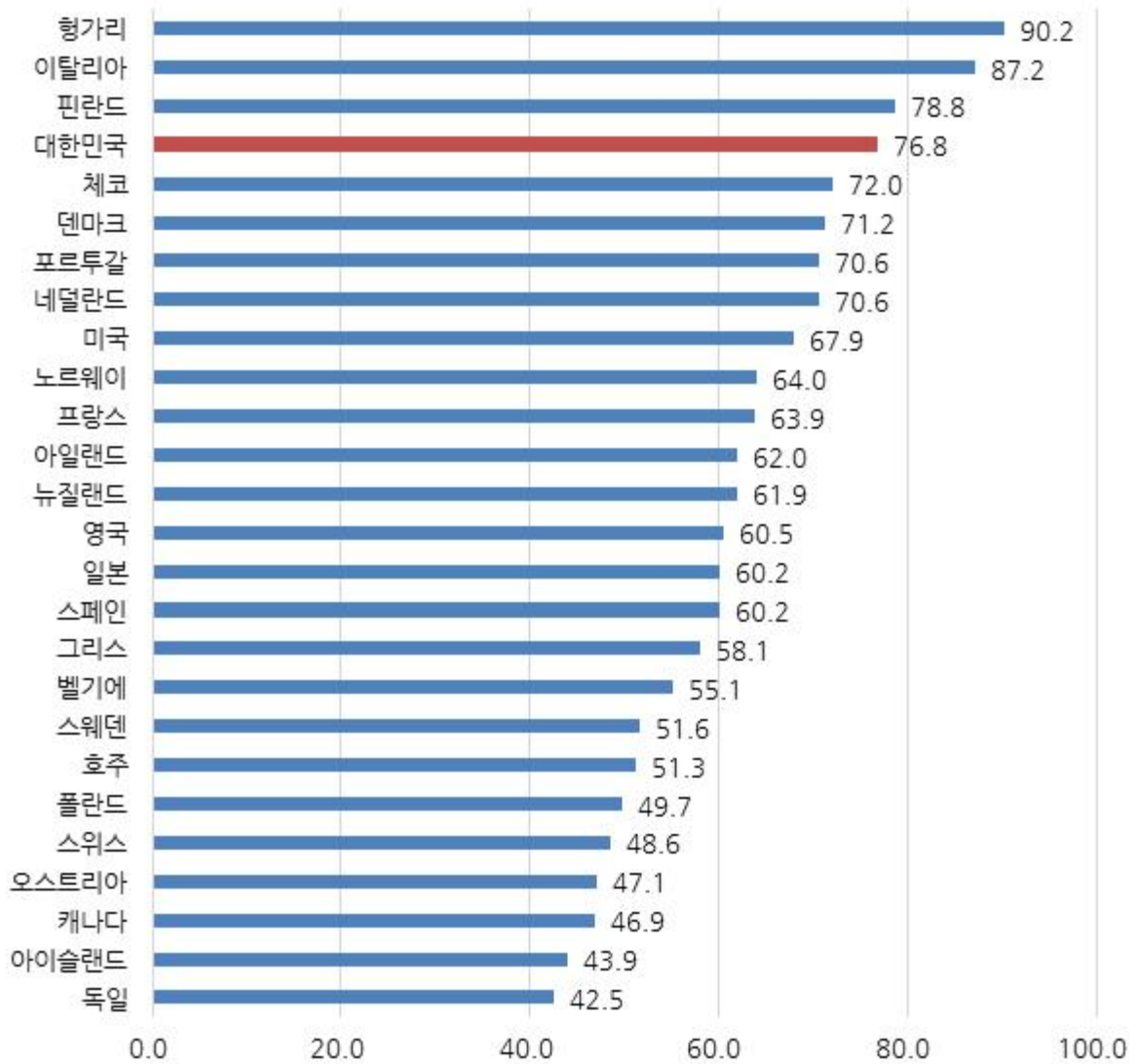
2. 부모관계_함께 대화하기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빈도에서는 OECD 국가 평균이 62%로, 한국은 76.8%로 나타났다.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부모와 함께 대화	62.0	11.3	90.2	76.8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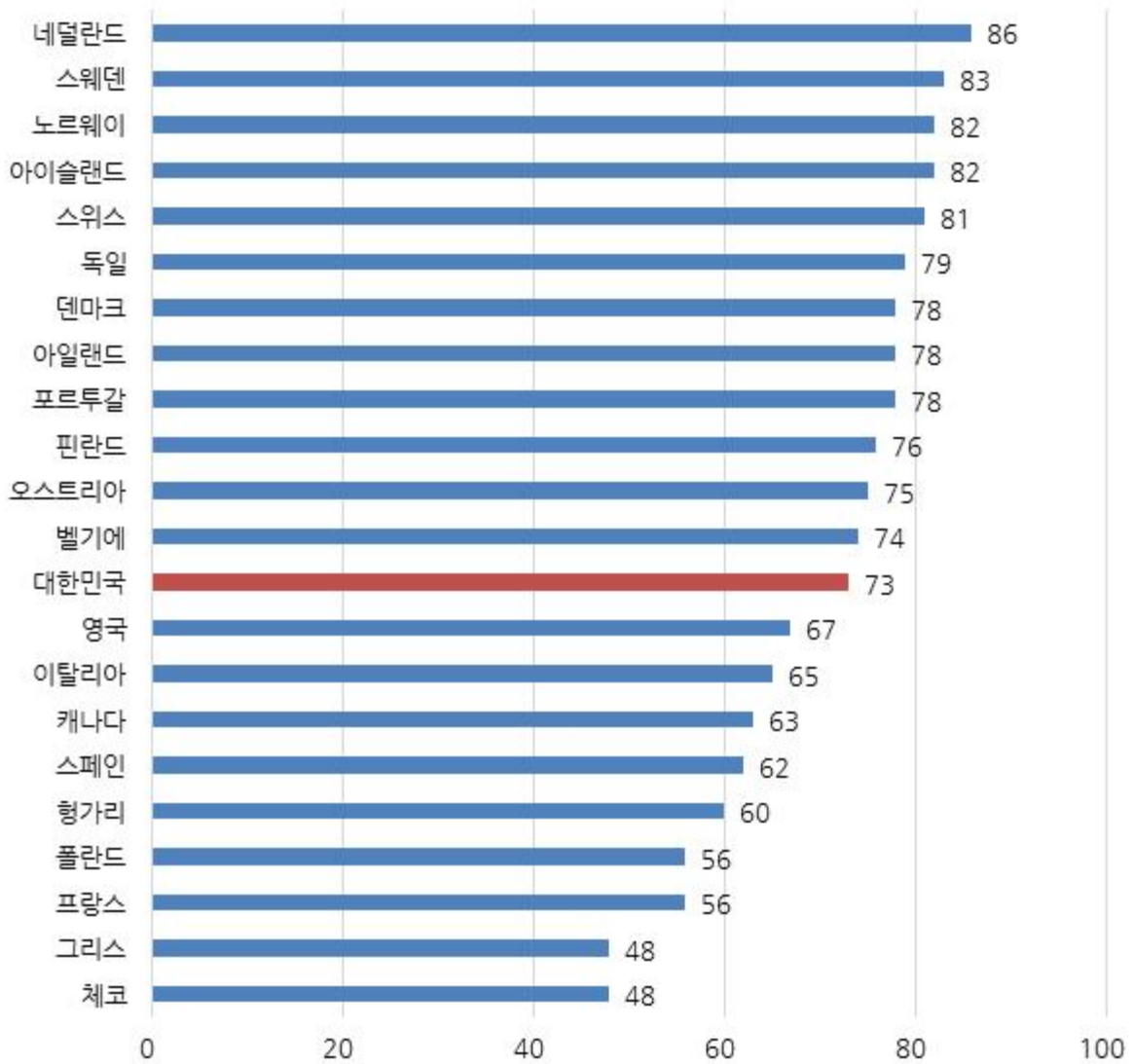
3.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은 한국이 73%로 OECD 국가 평균 70.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급우관계	70.5	11.2	86	73	48

V. 행동과 생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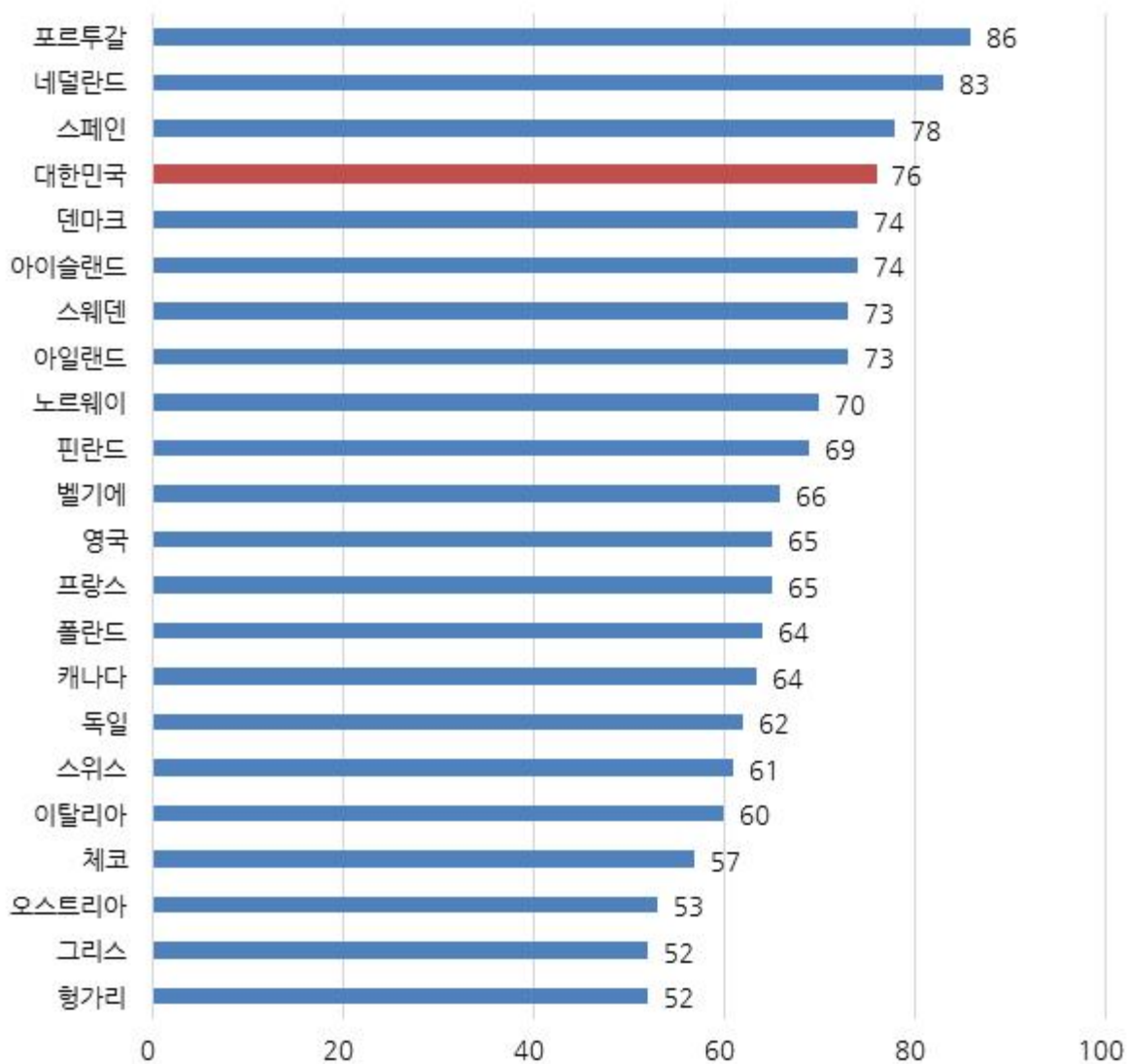
1. 건강행동_아침식사

아침식사 :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11,13, 15세 어린이 비율

- 등교 전 아침식사 비율은 한국이 76%로, OECD 국가 평균 (67.1%)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22. 아침식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아침식사	67.1	9.2	86	76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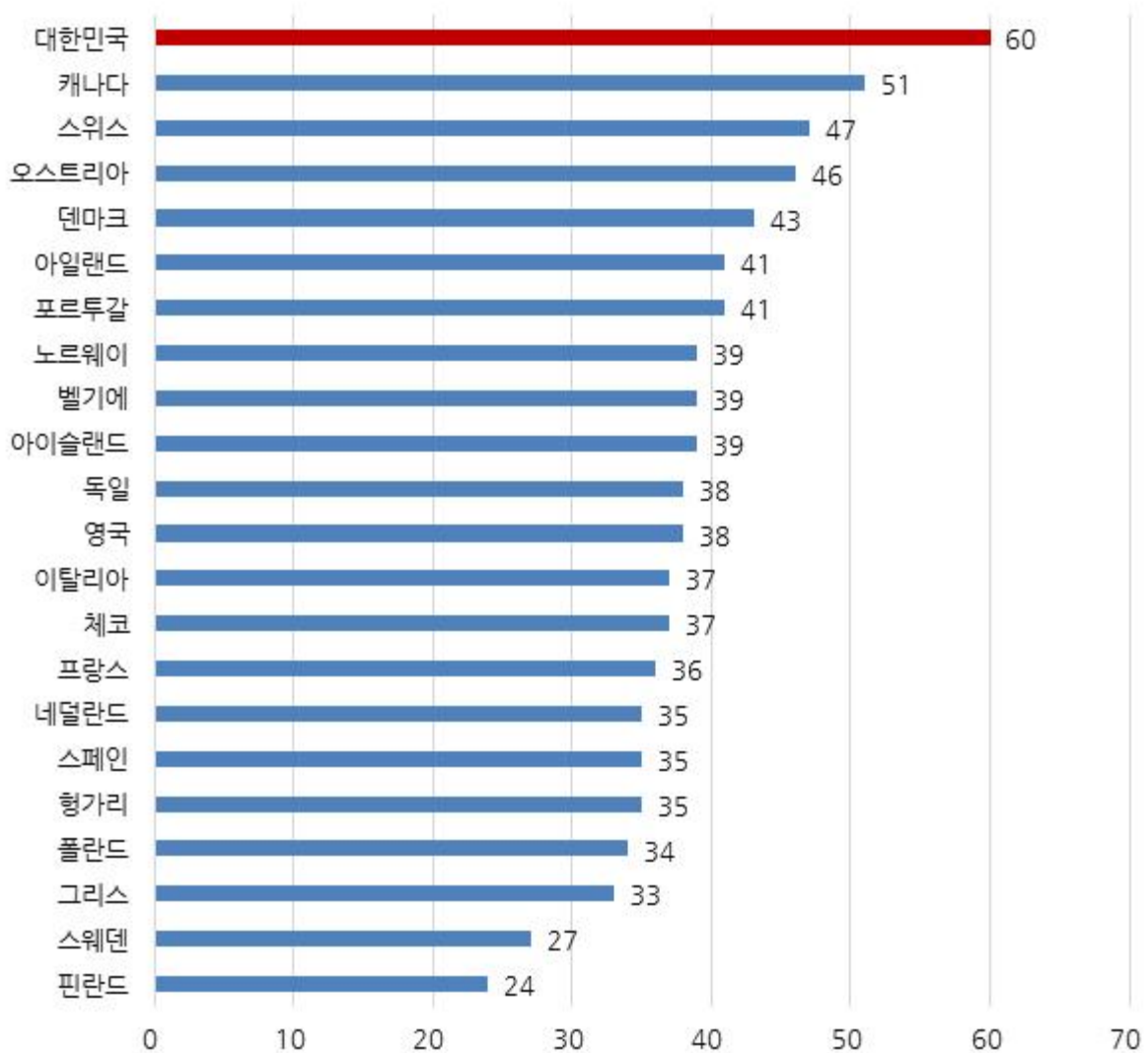
1. 건강행동_과일섭취

과일섭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11, 13, 15세 학생의 비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3. 과일섭취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일 섭취	38.8	7.5	59.2	59.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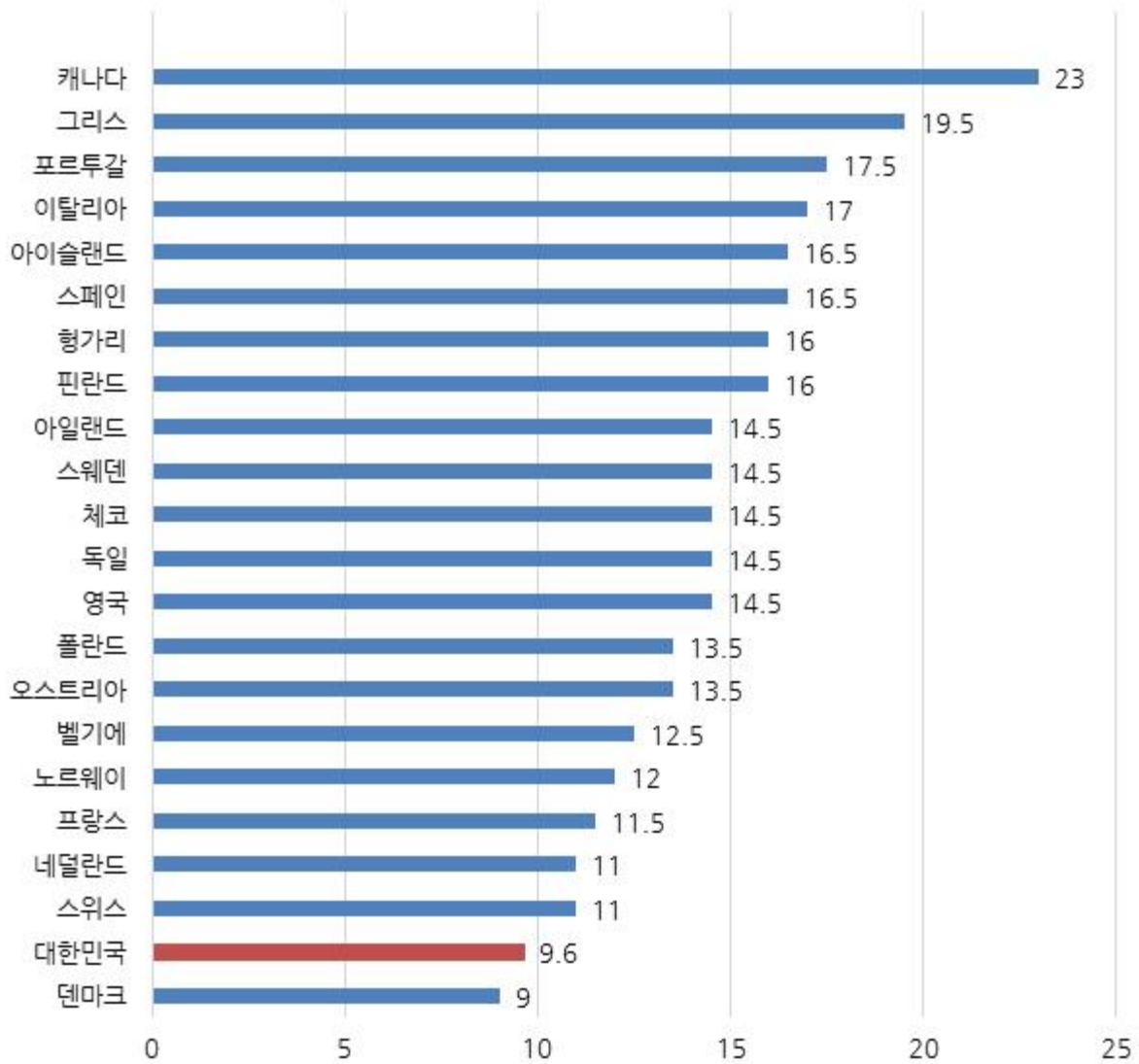
1. 건강행동_과체중

과체중 :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13, 15세 학생의 비율

- 체질량지수 (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율이 한국은 9.6%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3-24. 과체중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체중	14.4	3.2	9.0	9.6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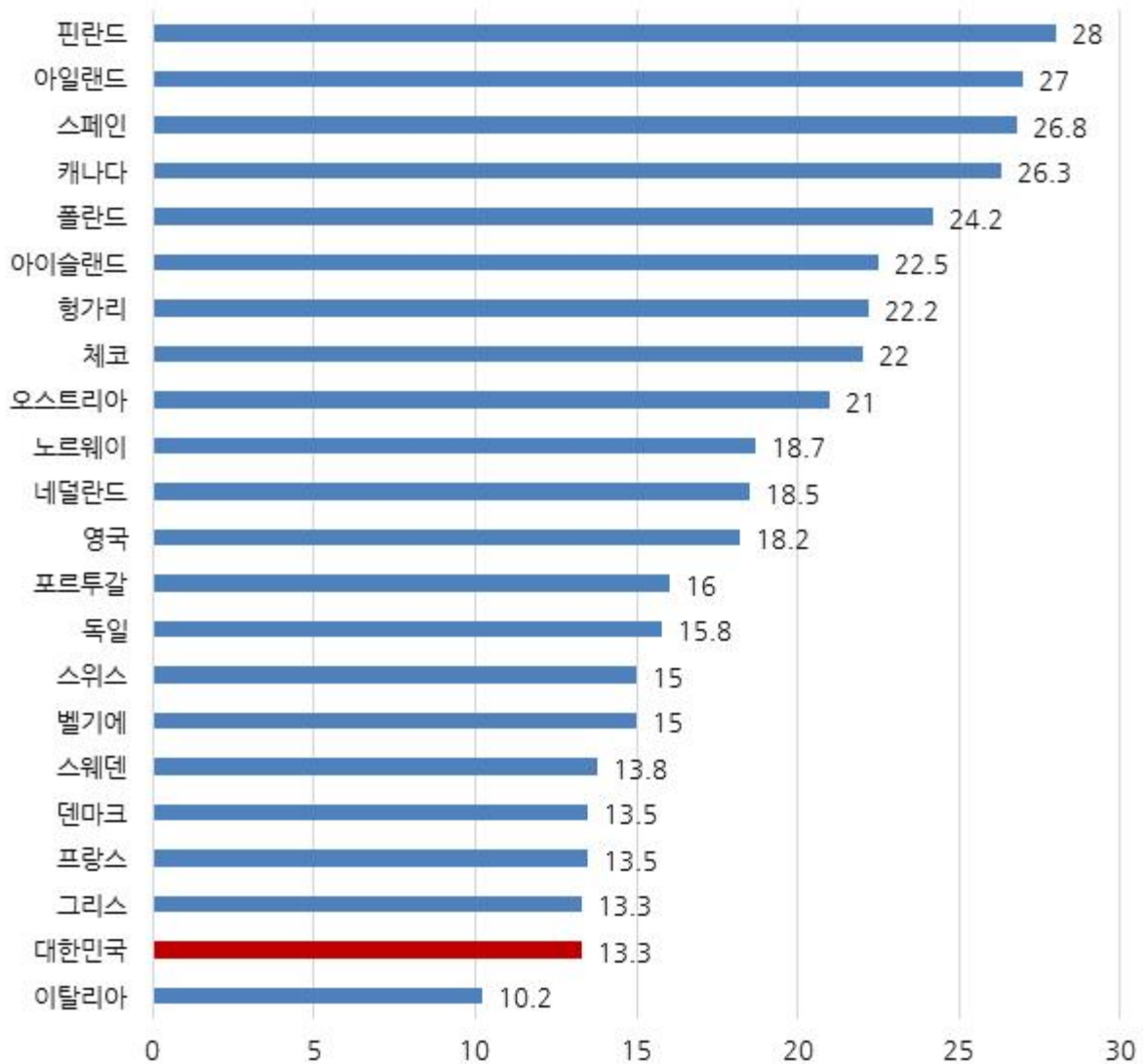
1. 건강행동_운동

운동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가 7일인 비율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가 수가 7일인 비율의 경우, 한국은 1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3-25. 운동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운동	18.4	6.1	28.0	13.3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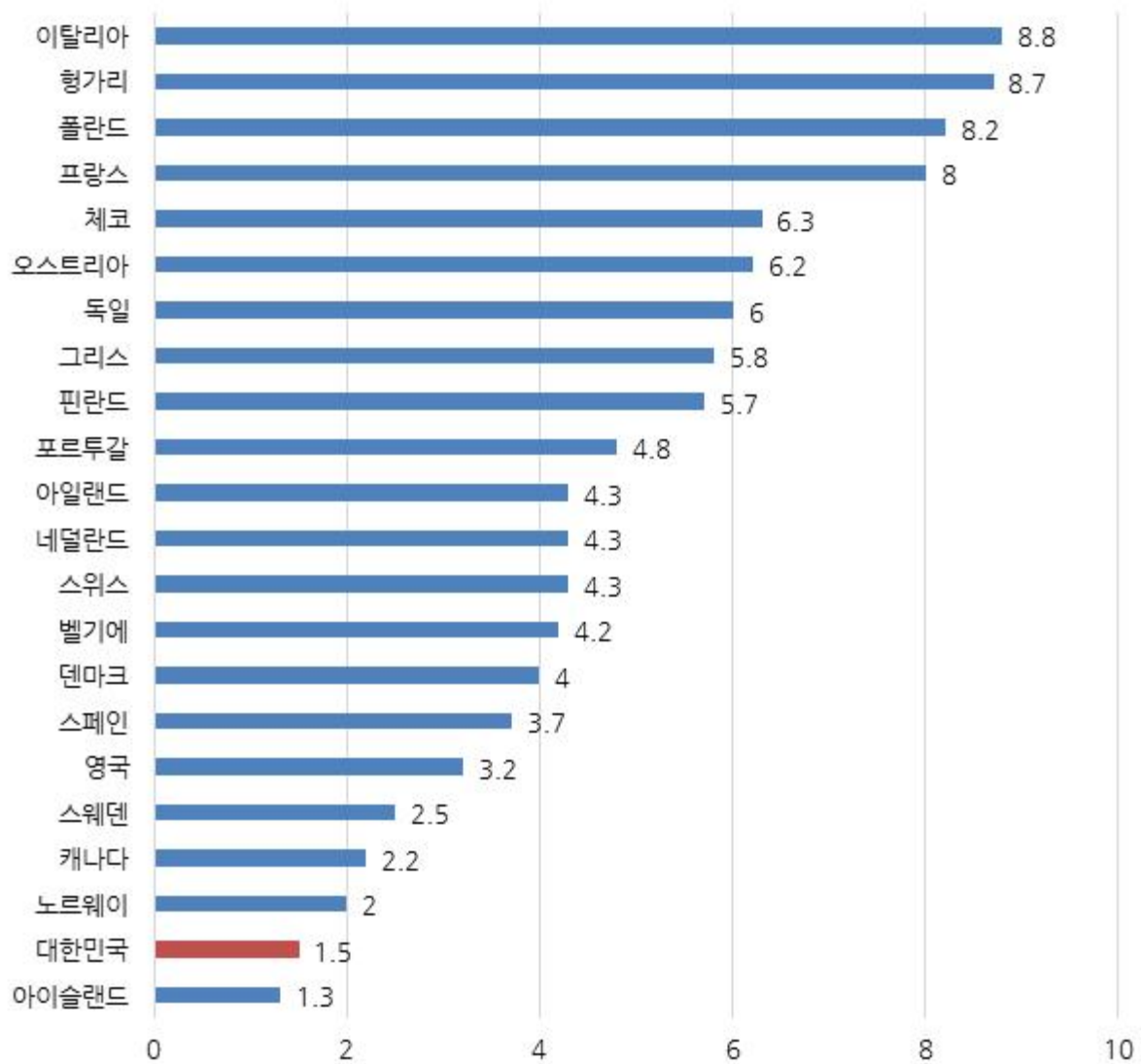
2. 위험행동_흡연

흡연 : 11, 13, 15세의 흡연 비율

- 한국 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1.5%로 OECD 국가 평균(4.8%)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3-26. 흡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흡연	4.8	2.9	1.3	1.4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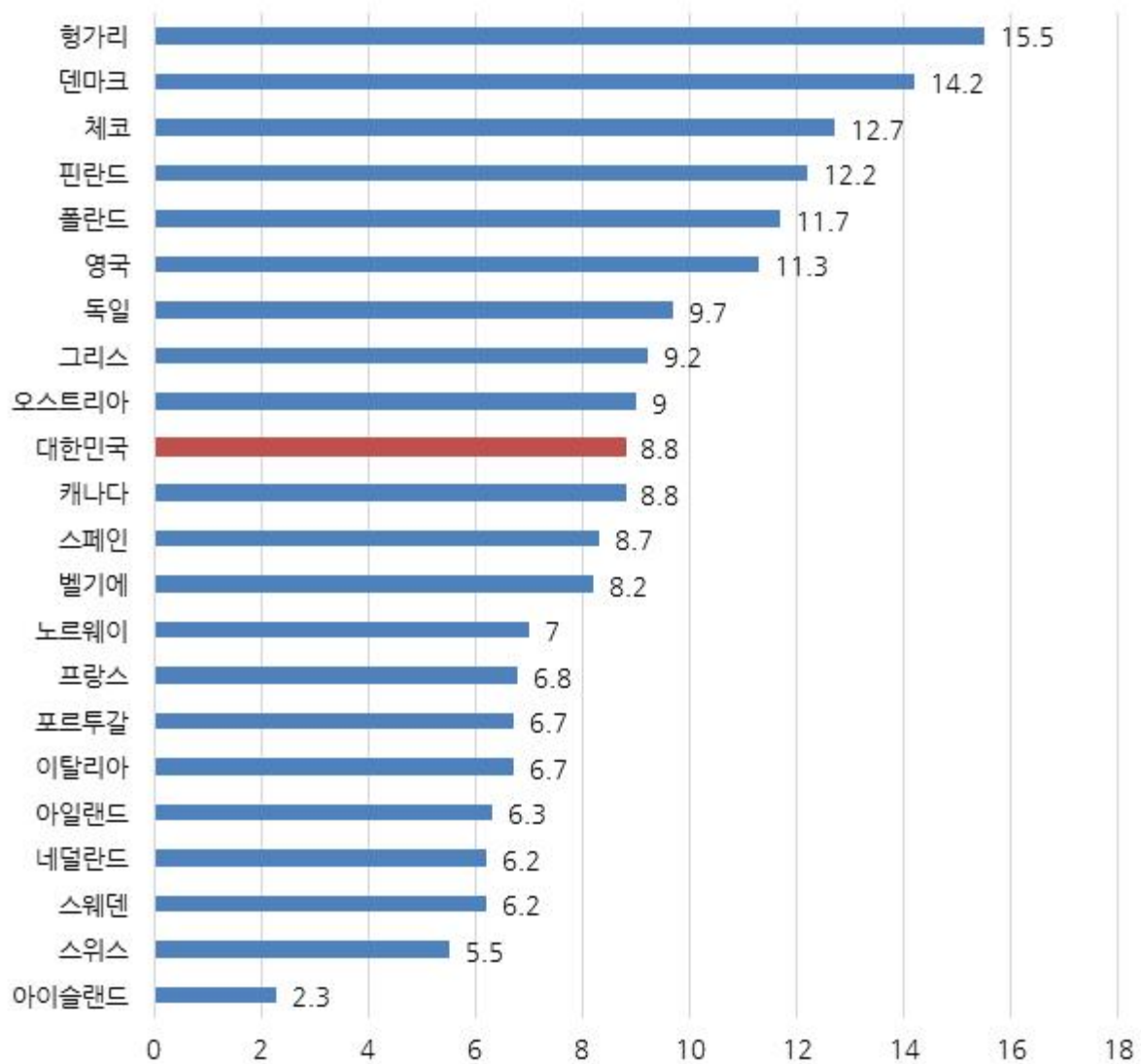
2. 위험행동_음주

음주 : 11, 13, 15세의 음주 비율

- 한국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은 8.8%로, OECD 국가 평균(8.8%)보다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3-27. 음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음주	8.8	3.1	2.3	8.8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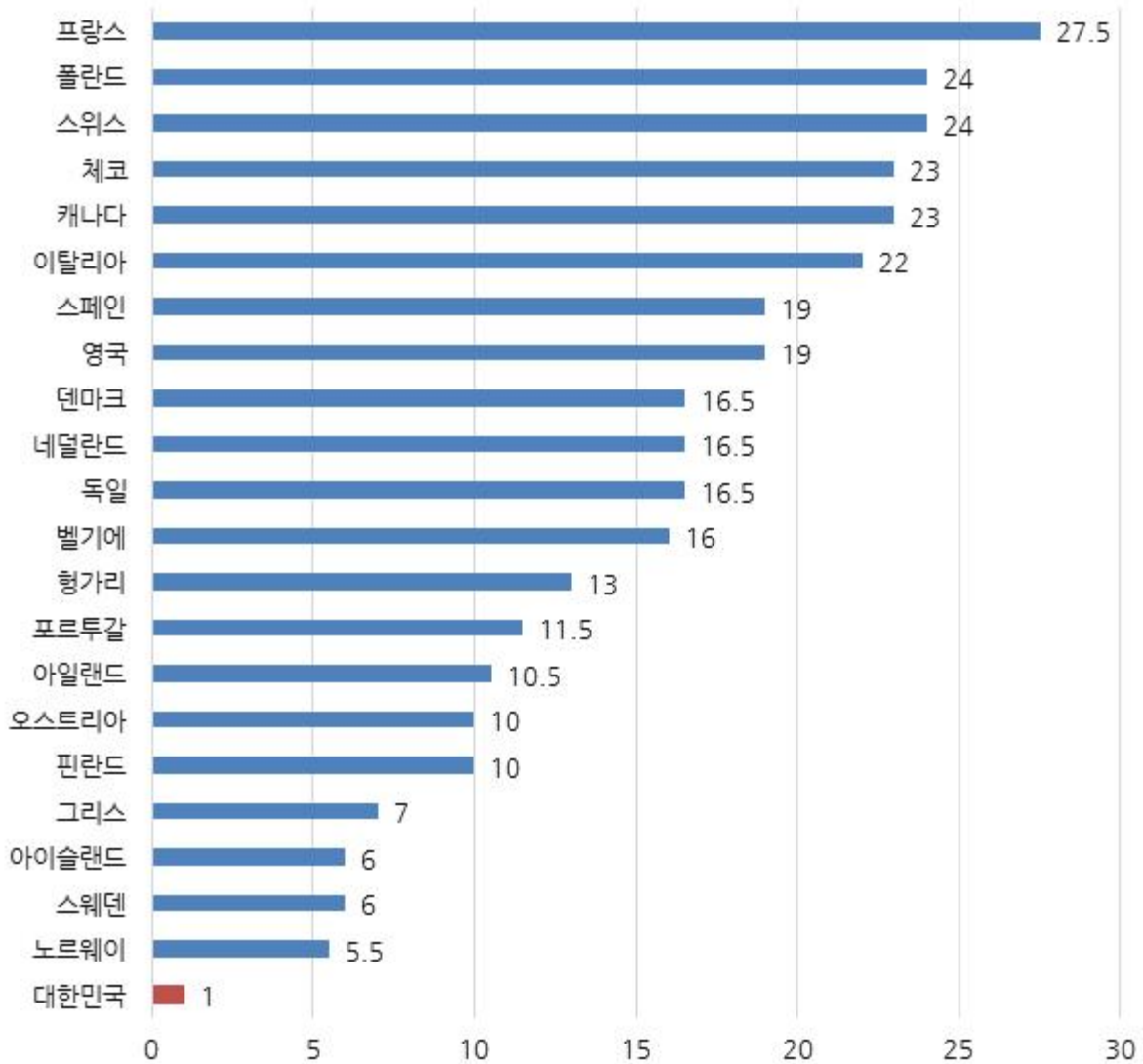
2. 위험행동_마약

마약 : 11, 13, 15세의 마약 사용 비율

- 한국 청소년의 마약복용 비율은 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3-28. 마약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마약	14.9	7.2	1	1	27.5

2. 위험행동_성관계

성관계 : 15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 2016 설문을 통해 측정한 한국 10대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0.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9. 성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성관계	20.7	5.6	0.8	0.8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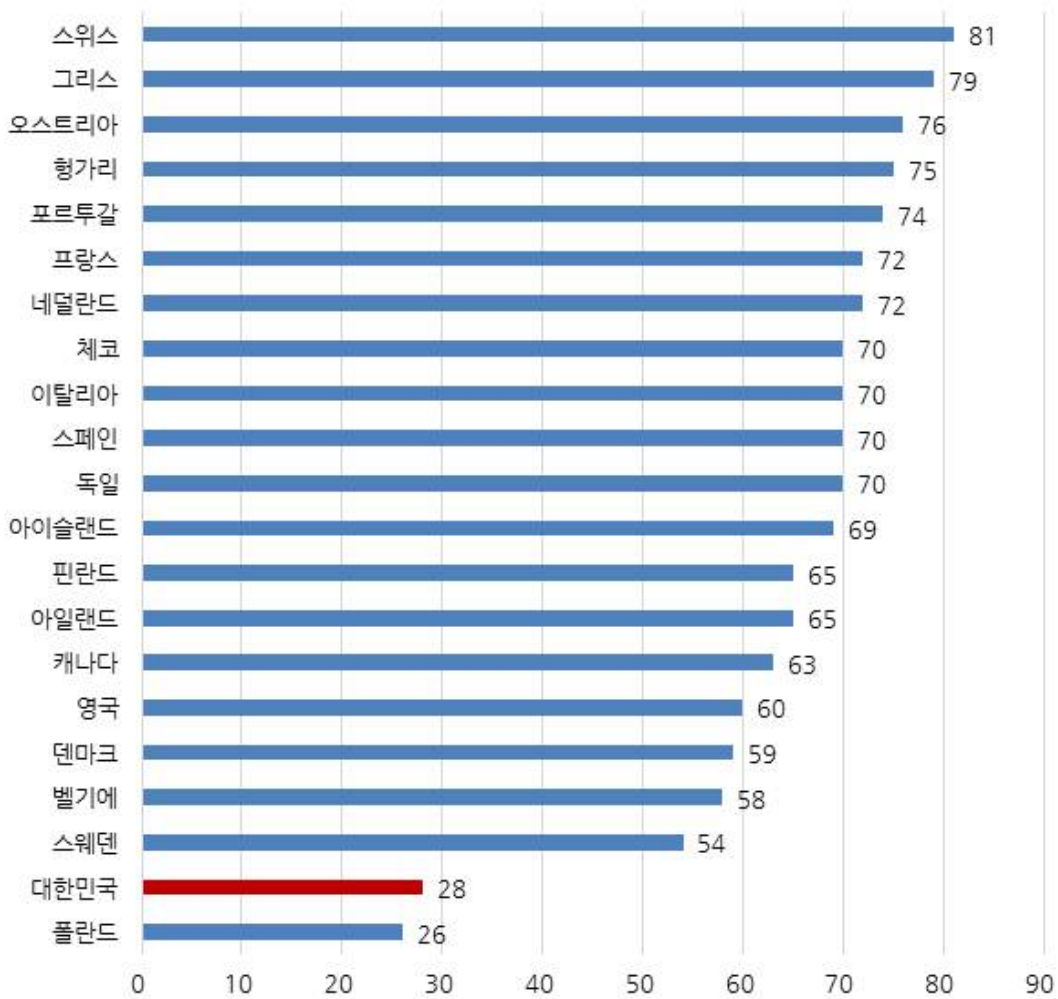
2. 위험행동_콘돔사용

콘돔사용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세의 학생 비율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2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3-30. 콘돔사용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콘돔	64.3	14.8	81	2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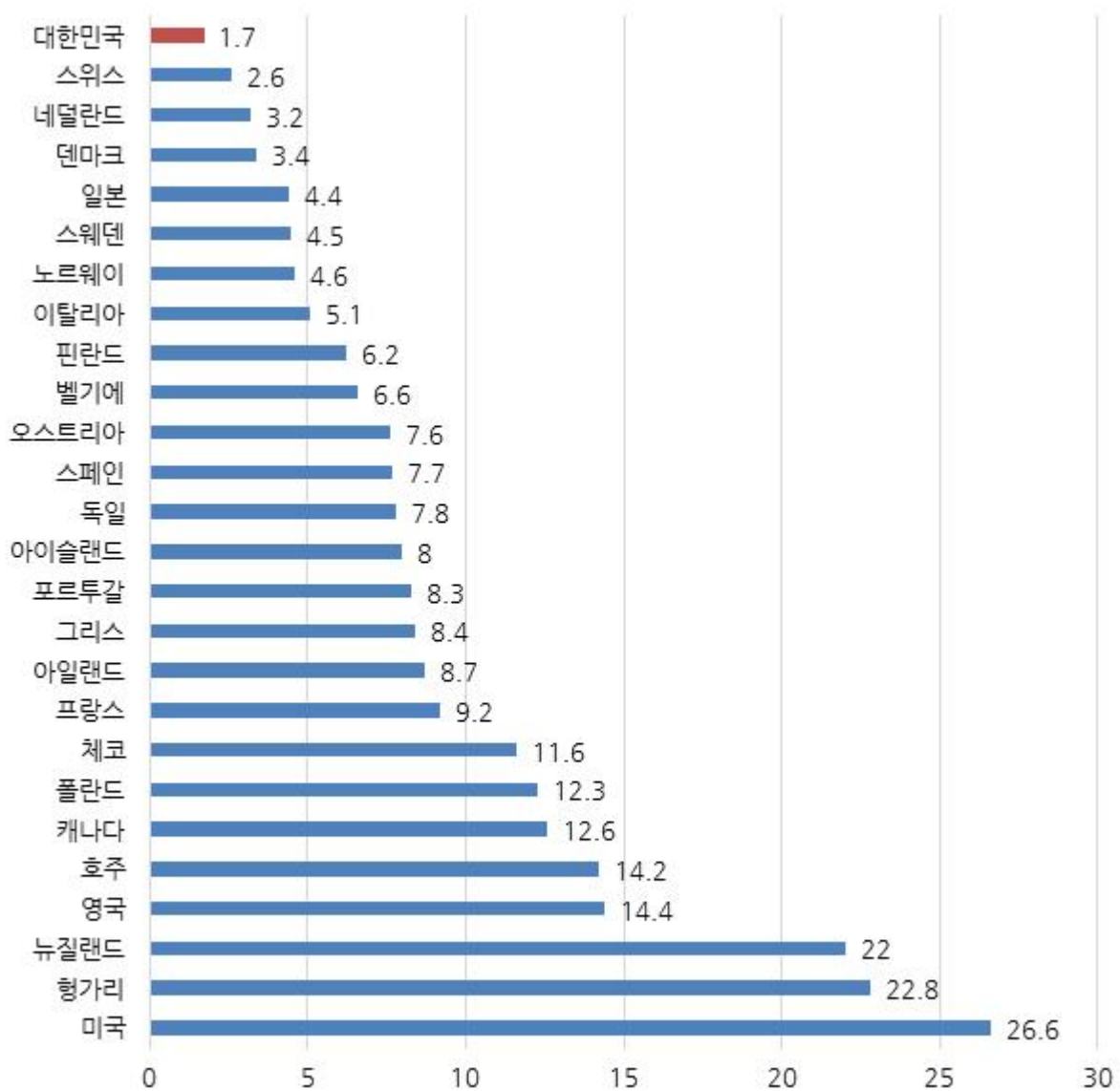
2. 위험행동_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 : 15-19세 여학생의 출산율

- 한국 10대의 출산비율은 1.7%로 OECD 국가 평균(9.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3-31. 임신과 출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십대 출산율	9.4	6.2	1.7	1.7	26.6

Ⅵ.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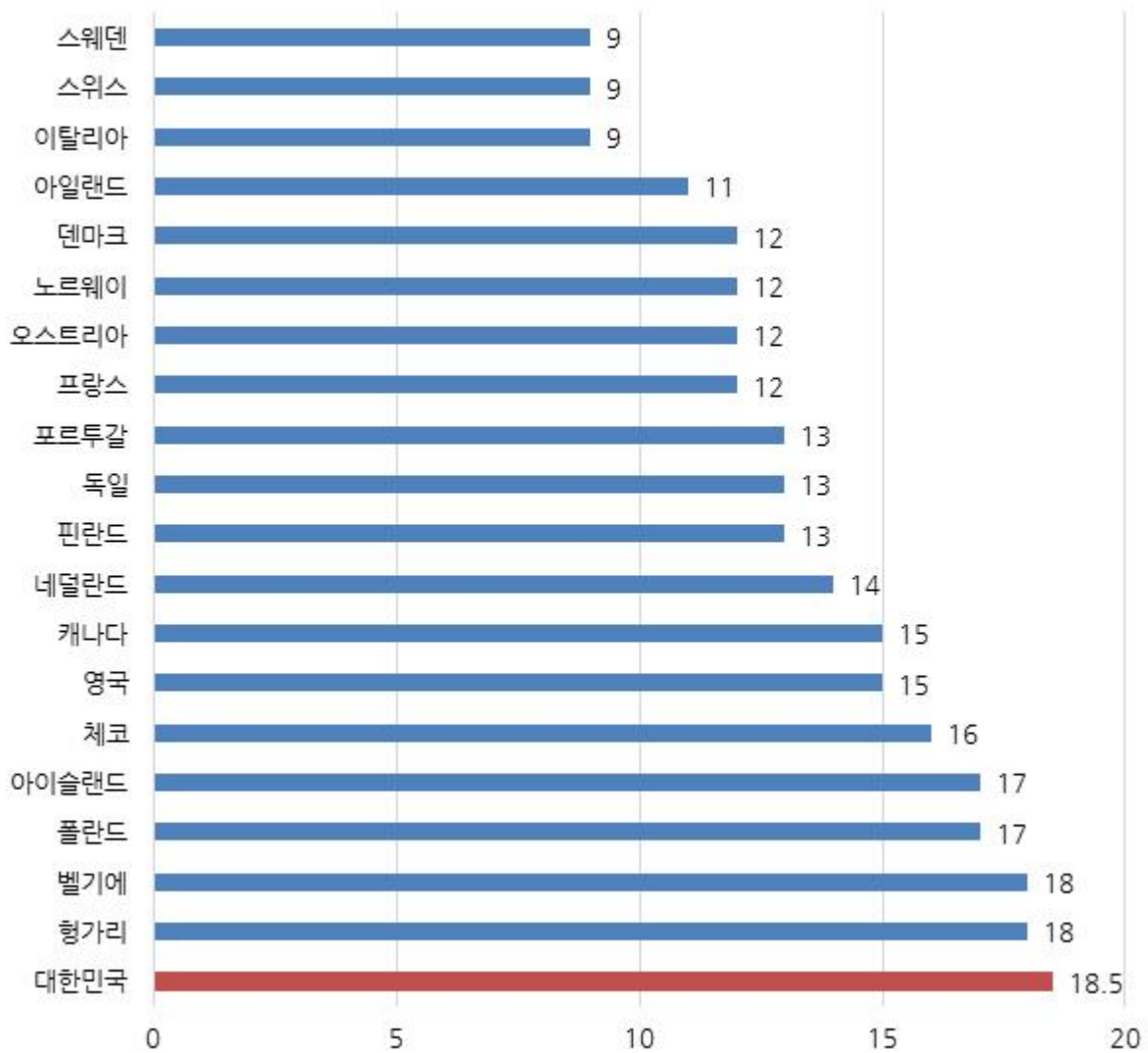
1. 건강

주관적 건강 :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한국이 18.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2. 주관적 건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주관적 건강 좋지 못함	13.1	3.4	9	18.5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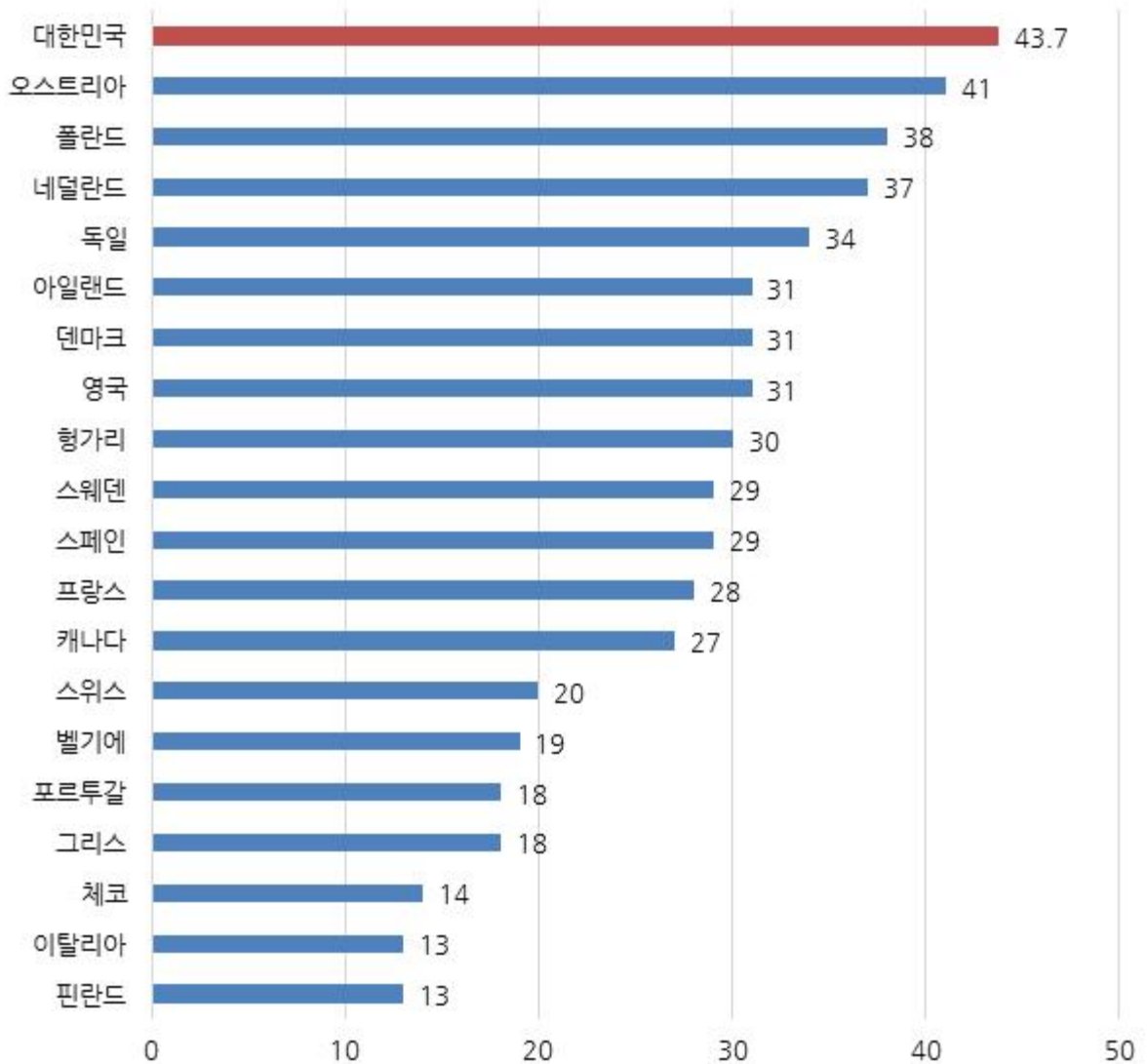
2.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이 43.7%로 OECD 국가 평균(28.9%)보다 높았다.

그림3-33.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학교 만족	28.9	10.0	43.7	43.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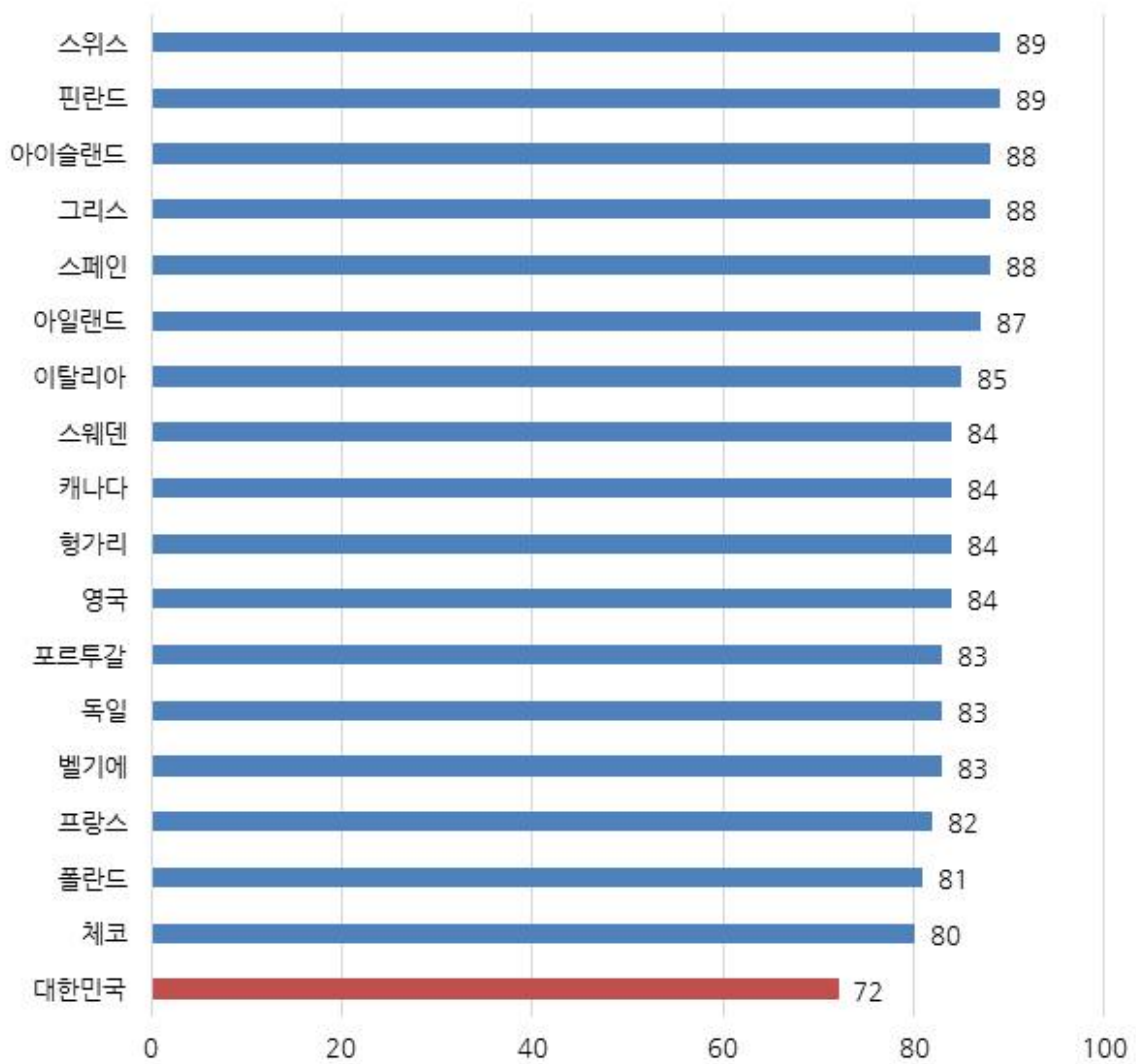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삶의 만족

삶의 만족 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7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그림3-34. 삶의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삶의 만족	85.1	4.2	89	71.9	71.9

3. 개인 행복_소속감

소속감 :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이 14.26%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낮았다.

그림3-35. 소속감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소속감 못느낌	26.6	9.1	12.8	14.26	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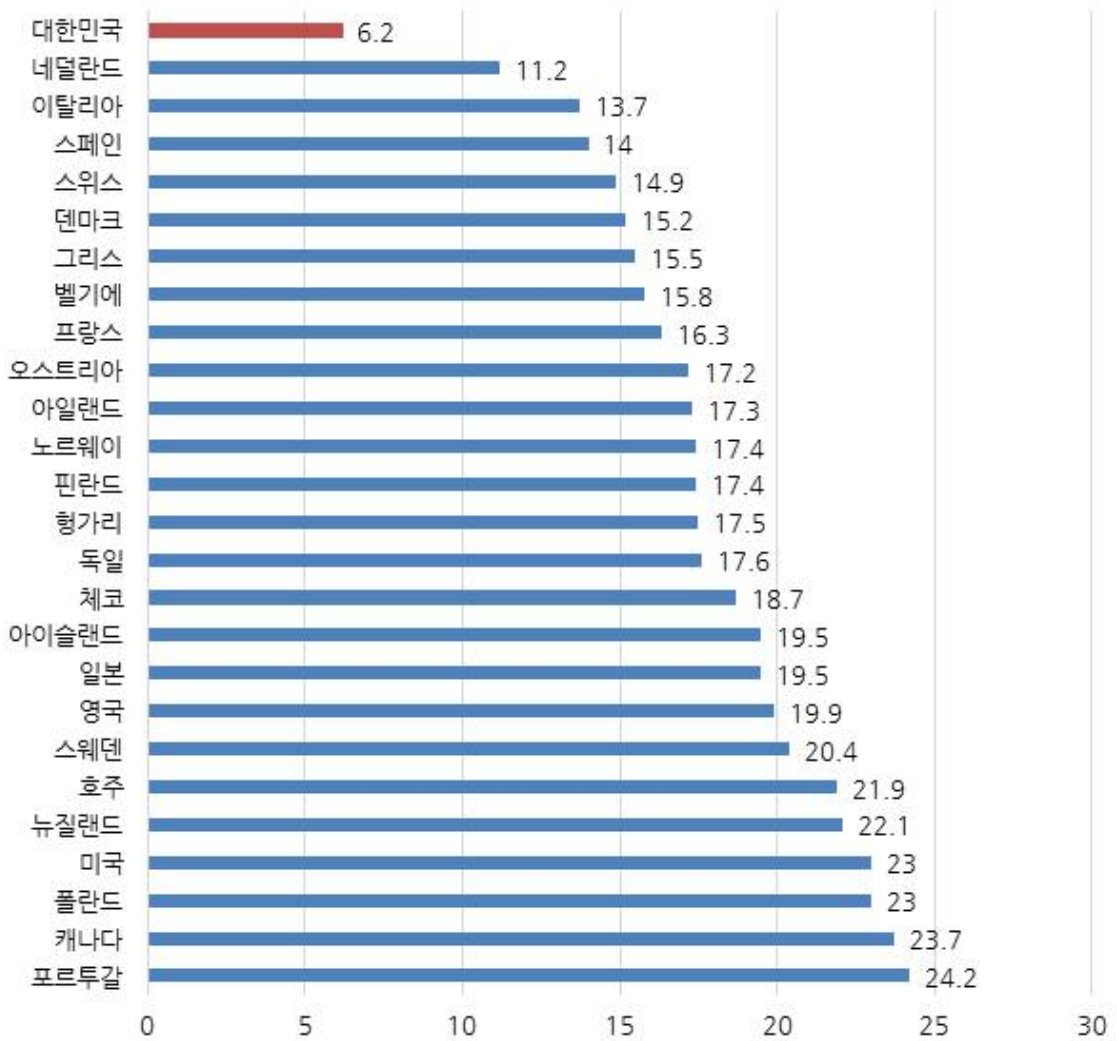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어울림

어울림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한국은 6.19%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36. 어울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주변상황 적응 못함	17.8	4.0	6.19	6.19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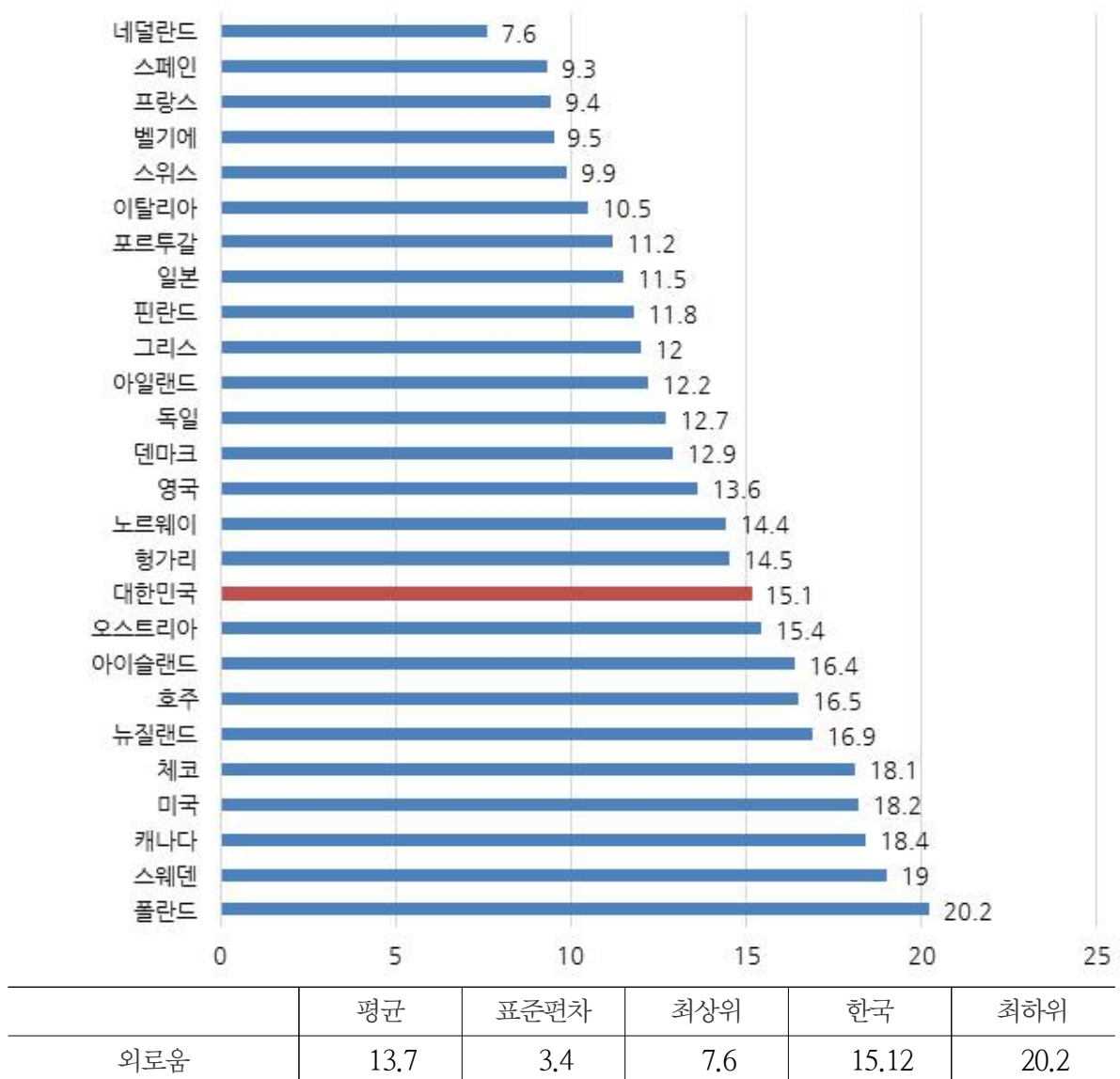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외로움

외로움 : : ‘다소’, 혹은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5.12%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3-38. 외로움

(단위 : %)



제4장 물질 · 개인 · 관계적 가치와 주관적 행복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를 결코 억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뺏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나는 인물이 못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요소를 꼽은 학생이 가치적, 물질적 요소를 꼽은 학생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관계적 요소의 하위 항목은 ‘동성친구’, ‘이성친구’, ‘화목한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가치적 요소에는 ‘건강’, ‘자유’, ‘종교’, ‘시간’ 등이 포함되며, 물질적 요소에는 ‘돈’, ‘성적 향상’, ‘자격증’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행복점수(이하 행복점수)는 ‘주관적 건강’, ‘학교 생활 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을 느끼지 않음’ 항목들에 대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다.

표4-1. 2009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명)

2009년		주관적 행복점수(0~5점)		
		3점 이하	3점 초과 ~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46)	479 (9.09%)	1,042 (19.8%)	1,521 (26.7%)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3.59)	377 (7.2%)	1,028 (19.5%)	1,405 (28.9%)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3.82)	423 (8.0%)	1,918 (36.4%)	2,341 (44.5%)
	합계	1,279 (24.3%)	3,988 (75.7%)	5,267 (100%)

* Pearson chi2(2) = 97.1249, p = 0.000

표4-2. 2018년 가치유형과 주관적 행복점수 분포

(단위 : 명)

2018년		주관적 행복점수(0~5점)		
		3점 이하	3점 초과 5점 이하	합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물질적 가치 (평균점수: 3.71)	455 (6.4%)	1,542 (21.7%)	2,219 (31.3%)
	개인적 가치 (평균점수: 4.03)	274 (3.9%)	1,945 (27.4%)	1,997 (28.1%)
	관계적 가치 (평균점수: 4.09)	278 (3.9%)	2,604 (36.7%)	2,882 (40.6%)
	합계	1,007 (14.2%)	6,091 (85.8%)	7,098 (100%)

* Pearson chi2(2) = 176.2172, p = 0.000 *응답 대상자 중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기타'라고 응답한 183명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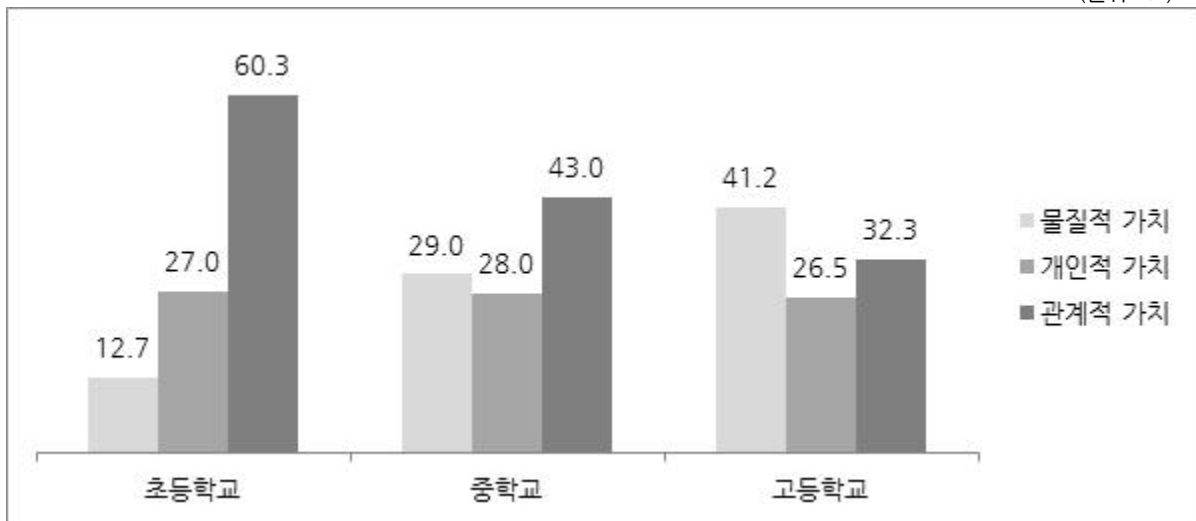
-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이 개인적, 물질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높았다. 관계적 가치의 하위 항목은 ‘동성친구’, ‘이성친구’, ‘화목한 가족’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요소에는 ‘건강’, ‘자유’, ‘종교’, ‘시간’ 등이 포함되고, 물질적 가치에는 ‘돈’, ‘성적 향상’, ‘자격증’이 포함되었다. 2009년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믿는 학생들의 비율이 4%정도 늘었으며, 반면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들의 비율은 4%정도 줄어들었다

Ⅱ. 2009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유형 분석

- 2009년 교급 별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가치 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물질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는 서로 반대되는 증감양상을 보였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물질적 가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했다.

그림4-1. 2009년 교급 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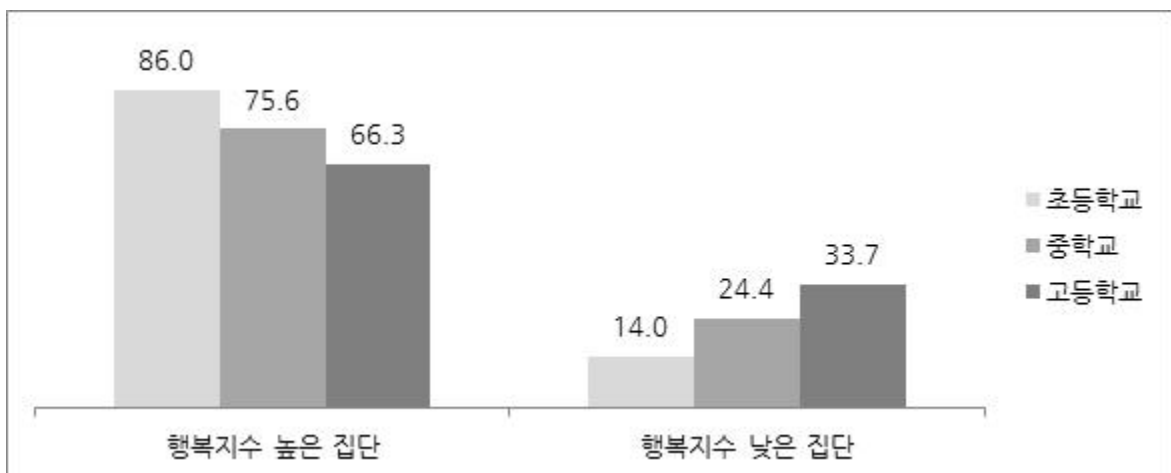
(단위: %)



- 2009년의 교급 별 행복점수 비교이다. 주관적 행복의 하위 구성요소 평균값을 기준으로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행복점수가 낮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약 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6%, 고등학교 66%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4-2. 2009년 교급 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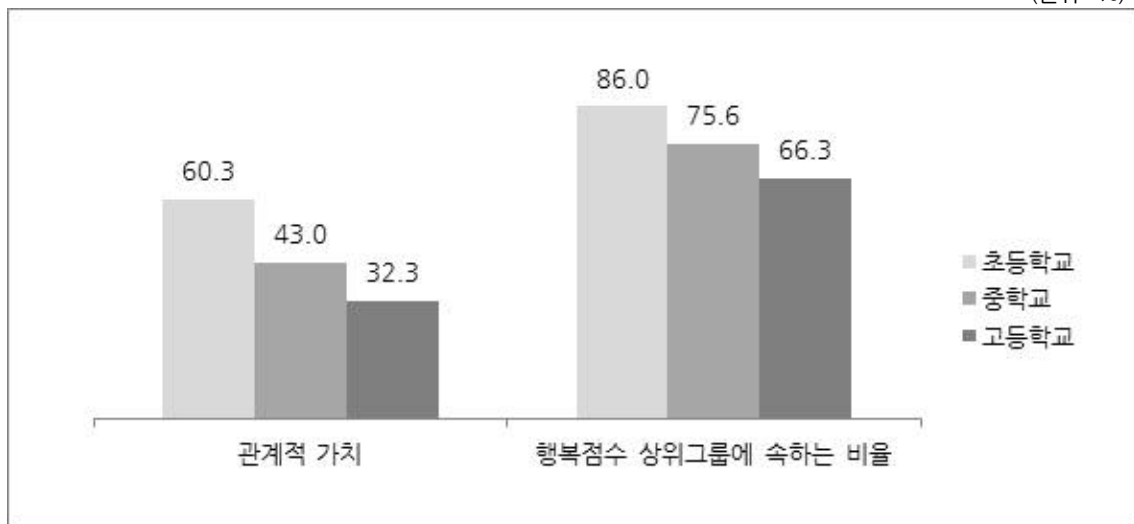
(단위: %)



-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의 비율과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초등학생 중 관계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 중학생은 43%, 고등학생은 32%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관계적 가치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86%, 중학생이 76%, 고등학생이 66%로, 행복점수 역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졌다.

그림4-3. 2009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응답 비율과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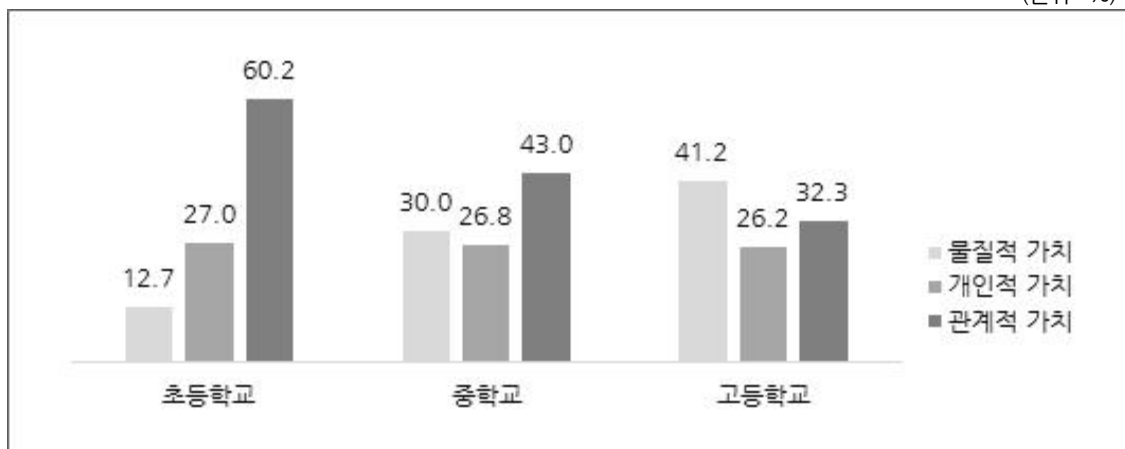
(단위: %)



- 교급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가치의 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관계적 가치, 개인적 가치, 물질적 가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고등학생들은 물질적 가치가 1위를 차지했고 관계적 가치, 개인적 가치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4-4. 2009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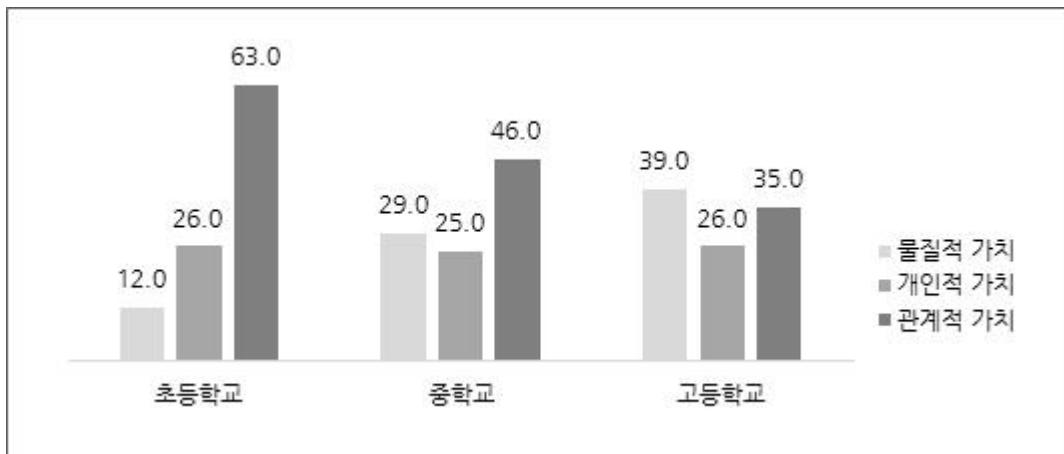
(단위: %)



-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이 생각하는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교급별로 살펴 보면, 행복점수가 높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행복을 위해 관계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관계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개인적 가치나 물질적 가치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행복점수가 높은 고등학생들은 물질적 가치, 관계적 가치, 개인적 가치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2순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4-5. 2009년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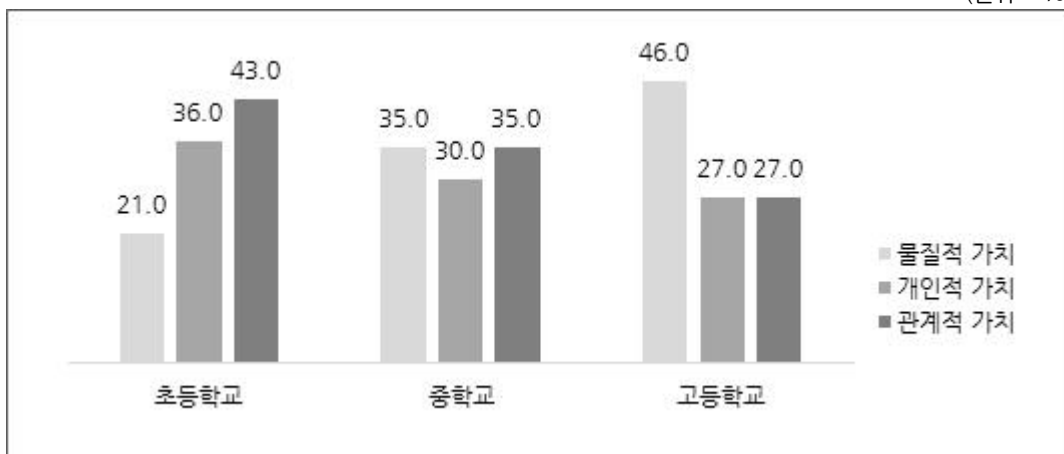
(단위 : %)



- 행복점수가 낮은 집단의 경우, 행복한 집단에 비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관계적 가치 응답 비율이 1순위였으나, 2위를 기록한 개인적 가치와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물질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가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의 중학생 응답과 비교하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물질적 가치 응답비율이 다른 두 가치와 각 20%의 격차를 두고 1순위로 꼽혔다.

그림4-6. 2009년 행복점수가 낮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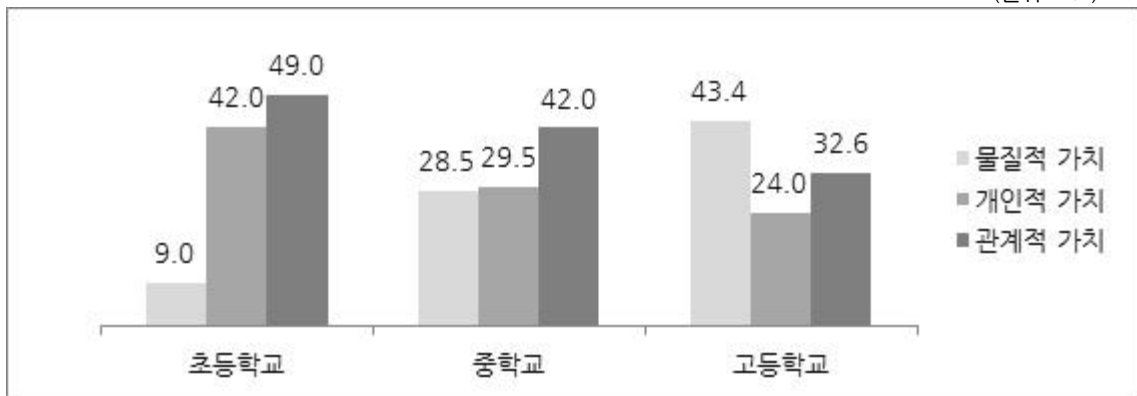


Ⅲ. 2018년 행복에 필요한 가치유형 분석

- 2018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는 관계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개인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고등학생은 물질적 가치가 다른 가치를 누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관계적 가치, 개인적 가치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가치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는 서로 반대되는 증감양상을 보였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든 반면,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늘어났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에는 초등학교에서 개인적 가치 응답 비율이 27%에서 42%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4-7. 2018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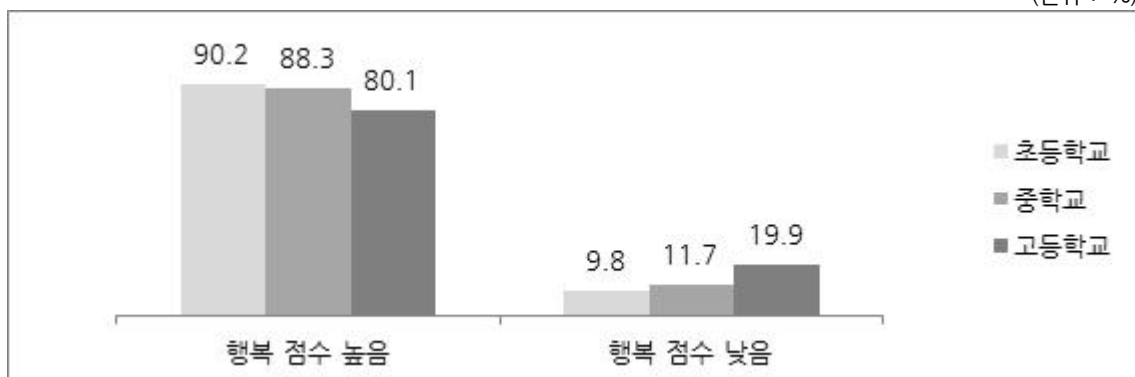
(단위 : %)



- 2018년의 교급별 행복점수 비교이다. 행복점수가 높은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09년과 동일한 하락 추세이다. 한편 2009년에 비해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주관적 행복점수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모든 교급에서 더 높았다.

그림4-8. 2018년 교급별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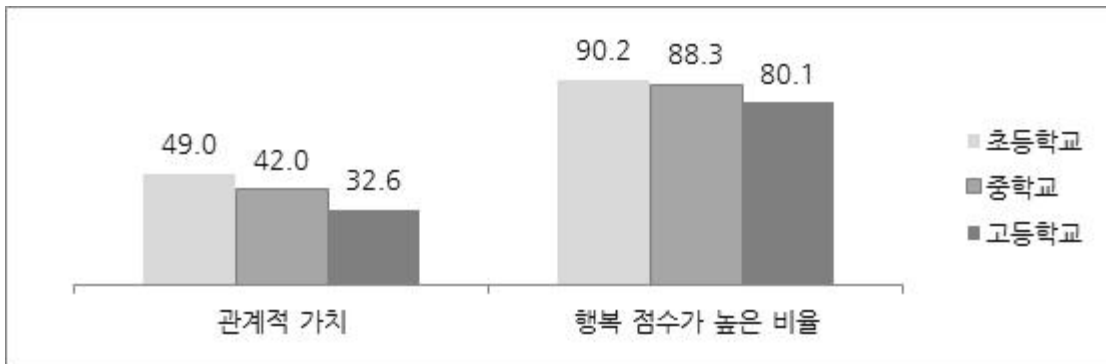
(단위 : %)



- 2018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관계적 가치를 꼽은 학생의 비율과 행복점수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관계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행복점수가 높은 비율도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였다.
- 이러한 감소 패턴은 2009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 비해 2018년에는 행복점수의 교급 상승에 따른 감소율이 더 낮았다. 또한 2018년과 2009년 모두에서 초등학교 집단은 관계적 가치를 1순위로 꼽았으나, 그 비율은 2018년 60%에서 2009년 50%p가량 감소하였다.

그림4-9. 2018년 교급별 관계적 가치 중요도와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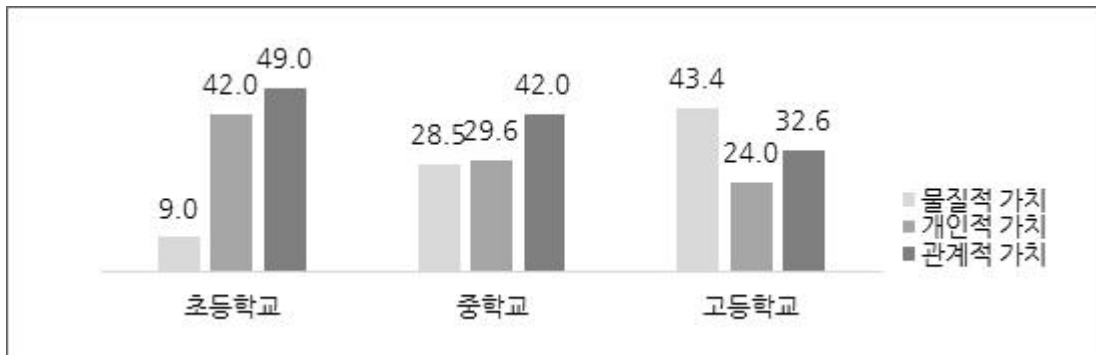
(단위 : %)



- 교급별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나타내는 차트이다. 초등학생들은 관계적 가치, 개인적 가치, 물질적 가치 순으로 응답했다. 2009년에 비해 관계적 가치 응답은 줄었으나(61%→49%),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혔다. 중학생의 경우, 2009년 개인적 가치를 꼽은 학생의 비율이 물질적 가치를 꼽은 비율보다 적었으나, 2018년에는 물질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꼽은 비율이 더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9년과 유사하게 응답하고 있다. 물질적 가치가 1순위로 고등학생의 43%, 2009년보다 2018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관계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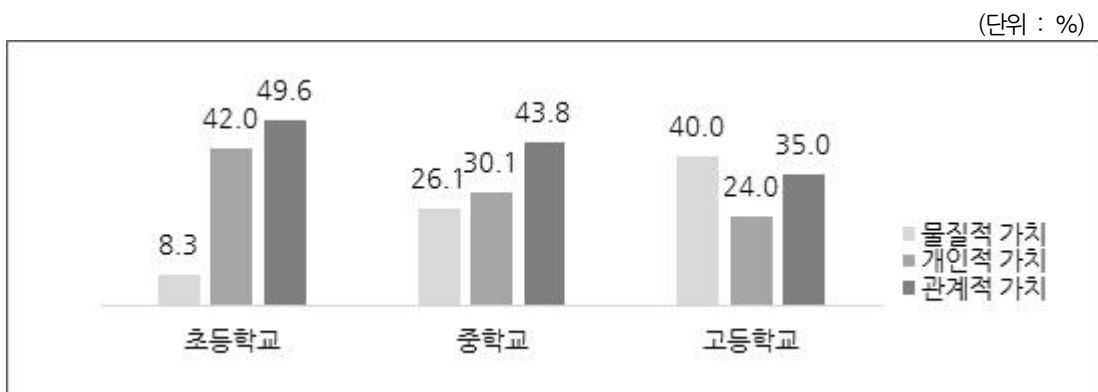
그림4-10. 2018년 교급별 행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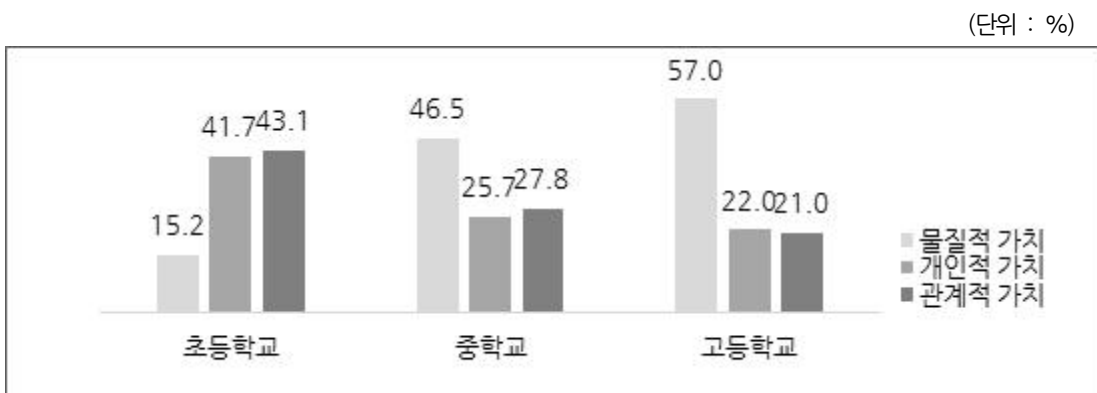
- 행복점수가 높은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50%의 응답자가 관계적 가치를 1순위로 꼽았다. 개인적 가치가 42%, 물질적 가치가 8%를 기록했다. 중학교 집단에서는 2009년 동일 집단과 비교해 가치 순위의 변화가 나타났다. 개인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응답 비율이 2009년 각각 25%, 29%에서 2018년 각각 30%, 26%로 순위가 역전되었다.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여전히 물질적 가치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관계적 가치 응답비율은 36%, 개인적 가치의 경우 24%를 기록하면서 두 가치 사이에는 약 10%p 차이를 보였다.

그림4-11. 2018년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 행복점수가 낮은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43%의 응답자가 관계적 가치를 1순위로 꼽았다. 한편 물질적 가치는 15%의 응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행복점수가 높은 초등학생 집단에 비해 약 2배 높은 비율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압도적인 1순위를 차지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관계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응답 비율은 거의 동일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57%가 물질적 가치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관계적 가치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21%에 머물렀다. 2009년 동일 집단과 비교해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비율은 약 11%p 상승하였고, 관계적 가치의 비율은 약 6%p 하락하였다.

그림4-12. 2018년 행복점수가 낮은 집단의 교급별 행복에 필요한 가치 순위



제5장 시험 · 성적 우려집단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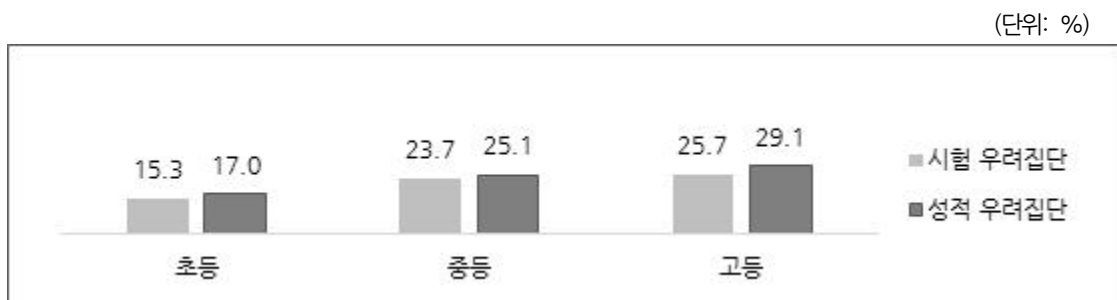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시험·성적 우려집단 분포

1. 교급 및 성별 분포

- 이 절에서는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우려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층을 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시험이 어려울까 걱정된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시험 우려집단”으로,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 걱정된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성적 우려집단”으로 구분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 시험·성적 우려집단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초등학생은 약 6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은 약 3~4명 중 1명이 이 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 교급별 시험·성적 우려집단 분포



- 또한,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학생층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모든 교급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과 비교해 높았다. 특히, 교급이 올라갈수록 성별에 따른 비율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2. 성별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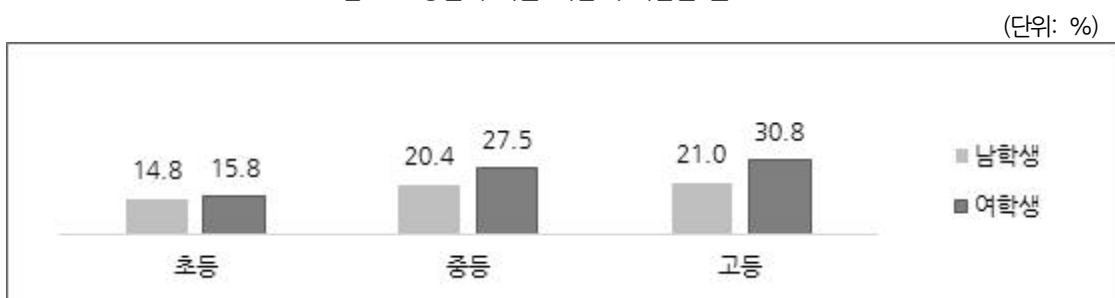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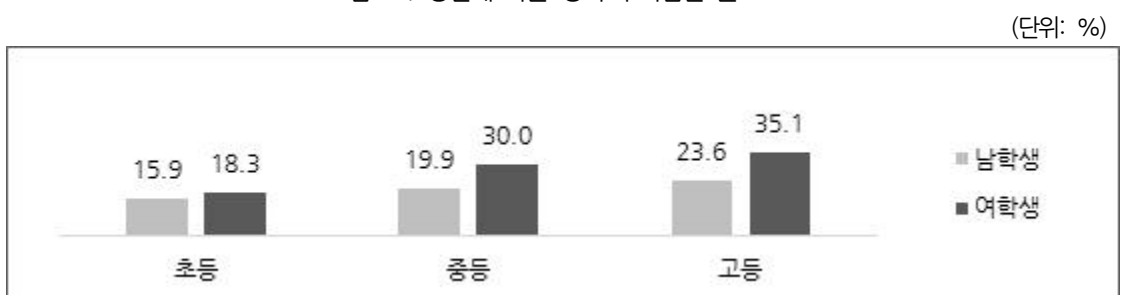


그림5-3. 성별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 분포



2. 학교성적에 따른 분포

- 시험 및 성적 우려집단 분포를 학교성적과 계층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성적을 상, 중, 하, 세 수준으로 구분해 시험 및 성적 우려집단 비율을 비교했다. 초등학생은 학교성적이 가장 낮은 범주에서 시험·성적 우려집단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가장 높은 범주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학교성적에 따른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5-4. 학교성적 구분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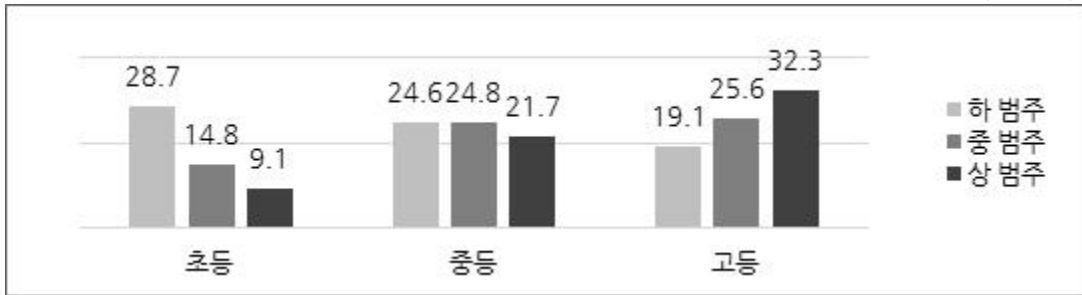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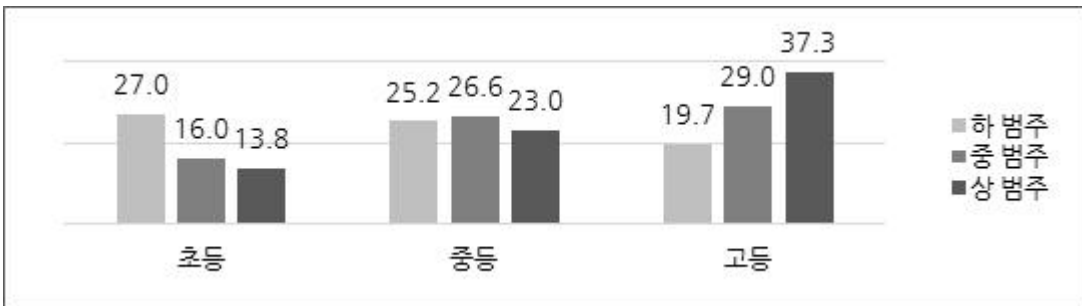


그림5-5. 학교성적 구분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 분포

(단위: %)



3. 계층인식에 따른 분포

- 이 절에서는 계층인식을 하층, 중층, 상층 세 범주로 구분해 시험 및 성적 우려집단 비율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한 범주에서 시험 및 성적 우려집단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에서는 계층인식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5-6. 계층인식 구분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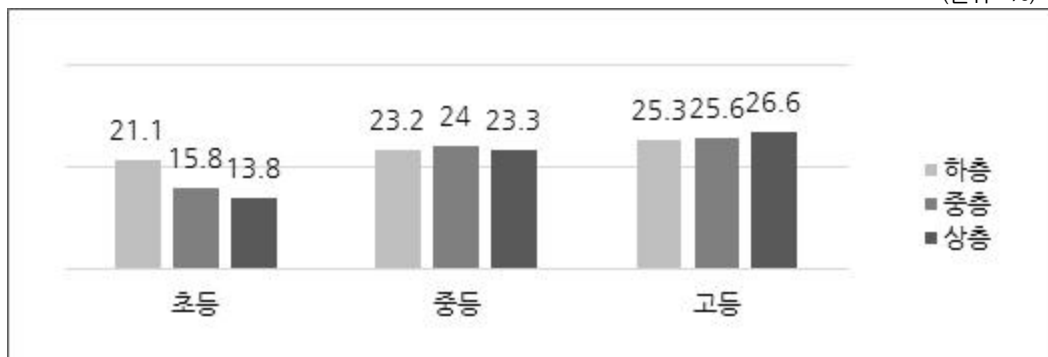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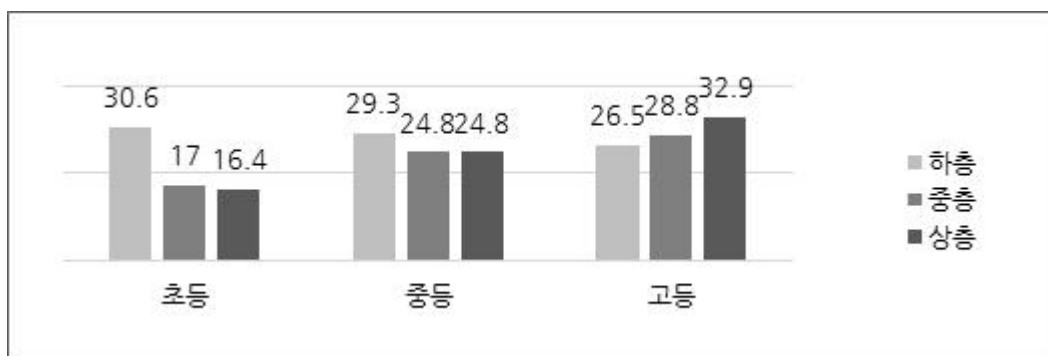


그림5-7. 계층인식 구분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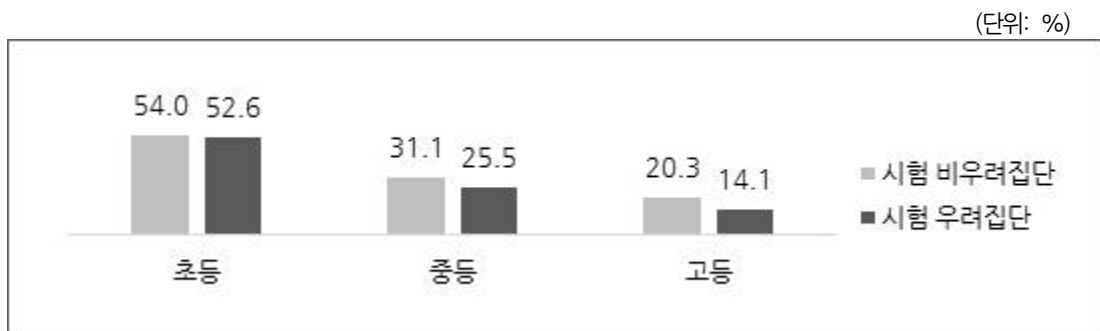


Ⅱ.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행복감

1.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주관/상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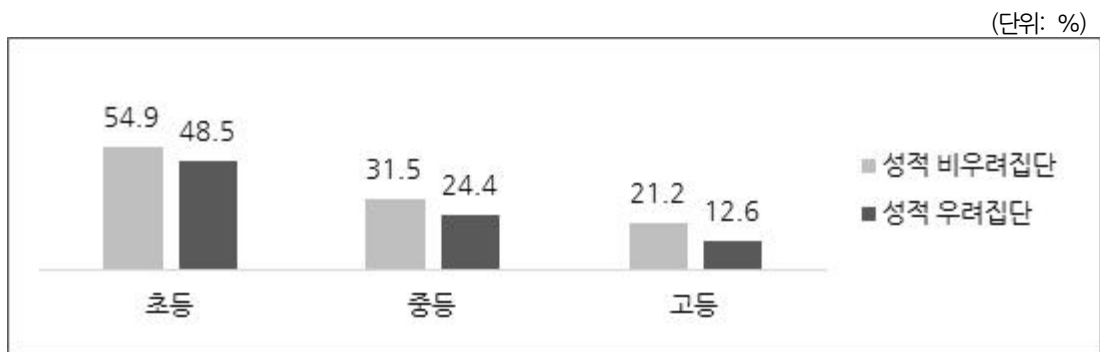
- 먼저,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해 두 집단이 주관적 행복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주관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주관적 행복감이 교급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두 집단간 차이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5-8. 시험 우려집단과 주관적 행복감



*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5-9. 성적 우려집단과 주관적 행복감



*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다음으로,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상대적 행복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상대적 행복감은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시험 및 성적 우려집단의 상대적 행복감도 교급에 관계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 상대적 행복감은 약 3-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림5-10. 시험 우려집단과 상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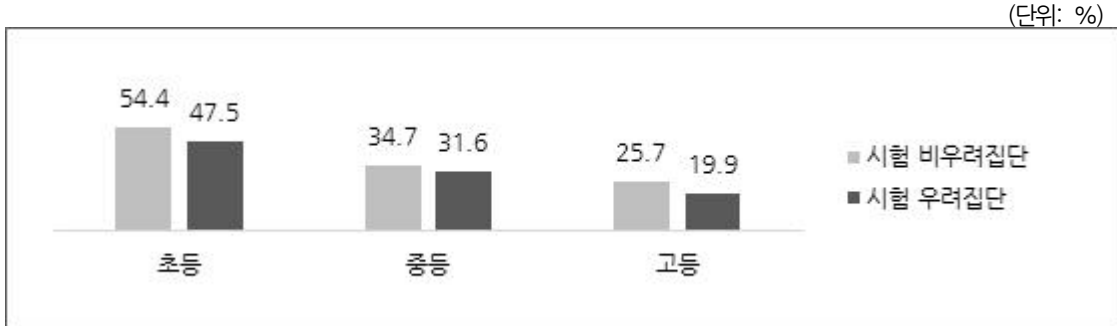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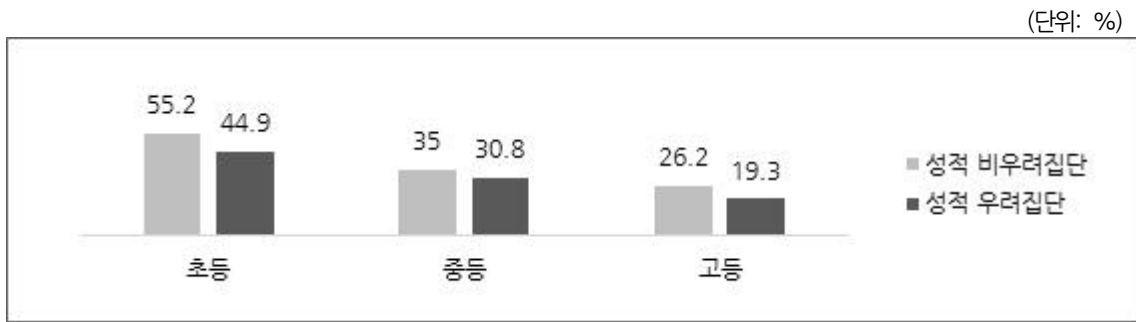


그림5-11. 성적 우려집단과 상대적 행복감



*"주변 친구들에 비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2.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생활만족도

- 이 절에서는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 두 집단이 생활만족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생활만족도는 "내 삶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생활만족도가 교급에 관계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 생활만족도는 약 6~13%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림5-12. 시험 우려집단과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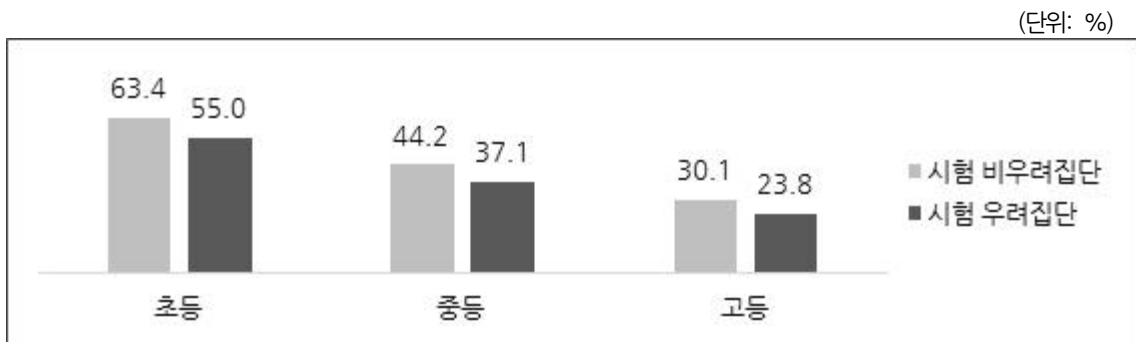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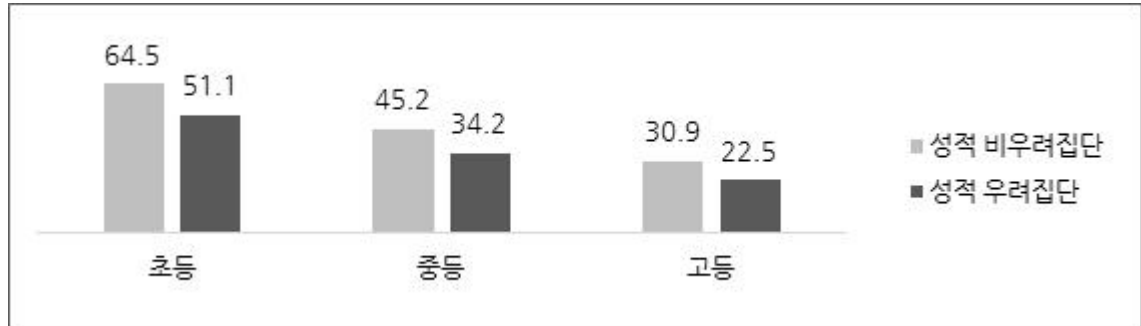


그림5-13. 성적 우려집단과 생활만족도

(단위: %)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Ⅲ.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자살 생각

1. 연도별 자살생각 변화 추이

- 초·중·고 학생의 자살충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자살충동 경험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 중 20.7%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27.3% 수준이었고, 고등학생은 28.3%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5-14. 교급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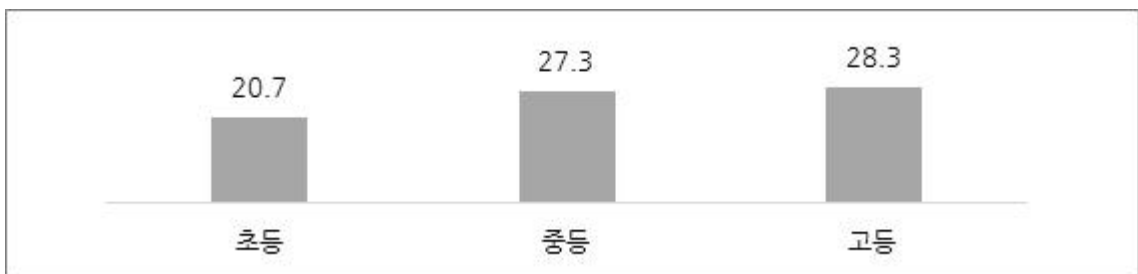


그림5-15. 초등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단위: %)



그림5-16. 중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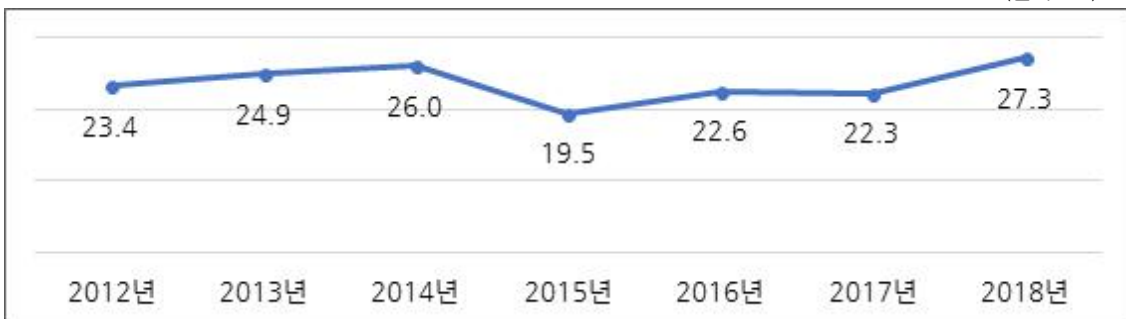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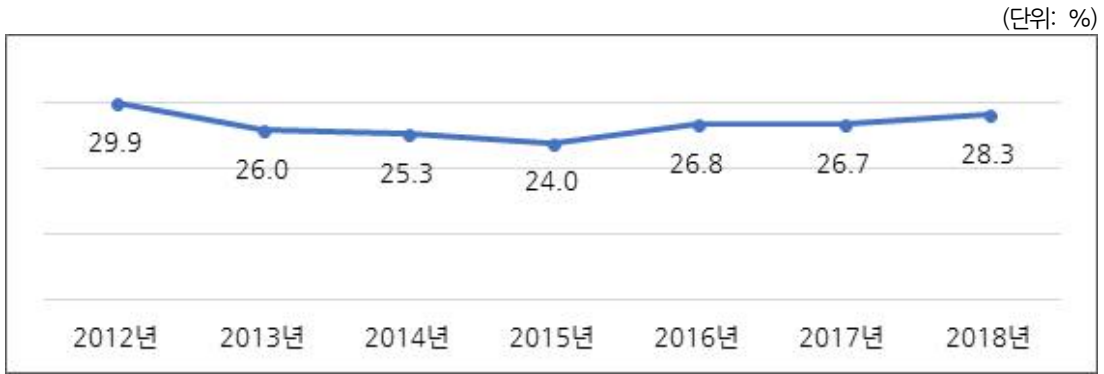


그림5-17. 고등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2.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자살생각

-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 두 집단이 자살충동 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자살충동 경험 유무와 빈도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했다. 시험·성적 우려집단은 전반적으로 약 2.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8.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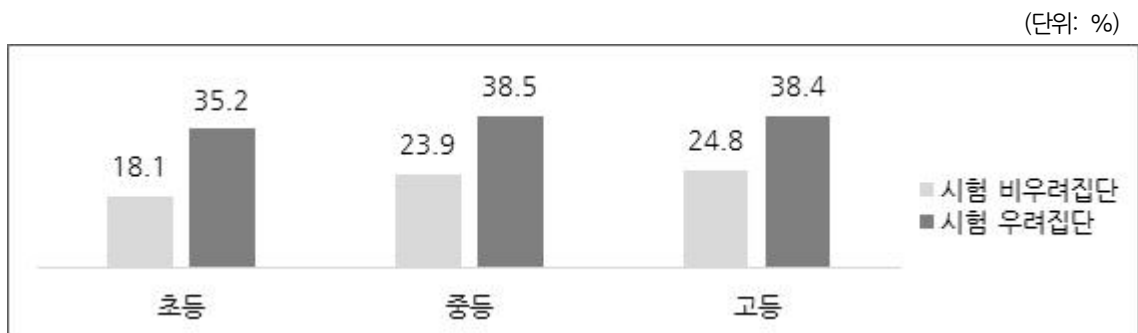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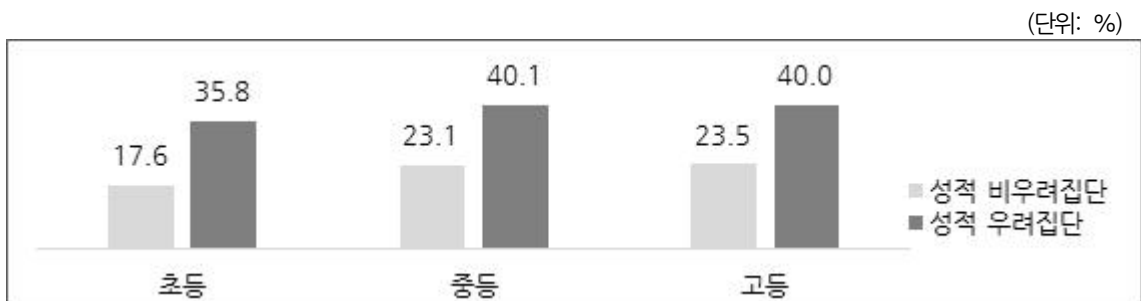


그림5-19.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 또한, 자살충동을 3번 이상 경험한 비율에서도 시험 및 성적 우려집단과 비우려집단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분석에서는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약 13%가 자살충동을 3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이 비율이 15~17% 수준이었다. 자살충동을 3회 이상 경험한 비율에서 시험·성적 우려집단과 비우려집단은 교급에 관계없이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림5-20.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3회 이상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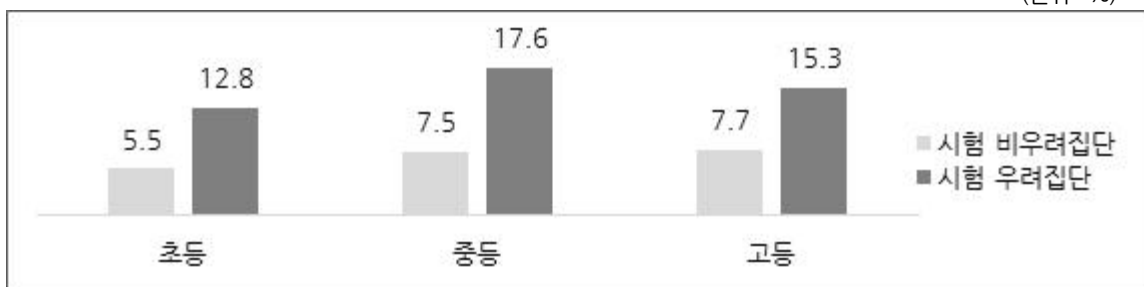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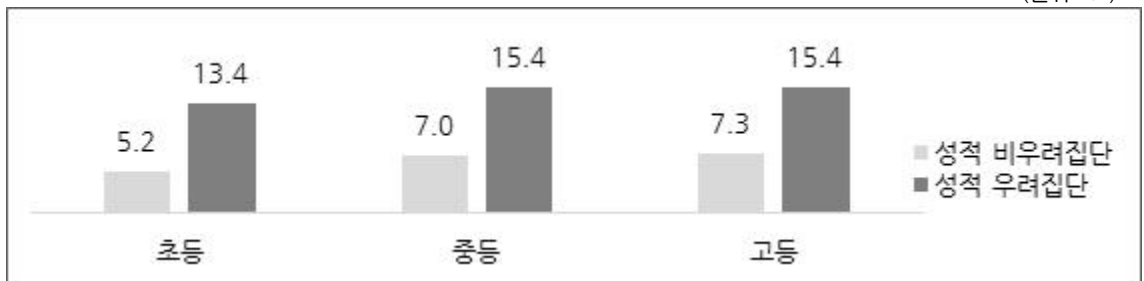


그림5-21.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3회 이상 경험

(단위: %)



3. 사회적 관계수준에 따른 자살생각

- 사회적 관계 수준에 따라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생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관계, 아버지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관계 수준을 측정해 평균 이상인 집단과 평균 미만인 집단으로 각각 구분했으며, 두 집단이 자살충동 경험 비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했다. 먼저, 어머니 관계수준은 “어머니와 나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문제이든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 때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어머니관계 수준에 따라 약 15~2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림5-22. 어머니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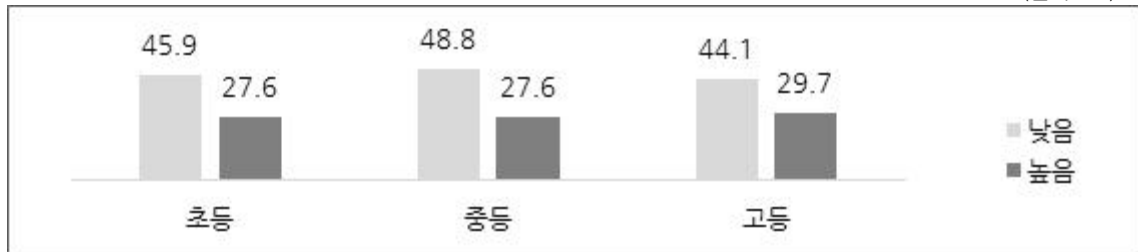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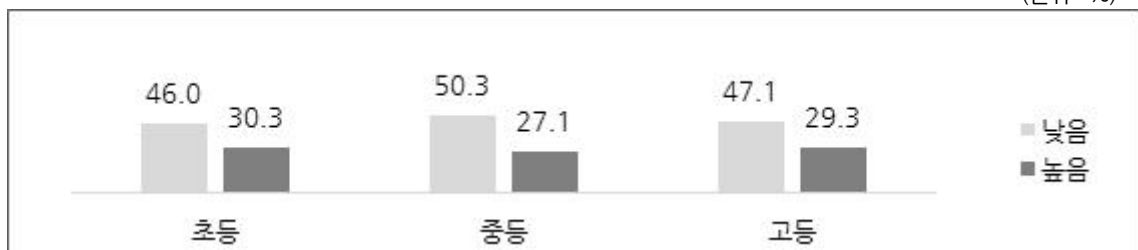


그림5-23. 어머니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단위: %)



- 또한, 아버지 관계 수준은 “아버지와 나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 때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아버지관계 수준에 따라 약 15~2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림5-24. 아버지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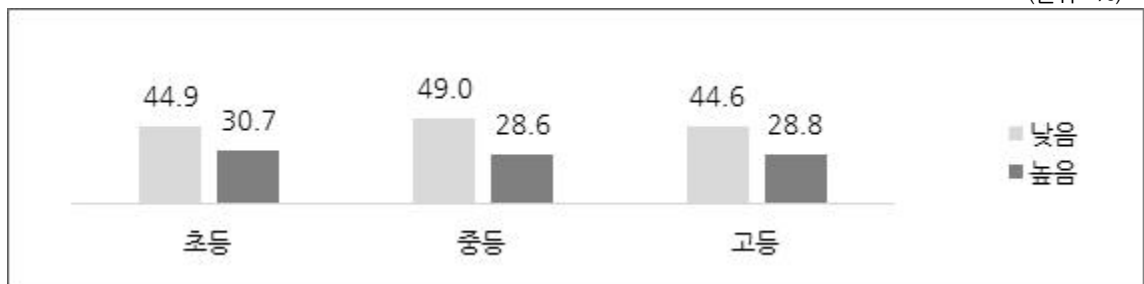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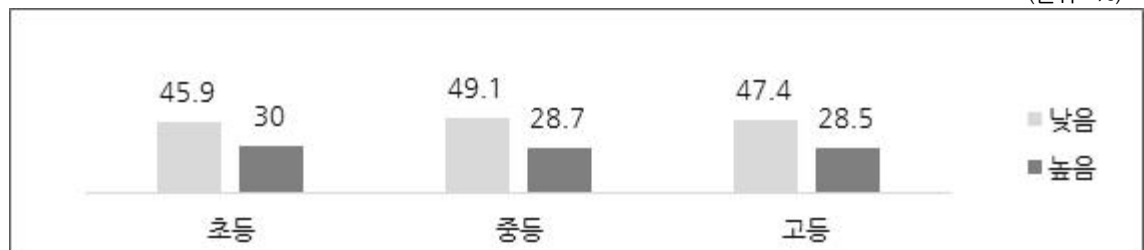


그림5-25. 아버지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단위: %)



- 다음으로, 친구관계 수준은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느껴진다”,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등 6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친구관계 수준이 높을 때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낮았으며, 친구관계 수준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비율 격차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26. 친구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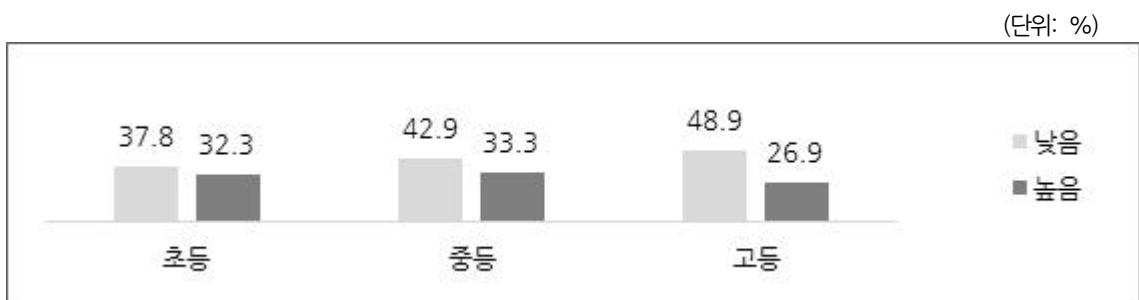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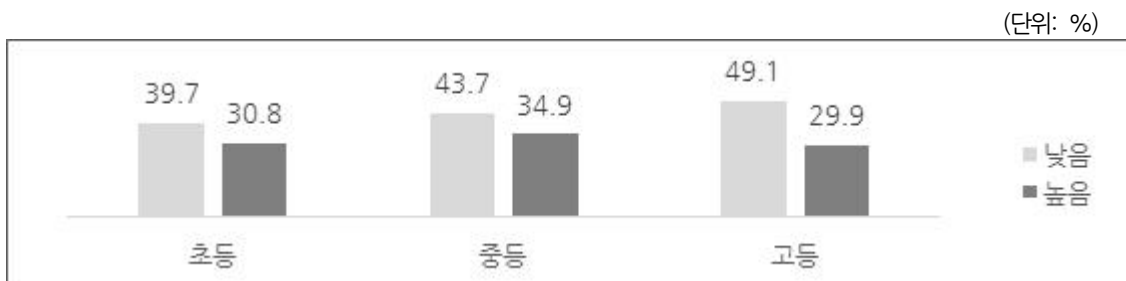


그림5-27. 친구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 선생님 관계는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등 2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선생님 관계 수준이 높을 때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아버지관계 수준에 따라 약 6-12%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림5-28. 선생님관계 수준에 따른 시험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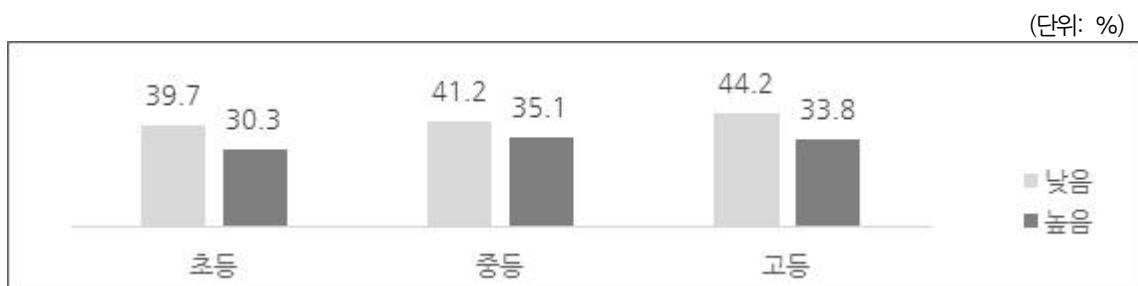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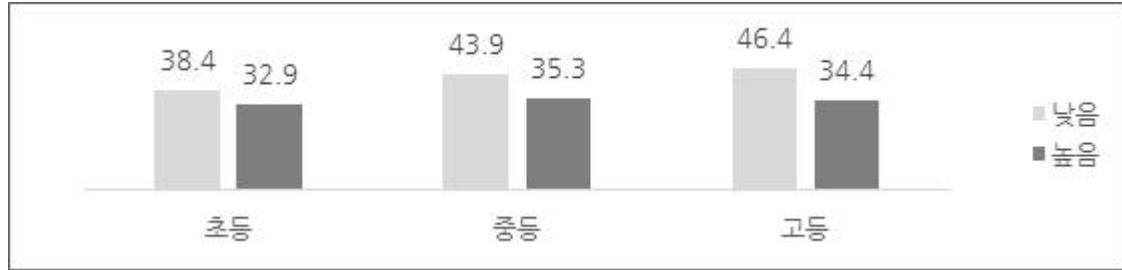


그림5-29. 선생님관계 수준에 따른 성적 우려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단위: %)



제6장 공동체 의식과 행복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공동체 의식 범주 비교

- 초·중·고 학생의 공동체의의식 수준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제 빈국에 대한 기부 의사, 지구보호 활동 참여에 관한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교급과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1.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 먼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이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 이하 수준이었다. 한편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초등학교생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생은 각각 34.3%, 34.4%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6-1. 초등학교생: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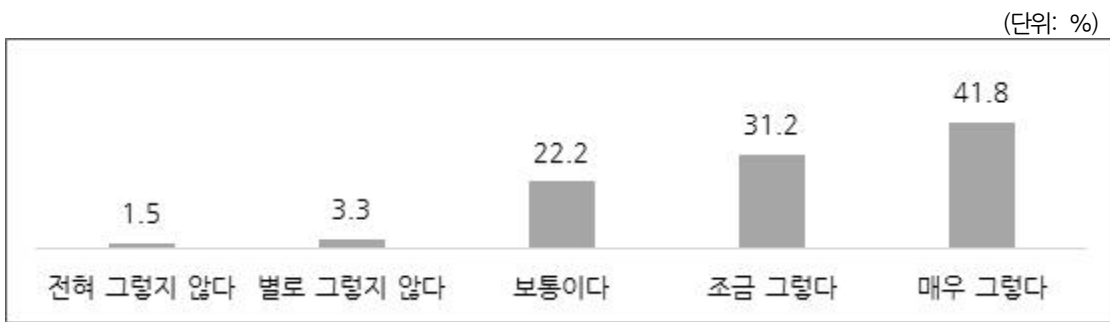


그림6-2. 중학교생: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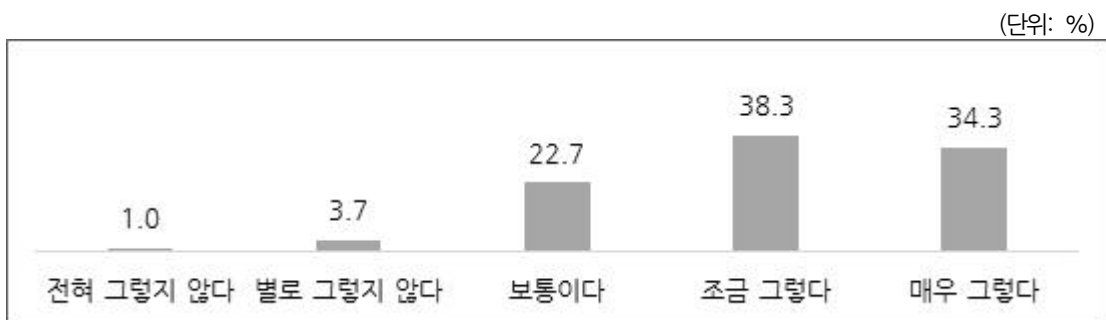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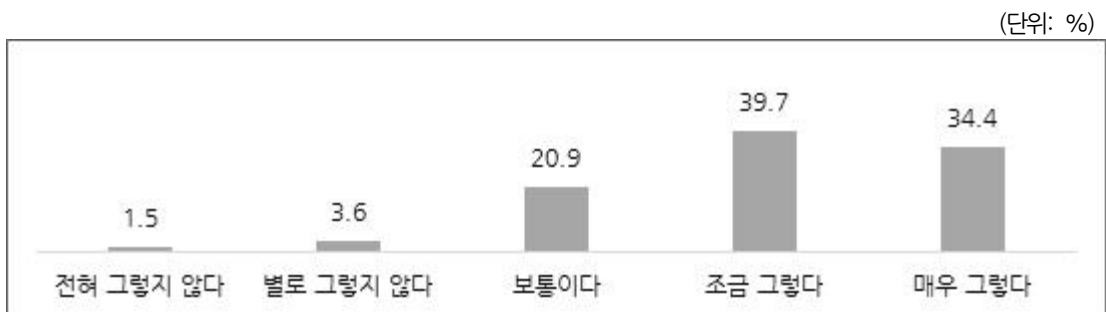


그림6-3. 고등학교생: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 다음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응답 범주(“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교급에 관계없이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4. 초등학교 성별 비교: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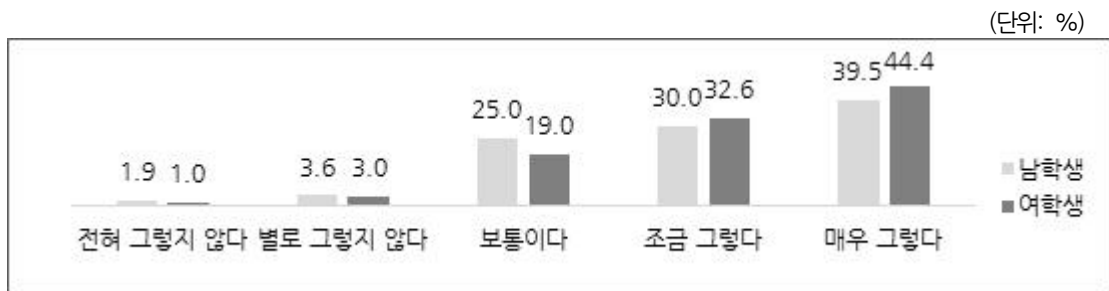


그림6-5. 중학교 성별 비교: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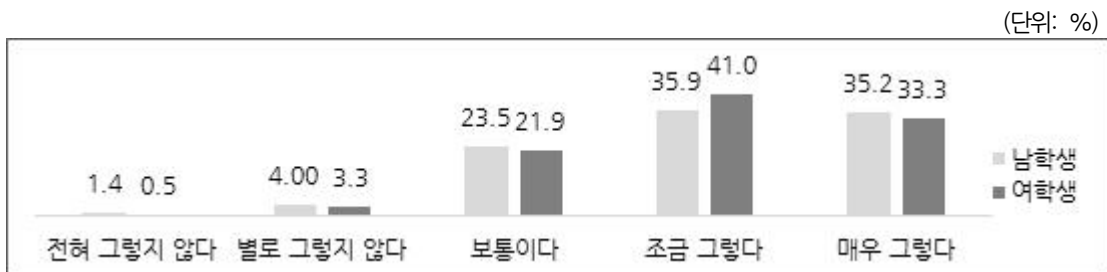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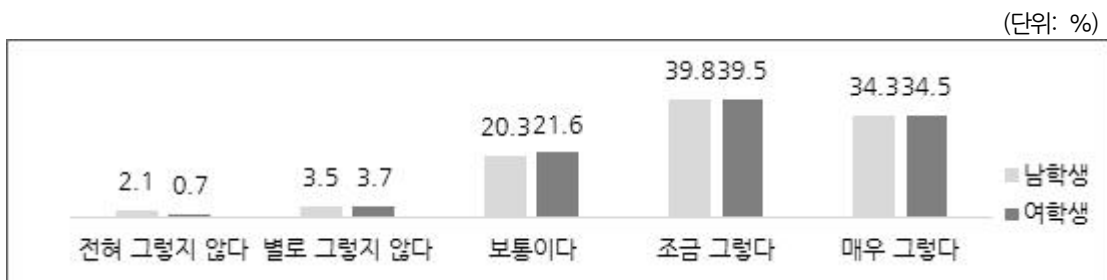


그림6-6. 고등학교 성별 비교: 어려운 친구에 도움 제공



2.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이 절에서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교급 및 성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교급별로 살펴보면 이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31~34% 수준이었다. 한편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고등학생이 16.8%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은 15.2%, 중학생은 12.8%로 가장 낮았다.

그림6-7. 초등학생: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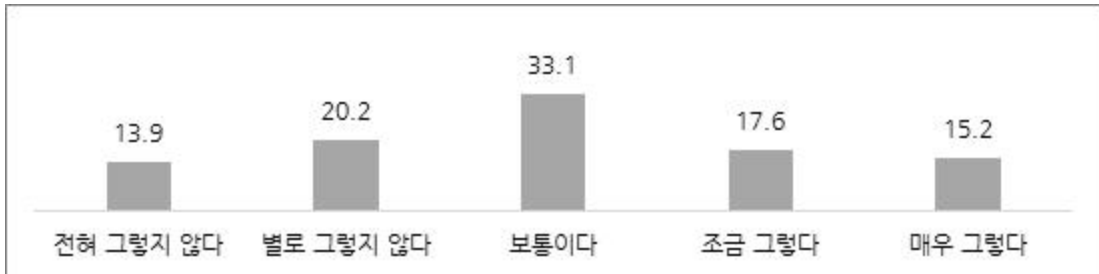


그림6-7. 중학생: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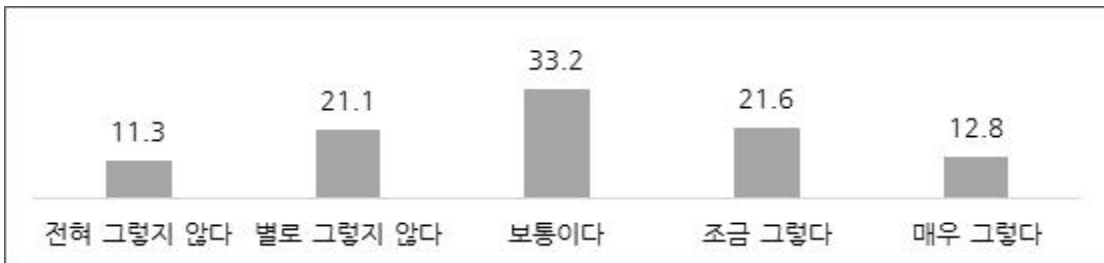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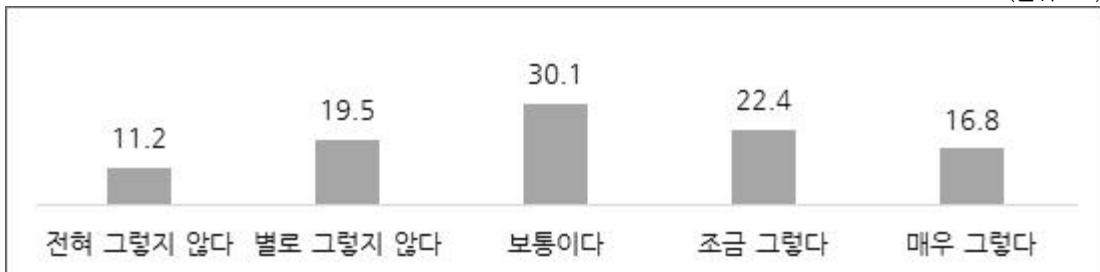


그림6-8. 고등학생: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



- 다음으로,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항목에 5 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응답 범주(“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교급에 관계없이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 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6-9. 초등학생 성별 비교: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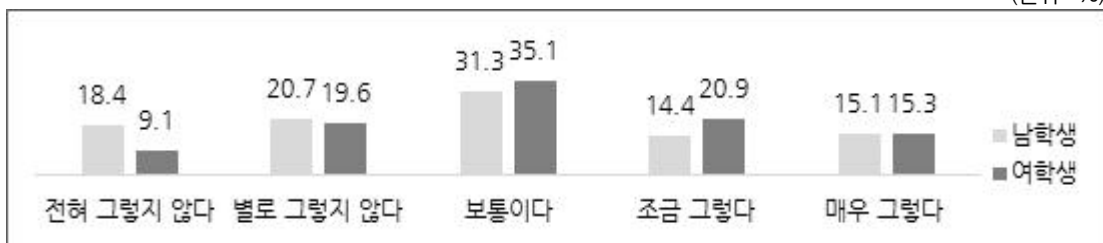


그림6-10. 중학생 성별 비교: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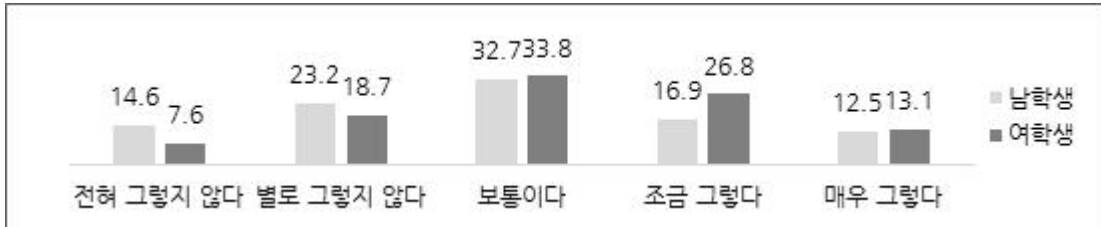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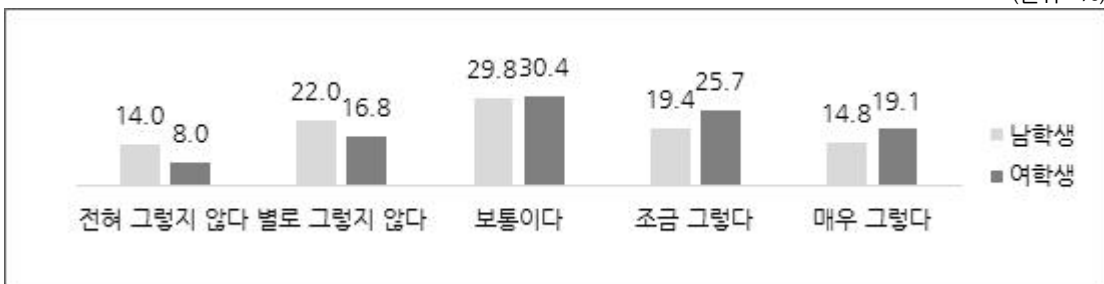


그림6-11. 고등학생 성별 비교: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



3.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교급 및 성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 초반 수준으로 교급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생이 24.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7.2%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6-12. 초등학생: 경제 반국에 대한 기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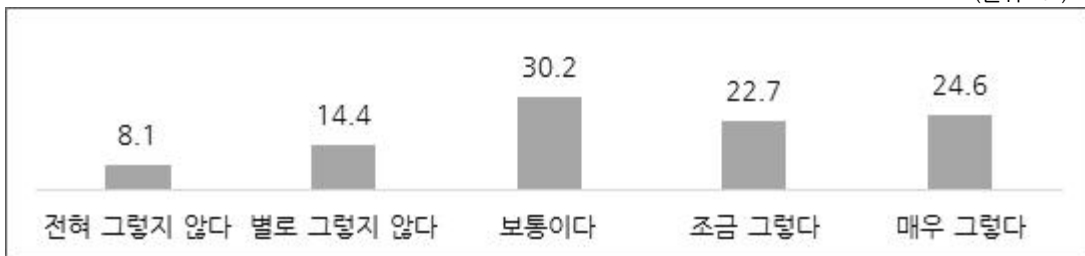


그림6-13. 중학생 경제 빈국에 대한 기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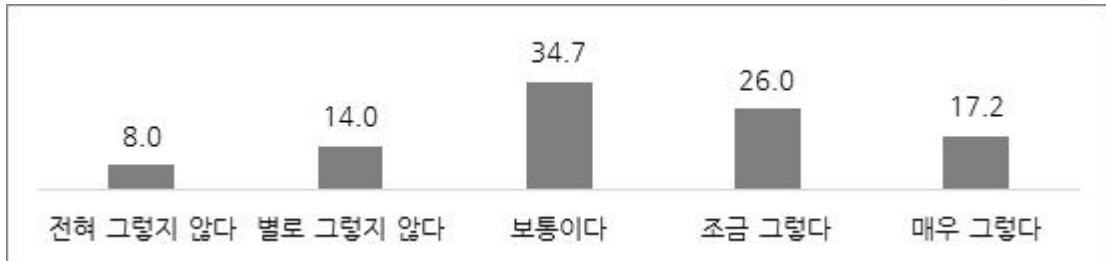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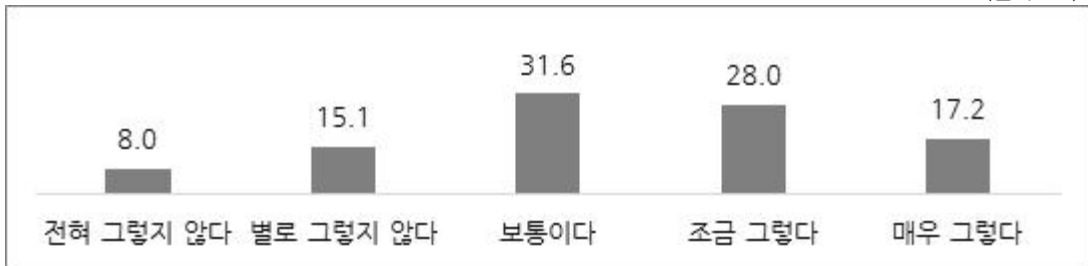


그림6-14. 고등학생 경제 빈국에 대한 기부

(단위: %)



- 다음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응답 범주(“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교급에 관계없이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약 5-9%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15. 초등학교 성별 비교: 경제 빈국에 대한 기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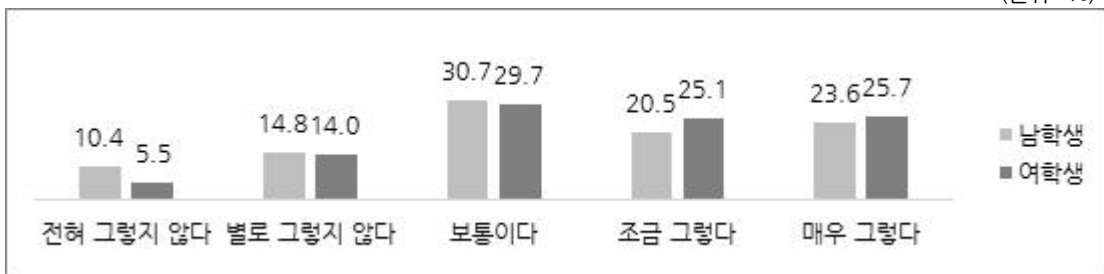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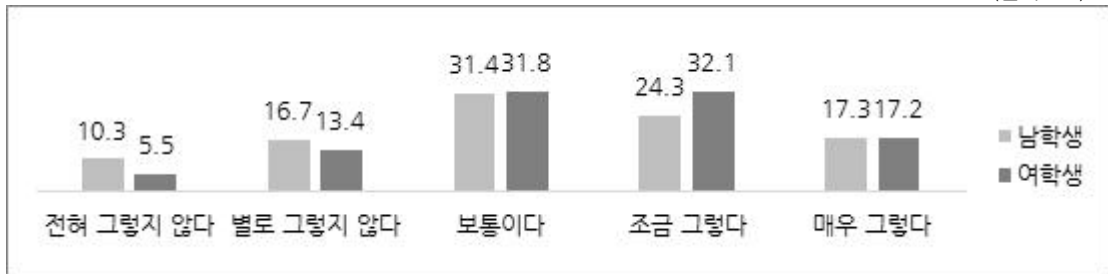
그림6-16. 중학생 성별 비교: 경제 빈국에 대한 기부

(단위: %)



그림6-17. 고등학생 성별 비교: 경제 빈국에 대한 기부

(단위: %)



4.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 이 절에서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교급 및 성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교급별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가 10.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8.3%, 고등학생은 7.1% 수준이었다. 한편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가 42.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33.5%, 34.9%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6-18. 초등학생: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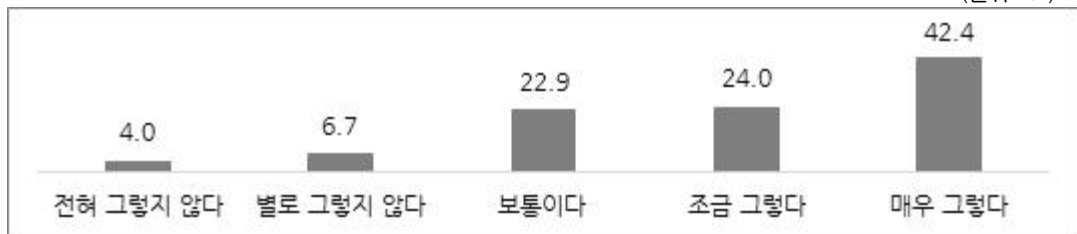


그림6-19. 중학생: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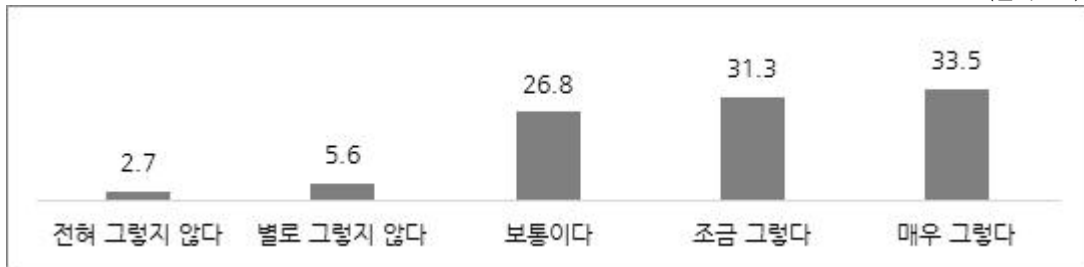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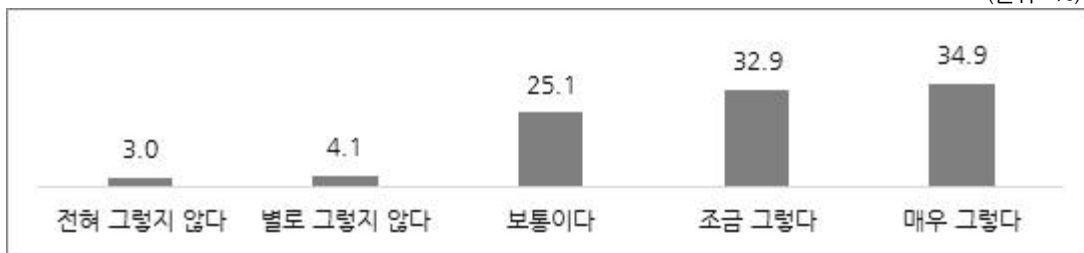


그림6-20. 고등학생: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단위: %)



- 다음으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항목에 5점 척도로 답한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비율은 교급에 관계없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8%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21. 초등학생 성별 비교: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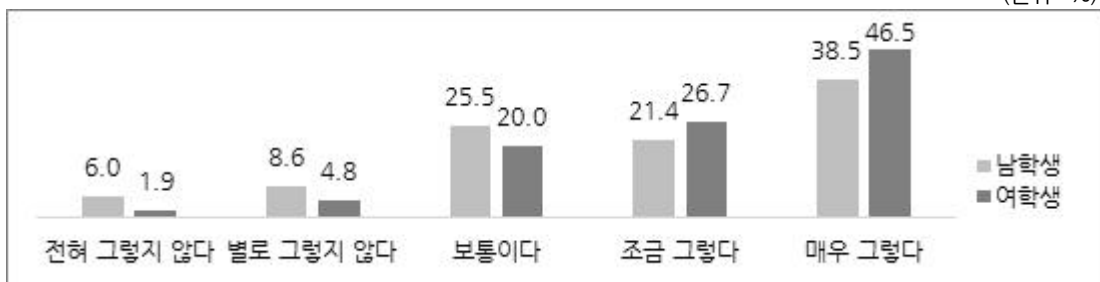


그림6-22. 중학생 성별 비교: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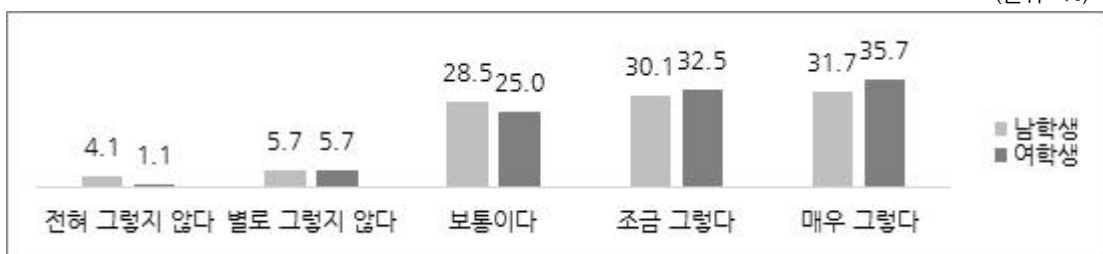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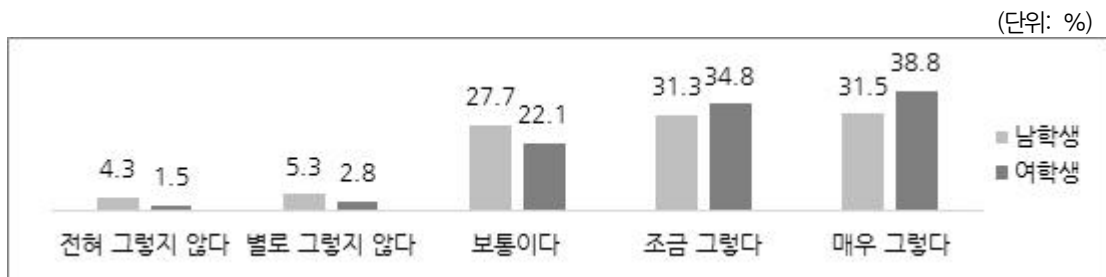


그림6-23. 고등학생 성별 비교: 지구보호 활동에 참여



5.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 이 절에서는 공동체의식에 관한 4개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교급 및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교급별로 보면 어려운 친구에 대한 도움 제공과 지구보호 참여 의식 수준은 교급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 빈국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6-24. 교급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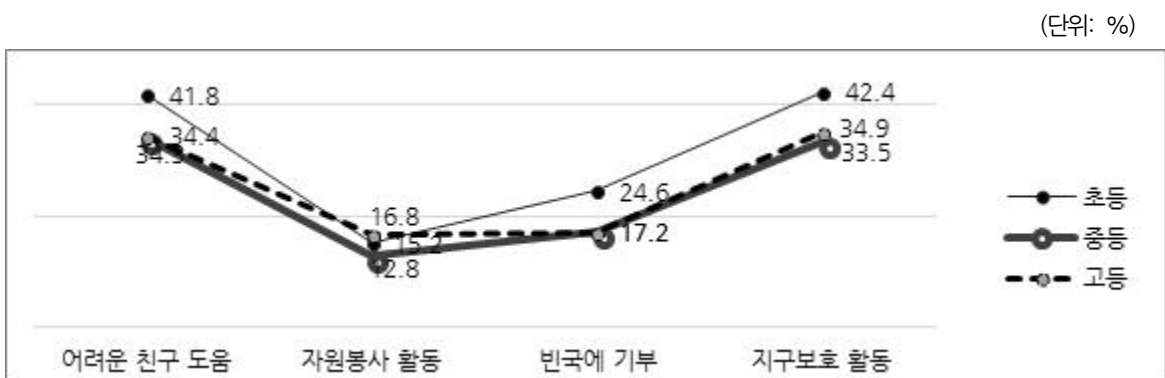


그림6-25. 초등학생: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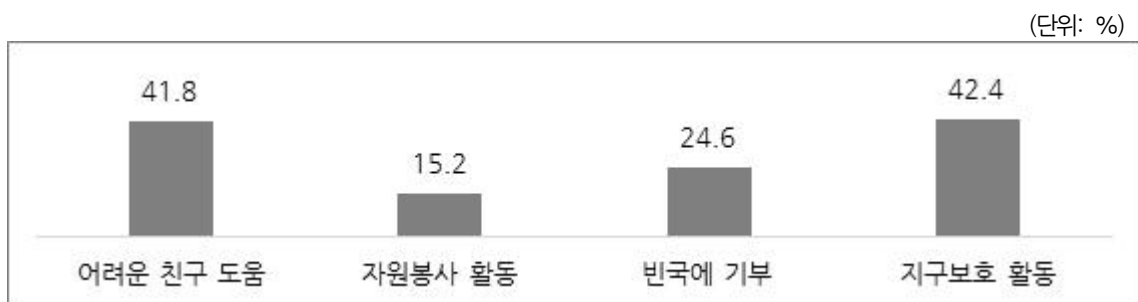


그림6-26. 중학생: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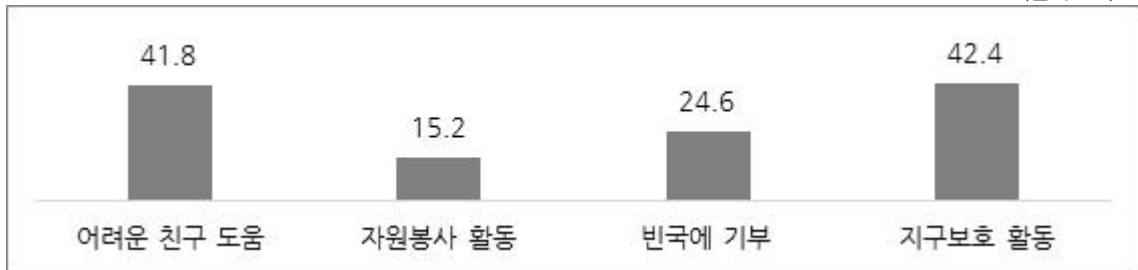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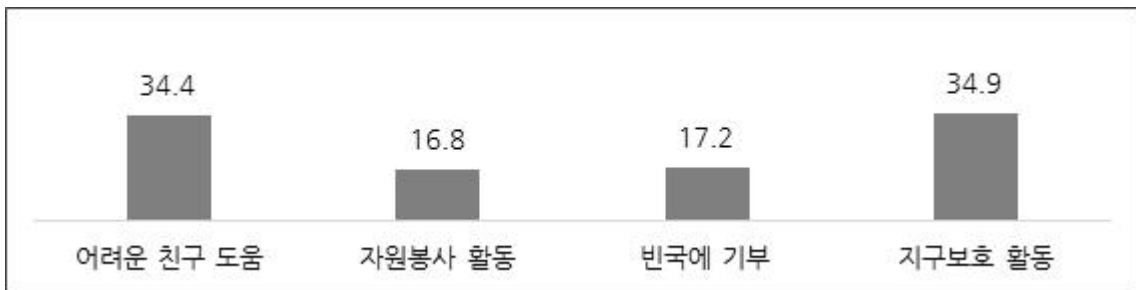


그림6-27. 고등학생: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단위: %)



-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에 관한 4개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 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공동체의식 범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자원봉사와 지구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 범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28. 초등학생: 성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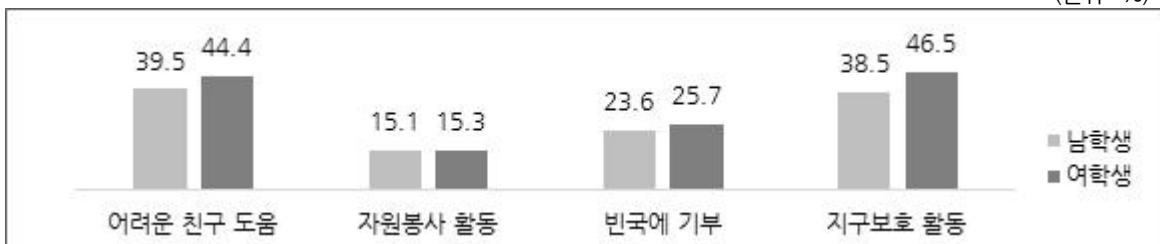


그림6-29. 중학생: 성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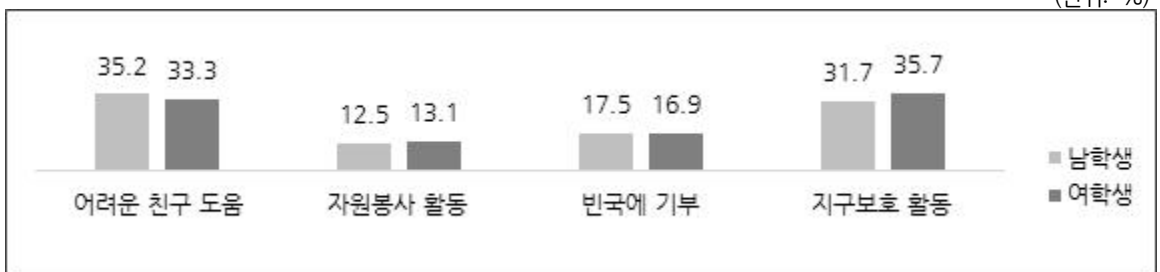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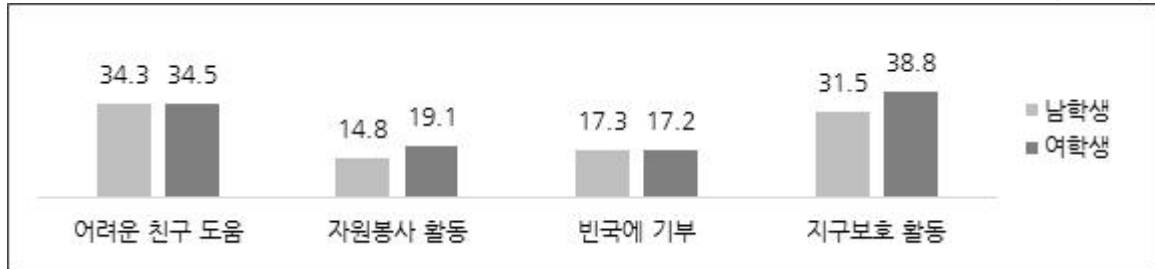


그림6-30. 고등학생: 성별 공동체의식 범주 비교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II. 공동체 의식 수준과 긍정적 행복감

1. 주관 및 상대적 행복

-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이들 집단이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4개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했으며, 높은 집단은 동일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범주화 했다. 먼저, 주관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주관적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으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6-31.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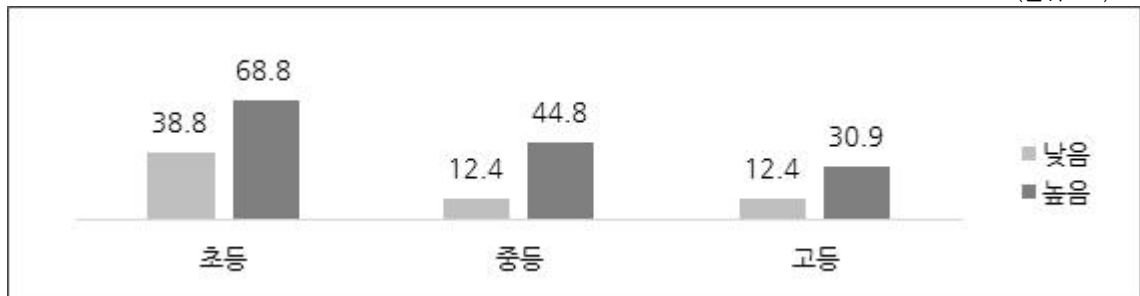


그림6-32. 자원봉사의식 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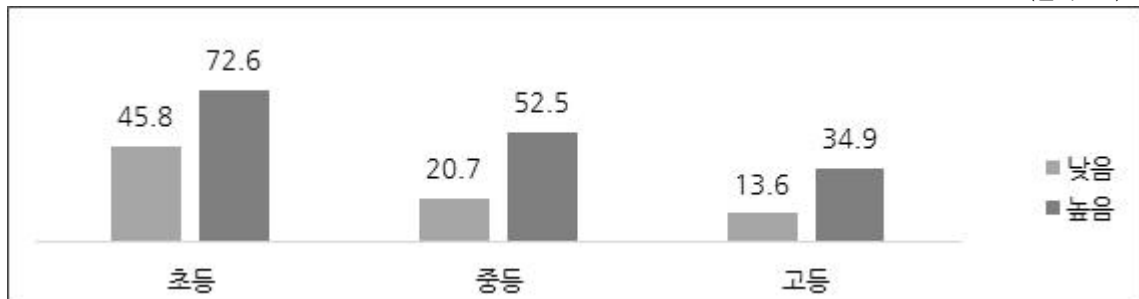


그림6-33. 빈국에 대한 기부 의식 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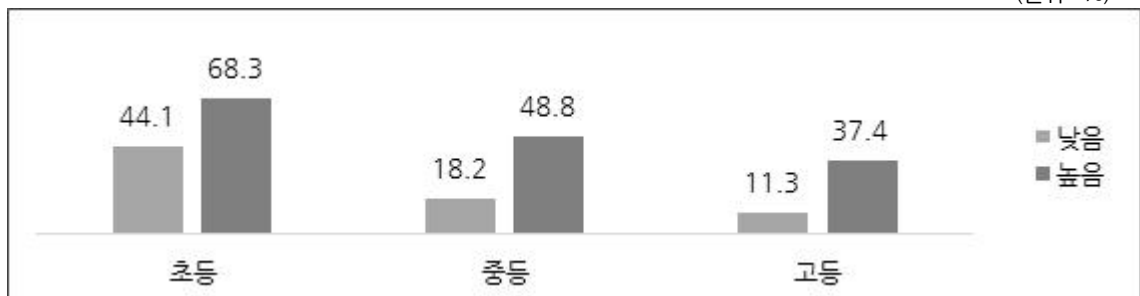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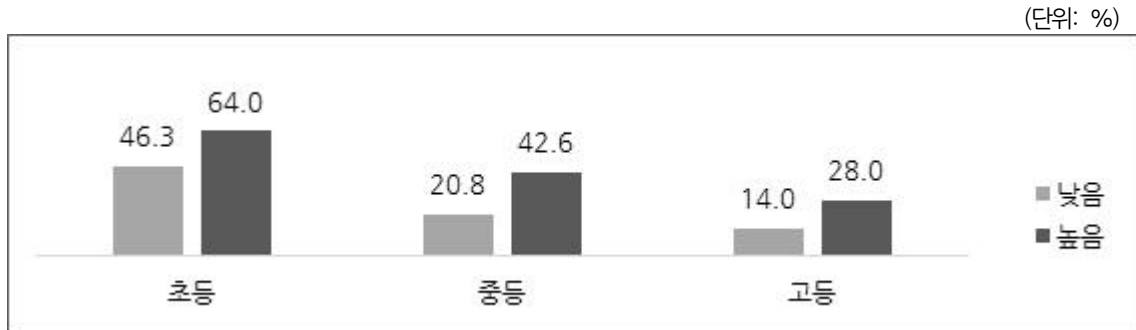


그림6-34. 지구보호 의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또한,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상대적 행복감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 행복감은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상대적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으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공동체의식 수준에 따라 상대적 행복감이 약 2~3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6-35.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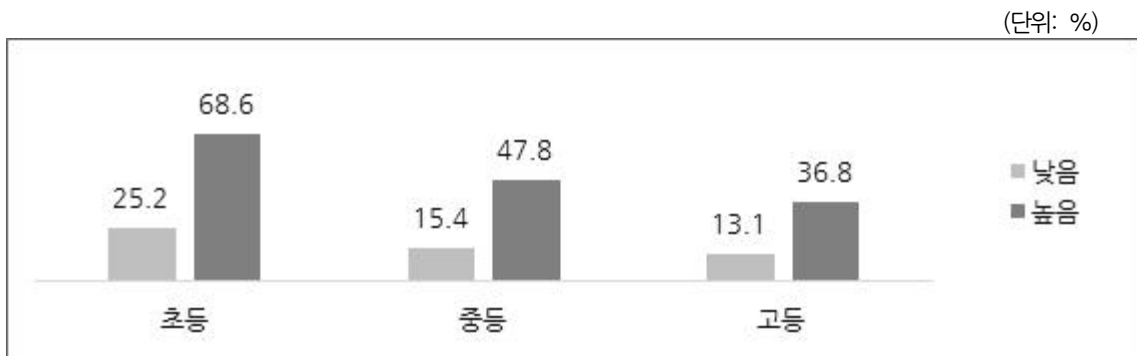


그림6-36.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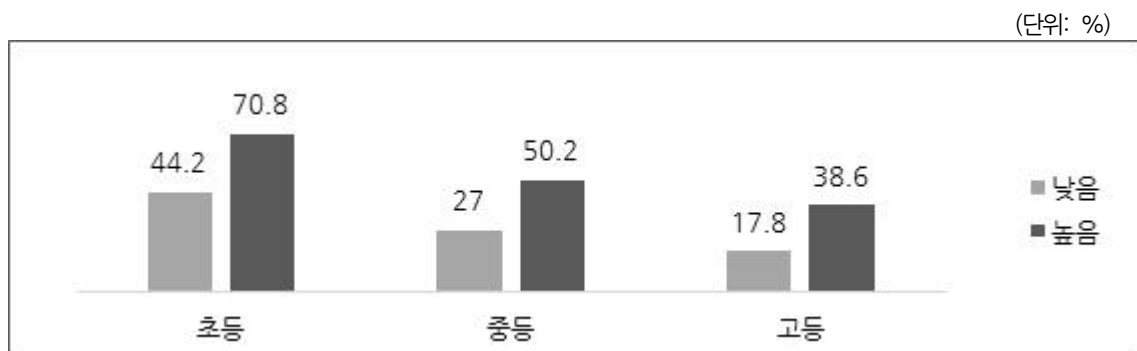


그림6-37. 빈국에 대한 기부 의식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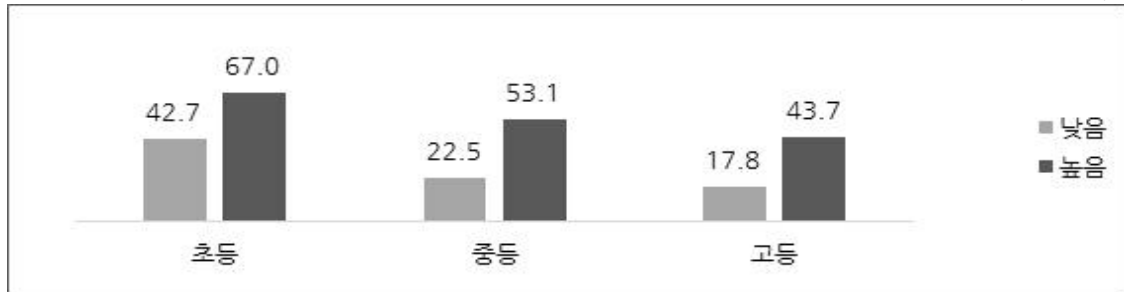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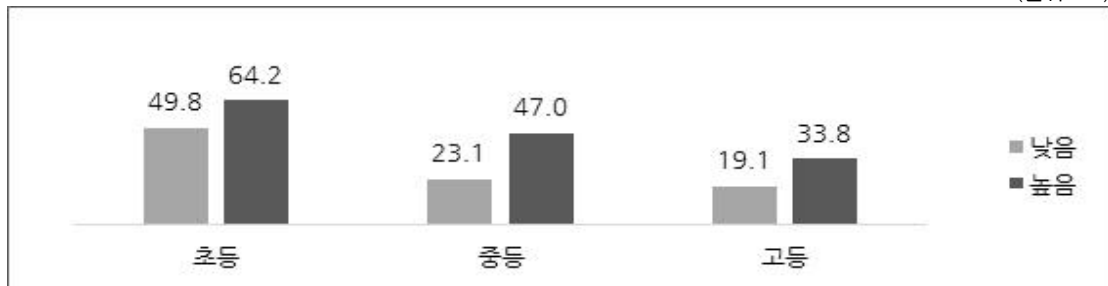


그림6-38. 지구보호 의식 수준과 상대적 행복감

(단위: %)



*"주변 친구들에 비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2. 생활만족도

-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두 집단이 삶 만족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4개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했으며, 높은 집단은 동일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범주화 했다. 생활만족도는 “내 삶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으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공동체의식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약 2~3.5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6-39.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생활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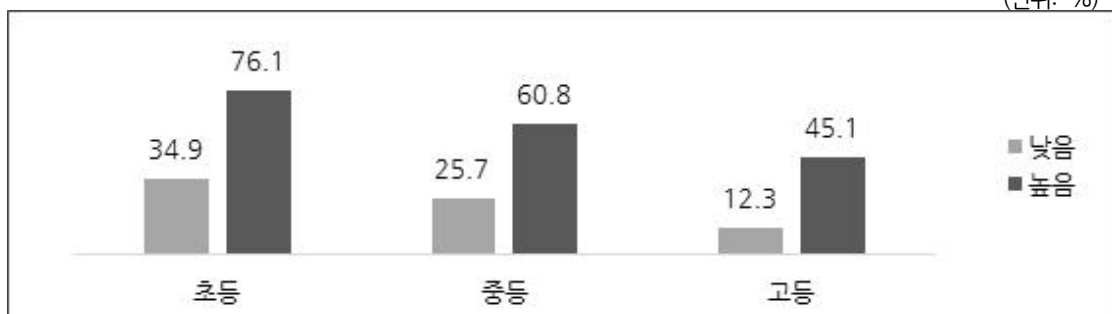


그림6-40.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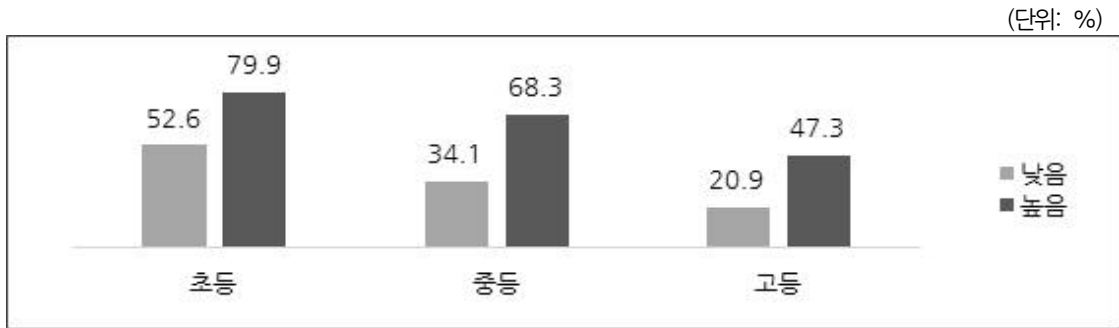


그림6-41. 빈국에 대한 기부 의식 수준과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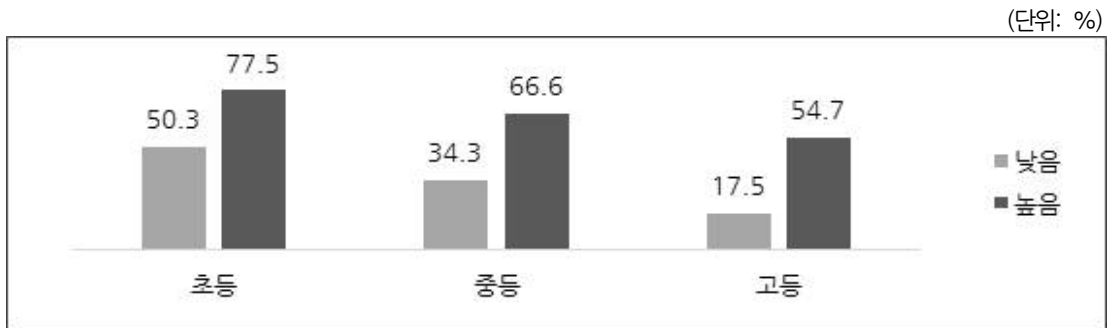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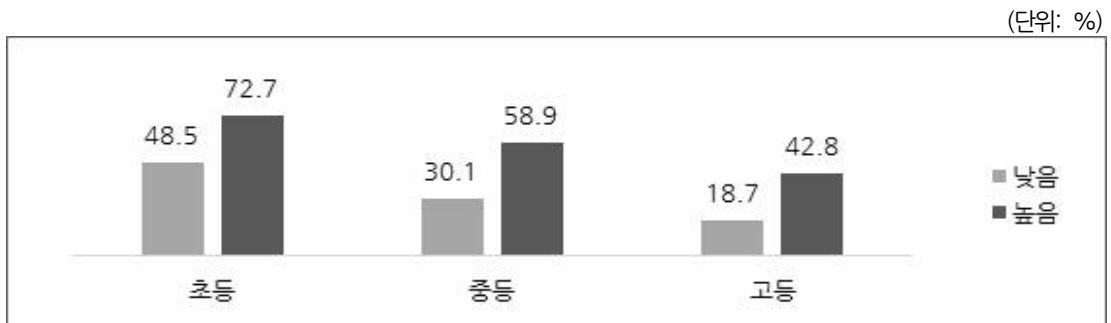


그림6-42. 지구보호 의식 수준과 생활만족도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3. 학교생활 만족

-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두 집단이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4개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했으며, 높은 집단은 동일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범주화 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약 2-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 다른 행복감과 달리, 중학생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분석에서도 공동체의식 수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6-43.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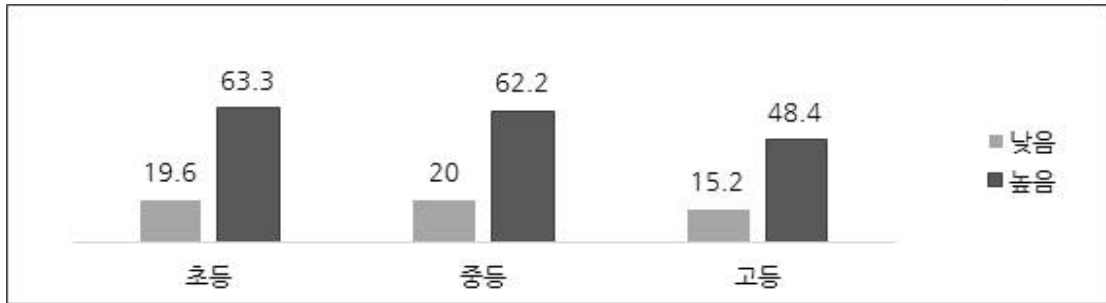


그림6-44.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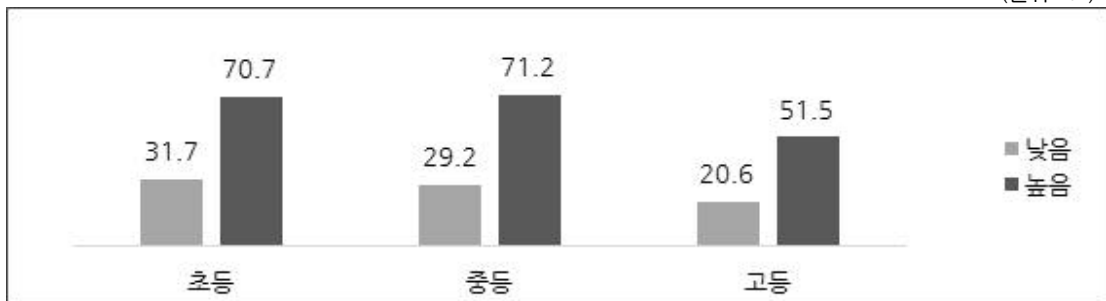


그림6-45. 반국에 대한 기부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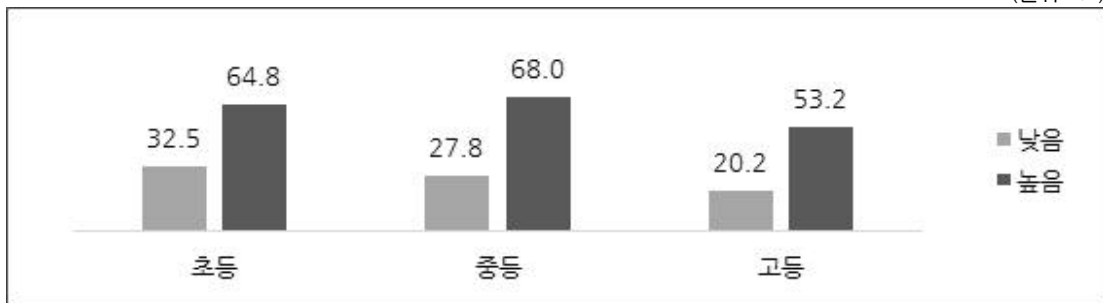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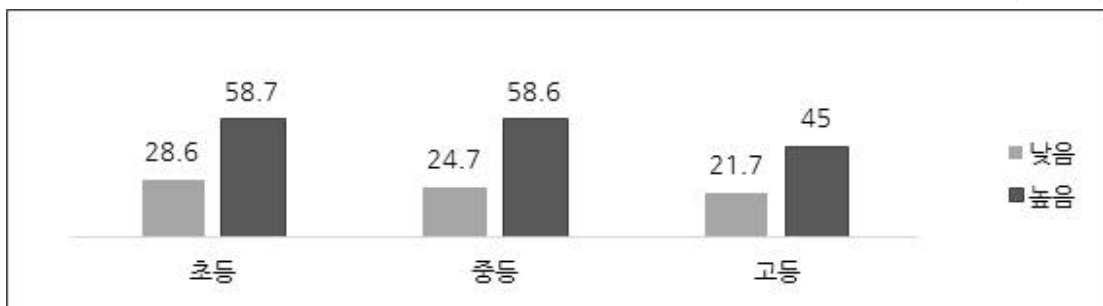


그림6-46. 지구보호 의식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단위: %)



Ⅲ. 공동체 의식 수준과 부정적 행복감

1. 가출충동 경험

- 먼저,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이들 집단이 가출충동 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4개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했으며, 높은 집단은 동일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범주화 했다. 가출충동 경험은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약 8~19%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47.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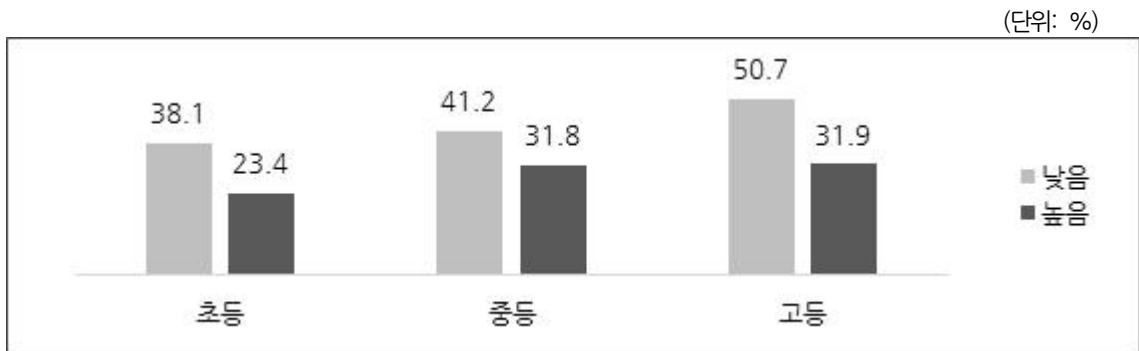


그림6-48.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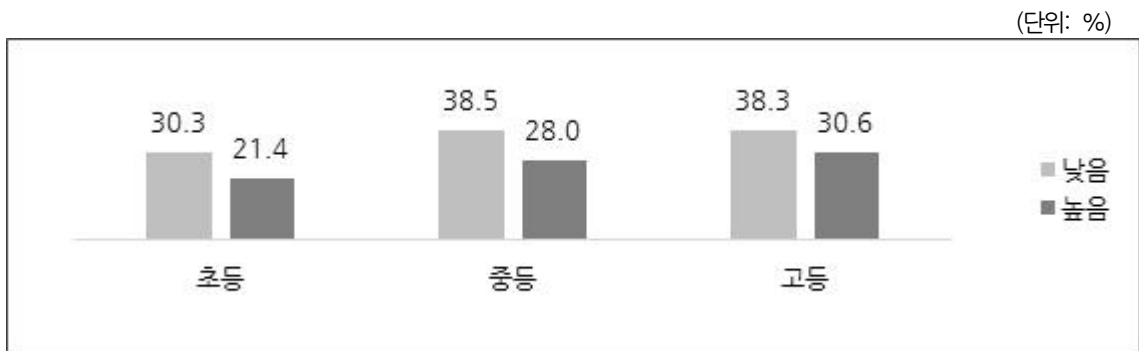


그림6-49. 반국에 대한 기부 의식 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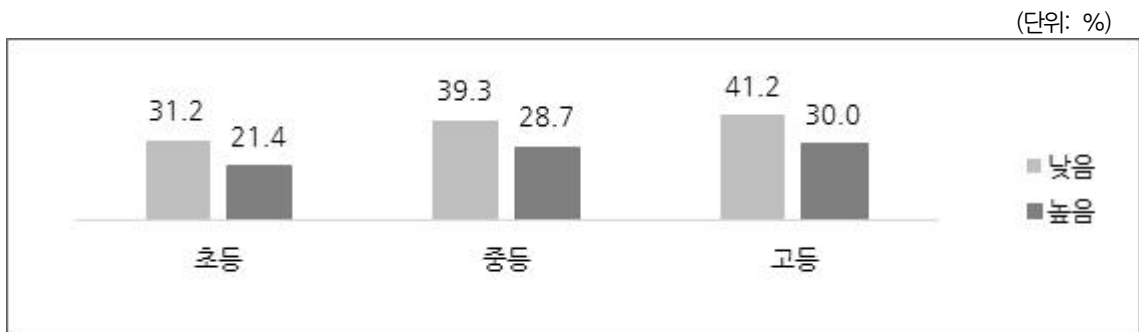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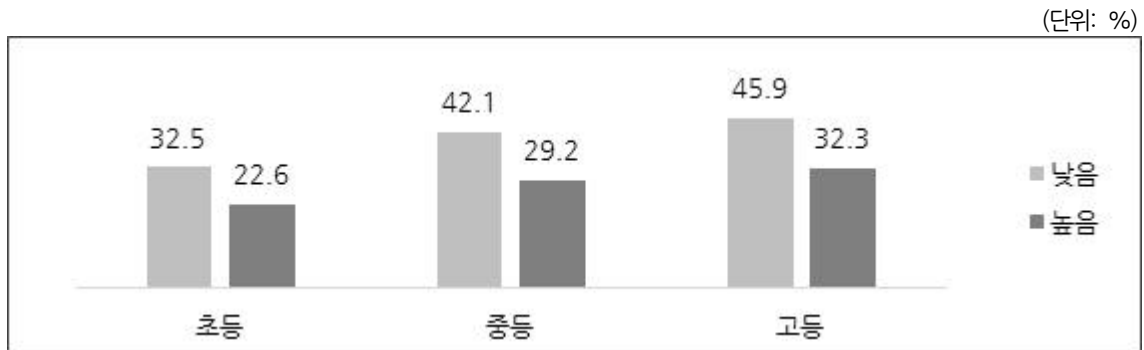


그림6-50. 지구보호 의식 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2. 자살충동 경험

- 이 절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해 이들 집단이 자살충동 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4개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했으며, 높은 집단은 동일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범주화 했다. 자살충동 경험은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51. 친구도움 의식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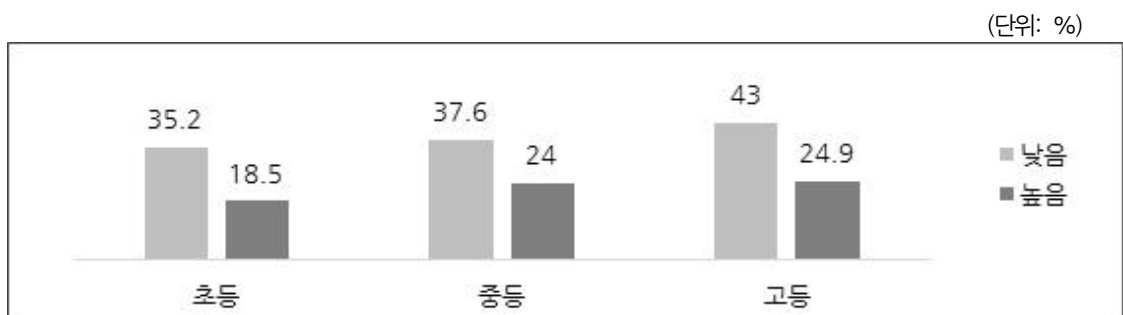


그림6-52. 자원봉사 의식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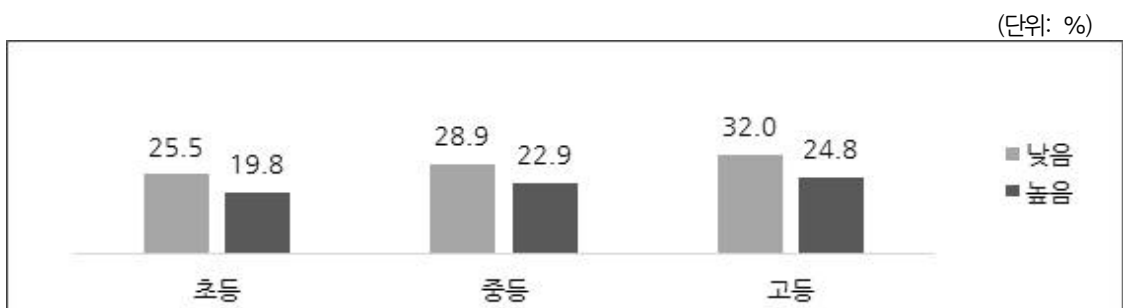


그림6-53. 반국에 대한 기부의식 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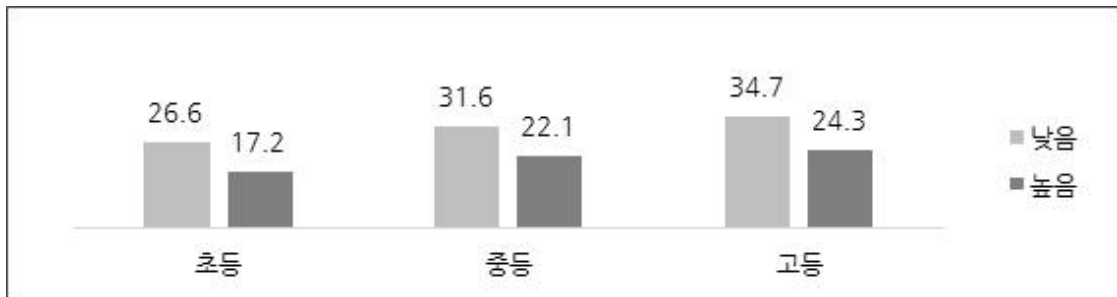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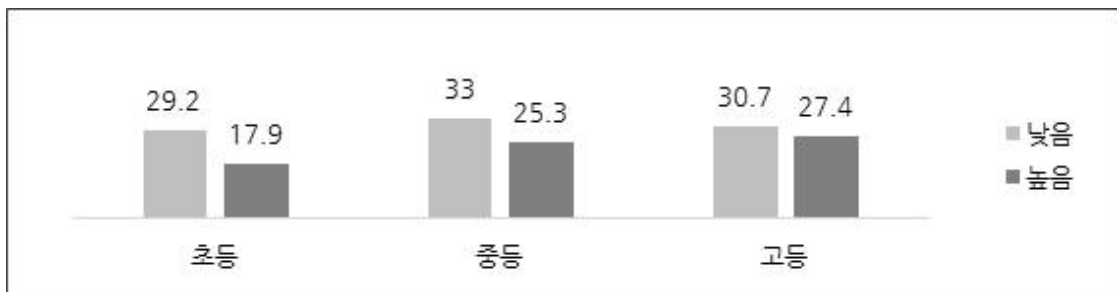


그림6-54. 지구보호 의식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단위: %)



부록1. 설문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8년 제10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고 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유훈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사랑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선정된 학교/학급의 학생들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결과를 OECD 국가들과의 국제비교와 섬세한 전문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다 신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평소 가정, 학교,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에 적은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중 몇 %가 이렇게 생각한다" 등과 같이 통계적인 분석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방정환재단**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사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문의 : 왕 희 범 감독원, 02-3218-9657)**

응답요령

- 1) 객관식 문항 : 보기 중에서 해당번호 하나를 골라 오른쪽 칸에 번호를 써 주세요.
- 2) 주관식 문항 : 의견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직접 적어 주시면 됩니다.
- 3) 설문지 중에 (☞ 문8 로)와 같은 표시가 있으면, 사이에 있는 질문은 건너뛰고 해당 질문으로 가서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 먼저 통계분석을 위한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칸
SQ1. 학교명	(* 학교이름을 직접 적어주세요)	X
SQ2. 성별	1) 남성 2) 여성	
SQ3. 거주지역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 강원도 3)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SQ4.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SQ5. 학교급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SQ6. 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SQ7. 가정에 있는 것	※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은 <input type="checkbox"/> 안에 모두 ✓ 표시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1) 자기 혼자만의 방 <input type="checkbox"/> 2) 책상 <input type="checkbox"/> 3) 공부방 <input type="checkbox"/> 4) 교육용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5) 인터넷 연결 <input type="checkbox"/> 6) 계산기 <input type="checkbox"/> 7) 사진 <input type="checkbox"/> 8) 백과사전류의 책 * 교육용 소프트웨어 : 교육용 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CD 등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4로)

문3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3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input type="text"/>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input type="text"/>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input type="text"/>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input type="text"/>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input type="text"/>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input type="text"/>

문3c.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1) 전화통화 2)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포함)
3) 게임 4) 학습
5) 웹 검색(교통, 뉴스, 날씨 등) 6) 동영상 시청
7)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8) 기타 _____

문4.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5으로)

문4a.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
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5-6회
3) 1주일에 3-4회 4) 1주일에 1-2회
5) 거의 하지 않았다

문4b.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세요.

보기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input type="text"/>
2) 나는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input type="text"/>
3)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input type="text"/>
4)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린다	<input type="text"/>
5) 나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input type="text"/>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6.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문7.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런 편이다
	1	2	3	4

	응답칸
1) 나는 몸이 조금 아프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있을 때에도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한다	
2) 나는 학교 숙제나 시험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과목까지 포함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까지 포함하여, 나는 모든 숙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한다	

문8. 다음은 학교 관련 걱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1) 나는 종종 시험을 치는 것이 어려울까봐 걱정이 된다.	
2) 나는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3) 나는 시험을 볼 준비가 잘 되어있어도 매우 걱정이 된다.	
4)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매우 긴장이 된다.	
5)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를 때 긴장이 된다.	

문9.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다	1년에 몇 번 있었다	한 달에 몇 번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었다
	1	2	3	4

	응답칸
1)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나를 적게 부른다.	
2)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성적을 매겼다.	
3) 선생님이 나에게 내가 실제보다 덜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4)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	
5)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를 놀림거리로 삼았다.	
6)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문10.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나요?
* 사교육: 학원, 과외, 공부방 등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교습을 받는 형태

1) 있다 2) 없다 (→ 문11으로)

문10a. 일주일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 [] 시간 [] 분

문10b.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사교육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나는 사교육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 사교육선생님과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4) 사교육선생님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1.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없다
- 2) 아버지
- 3) 어머니
- 4) 형제 / 자매
- 5) 담임선생님
- 6) 학교 상담선생님
- 7) 친구
- 8) 이웃 / 친척
- 9)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 (예: 청소년 전화 1388)
- 10)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다음 질문은 아주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주 친한 친구란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들 중에서 평소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으면 5명 정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문12. 아주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 명
* 아주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이라고 쓰신 후 ⇨ 문14로 건너 가세요.

문13.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내 자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7) 내 친구들과 나의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지난 학년)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4.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
해 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1) 친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2) 친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3) 친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4) 친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5) 외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6) 외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7) 새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8) 새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9) 남자형제 | <input type="checkbox"/> 10) 여자형제 |
|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_____ |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없음 |

문15.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
주일(7일)에 며칠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
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
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며칠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4) 아버지는 여려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5) 어머니는 여려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문16.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 로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7.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 로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8.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
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1) 전혀 좋지 않다 | 2) 별로 좋지 않다 |
| 3) 보통이다 | 4) 좋은 편이다 |
| 5) 매우 좋다 | 6) 해당사항 없음 |

문19.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 | |
|----------------|---------------|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
| 7) 학교를 다닌 적 없음 | 9) 안 계심 |

문20.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 7) 무직/기타 | 9) 안 계심 |

문21. 평소에 부모님과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 1) 학교 및 학원생활 | 2) 공부와 성적 |
| 3) 친구관계 | 4) 미래 진로와 직업 |
| 5) 취미와 여가활동 | 6) 기타 _____ |
| 9) 안 계심 | |

■ 다음은 청소년활동 참여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2.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습니까?

보기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참여한 편이다	자주 참여했다
	1	2	3	4	5

응답칸

- | | |
|-----------------------------------|--|
| 1) 교내외 동아리 활동 (의무적인 CA활동 제외) | |
| 2) 종교 단체 활동 | |
| 3) 자원 봉사 활동 (학교에서 행하는 의무 봉사활동 제외) | |
| 4) 시민 모임/단체 참여 (환경, 인권 단체 등) | |
| 5) 팬덤 활동 (연예인, 운동선수 등) | |

문23. 다음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 | |
|--|--|
|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 |
|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
|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
| 4) 자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적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4.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 | |
|--------------------------|--|
|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 |
|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 |
|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 |
|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 |
|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 |
|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 |

문25.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 1) 매우 행복하다
-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 5) 모르겠다

문25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 2) 성적이 좋을 때
-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 4)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 6)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 7) 기타 _____

문25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 4)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 7) 기타 _____

문26.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른다면 어디인가요?

- 1) 집
- 2) 학교
- 3) 학원
- 4) 친구와 모이는 장소
- 5) 동아리
-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 7) 기타 _____
- 8) 특별히 없다

문27.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1) 매우 불행하다
- 2) 약간 불행하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행복하다
- 5) 매우 행복하다

문28.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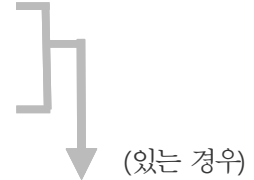
- 1) 건강
- 2) 돈
- 3) 성적 향상
- 4) 동성 친구
- 5) 이성 친구
- 6) 화목한 가족
- 7) 자유
- 8) 종교
- 9) 자격증(기술 등)
- 10) 기타 _____

문29.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input type="text"/>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input type="text"/>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input type="text"/> 일
4)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text"/>
5)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6)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7)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input type="text"/>
8)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9)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10)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문30.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1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문30a.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 갈등
-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문30b.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문31.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2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문31a.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 갈등
-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32. 학교나 집 근처 등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심각한 편이다
- 5) 매우 심각하다

문33. 다음은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중 본인 주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빼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 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문34.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종류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직접 당한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문35.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문36.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금전적인 부분)



문37. 다음 다섯 가지 과목의 성적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배우지 않음
	1	2	3	4	5	6

	응답칸
1)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5) 과학	

문38. 주중(학교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문39. 주말(학교가지 않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문40.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예
- 2) 아니오 (→ 문41으로)



문40a.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학원, 과외
- 2) 가정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 3)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4) 채팅, 문자 메시지
- 5)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 (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 6) 드라마 ·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 7)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41. 현재 자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cm

문42.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kg

문43.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졸업
- 5) 4년제 대학교졸업
- 6) 대학원 이상

문44. 최종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7) 무직
- 8) 기타 _____

문45.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문46. 자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문4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 주세요(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 | | |
|----------------------------------|--|
|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4)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5)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

문48.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나는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	--	--

문49.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나는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	--	--

♣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2) 11~25권
- 3) 26~100권 4) 101~200권
- 5) 201~500권 6) 501권 이상
-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 1) 1대 2) 2대
- 3) 3대 이상 4) 없다

문3.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4로)

문3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3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input type="text"/>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input type="text"/>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input type="text"/>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input type="text"/>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input type="text"/>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input type="text"/>

문3c.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1) 전화통화 2)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포함)
- 3) 게임 4) 학습
- 5) 웹 검색(교통, 뉴스, 날씨 등) 6) 동영상 감상
- 7)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8) 기타 _____

문4.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5로)

문4a.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5-6회
- 3) 1주일에 3-4회 4) 1주일에 1-2회
- 5) 거의 하지 않았다

문4b.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세요.

보기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input type="text"/>
2) 나는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input type="text"/>
3)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input type="text"/>
4)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지성이 풀린다	<input type="text"/>
5) 나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input type="text"/>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6.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문7.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런 편이다
	1	2	3	4

응답칸

- 나는 몸이 조금 아프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는 핏계가 있을 때에도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한다
- 나는 학교 숙제나 시험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과목까지 포함하여 최선을 다한다
-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까지 포함하여, 나는 모든 숙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한다

문8. 다음은 학교 관련 걱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 나는 종종 시험을 치는 것이 어려울까봐 걱정이 된다.
- 나는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 나는 시험을 볼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매우 걱정이 된다.
-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매우 긴장이 된다.
-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를 때 긴장이 된다.

문9.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다	1년에 몇 번 있었다	한 달에 몇 번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었다
	1	2	3	4

응답칸

-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나를 적게 부른다.
-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성적을 매겼다.
- 선생님이 나에게 내가 실제보다 덜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
-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를 놀림거리로 삼았다.
-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문10. 현재 사교육(학원, 과외, 공부방 등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교습을 받는 형태)을 받고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11로)

문10a. 일주일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10b.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나는 사교육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 나는 사교육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사교육선생님과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 사교육선생님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1.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없다
- 아버지
- 어머니
- 형제 / 자매
- 담임선생님
- 학교 상담선생님
- 친구
- 이웃 / 친척
-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 (예: 청소년 전화 1388)
-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다음 질문은 아주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주 친한 친구란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들 중에서 평소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으면 5명 정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문12. 아주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아주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 이라고 쓰신 후 → 문14로 건너 가세요.

명

■ 방금 문12에서 “아주 친한 친구 **명” 이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 한명 한명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문13. 먼저 아래 박스에 아주 친한 친구 이름(또는 별명)을 친한 순서대로 최대 7명까지 써 주세요. 이름이나 별명을 쓰기 불편하면 그냥 A, B, C, D ...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문13a. 이 친구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문13b. 이 친구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3c. 이 친구의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친구 한명 한명에 대해 각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 보기 안에 표시해 주세요.

문13. 친한 친구의 이름/별명 또는 A, B, C...	문13a. 이 친구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문13b. 이 친구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3c. 이 친구의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친구1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2) 친구2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3) 친구3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4) 친구4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5) 친구5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6) 친구6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7) 친구7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문14.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7) 내 친구들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잘 알고 있다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은 서로 잘 알고 있다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5.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해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1) 친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2) 친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3) 친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4) 친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5) 외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6) 외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7) 새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8) 새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9) 남자형제 | <input type="checkbox"/> 10) 여자형제 |
|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_____ |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없음 |

문16.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주일(7일)에 며칠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며칠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며칠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4) 아버지는 여려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5) 어머니는 여려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 시간을 내나요?	일

문17.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8.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9.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 1) 전혀 좋지 않다 | 2) 별로 좋지 않다 | 3) 보통이다 |
| 4) 좋은 편이다 | 5) 매우 좋다 | 6) 해당사항 없음 |

문20.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
| 7) 학교를 다닌적 없음 | 9) 안 계심 |

문21.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 7) 무직/기타 | 9) 안 계심 |

문22. 평소에 부모님과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응답칸

- | | |
|--------------|--------------|
| 1) 학교 및 학원생활 | 2) 공부와 성적 |
| 3) 친구관계 | 4) 미래 진로와 직업 |
| 5) 취미와 여가활동 | 6) 기타 _____ |
| 9) 안 계심 | |

■ 다음은 청소년활동 참여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3.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습니까?

보기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참여한 편이다	자주 참여했다
	1	2	3	4	5

응답칸

- | | |
|-----------------------------------|--|
| 1) 교내외 동아리 활동 (의무적인 CA활동 제외) | |
| 2) 종교 단체 활동 | |
| 3) 자원 봉사 활동 (학교에서 행하는 의무 봉사활동 제외) | |
| 4) 시민 모임/단체 참여 (환경, 인권 단체 등) | |
| 5) 팬덤 활동 (연예인, 운동선수 등) | |

문24. 다음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 | |
|--|--|
|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 |
|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
|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
|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5.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 | |
|--------------------------|--|
|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 |
|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 |
|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 |
|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 |
|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 |
|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 |

문26.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응답칸

- | | |
|-------------------|----------------|
| 1) 매우 행복하다 |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
|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
| 5) 모르겠다 | |

문26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 |
|------------------------|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
| 2) 성적이 좋을 때 |
|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
| 4)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
|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
| 6)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
| 7) 기타 _____ |

문26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 |
|-------------------------|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
|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
|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
| 4)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
|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
|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
| 7) 기타 _____ |

문27.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르다면 어디인가요?

응답칸

- | | |
|-------------|-------------------|
| 1) 집 | 2) 학교 |
| 3) 학원 | 4) 친구들과 모이는 장소 |
| 5) 동아리 |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
| 7) 기타 _____ | 8) 특별히 없다 |

문28.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1) 매우 불행하다 2) 약간 불행하다
- 3) 보통이다 4) 약간 행복하다
- 5) 매우 행복하다

문29.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건강 2) 돈 3) 성적 향상
- 4) 동성 친구 5) 이성 친구 6) 화목한 가족
- 7) 자유 8) 종교 9) 자격증(기술 등)
- 10) 기타 _____

문30.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input type="text"/>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input type="text"/>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한 날수는 며칠 인가요?	<input type="text"/> 일
4)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text"/>
5)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6)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7)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input type="text"/>
8)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9) 최근 12개월동안 마약/본드를 흡입한 적 있나요?	<input type="text"/>
10)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11)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12) 오토바이를 타 본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13)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 본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14)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없다면 ⇨ 문31로 건너 가세요)	<input type="text"/>
14a) [성관계를 가져봤다면]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였나요?	<input type="text"/>
14b) [성관계를 가져봤다면] 아이를 갖게 한 적, 혹은 낳은 적이 있나요?	<input type="text"/>

문31.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2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1a.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문31b.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문32.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3로)
- 2) 1~2번 있다
- 3) 3~4번 있다
-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2a.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3. 학교/집근처 등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 4) 약간 심각한 편이다 5) 매우 심각하다

문34. 다음은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중 본인 주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4) 따돌림
- 5) 성 폭력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문35.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종류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직접 당한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문36.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문37.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금전적인 부분)



문38. 주중(학교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 시간 [] 분

문39. 주말(학교가치 않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 시간 [] 분

문40.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1) 예 2) 아니오 (→ 문41으로)

문40a.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학원, 과외
- 2) 가정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 3)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4) 채팅, 문자 메시지
- 5)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 (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 6) 드라마 ·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 7)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4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간에 숫자를 써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들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42. 현재 자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 cm

문43.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 kg

문44. 부모님(친척 포함)에게 받는 한달 용돈은 얼마나 되나요? [] 원

문45. 한달 동안 지출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 원

문46. 2017년 2학기 기말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은?
반 전체인원 [] 명 중 [] 등

문47.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문48. 최종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7) 무직
- 8) 기타 _____

문49.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문50. 자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문51.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나는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 [] []

문52.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나는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 [] []

♣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록2

1922~1923 어린이날 선언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사는 나라
방정환 선생님이 꿈꾸던 세상입니다.”

어린이날 선언

‘어린이’, ‘어린이날’ 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많은 사람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련한 어린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에서 어린이 운동을 펼쳤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의 어린이 사랑과 그가 몸을 던져 했던 모든 활동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걸고 오늘보다 내일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운동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셨던 겁니다. 더욱 의미깊은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인권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의 취지와 함께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른들에게 쓰는 글, 어린이에게 쓰는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훗날 아동권리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창시자 에글렌타인 쥘 여사가 1923년 만든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1924년 국제연맹(현 유엔)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보다 1년 앞선 일이어서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는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선언문, 국제사회가 어린이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전부터 아동권리의 선구자인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의 조화로운 전인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이 9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 큰 파도



○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천도교소년회’는 창립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우리 나라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날’ 선전문을 배포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방정환 선생님이 작성했거나 혹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

- 一.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하지 말아 주십시오.
- 二.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 三.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 四.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 五.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六. 나쁜 구경은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 주십시오.
- 七.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물 : 소년운동의 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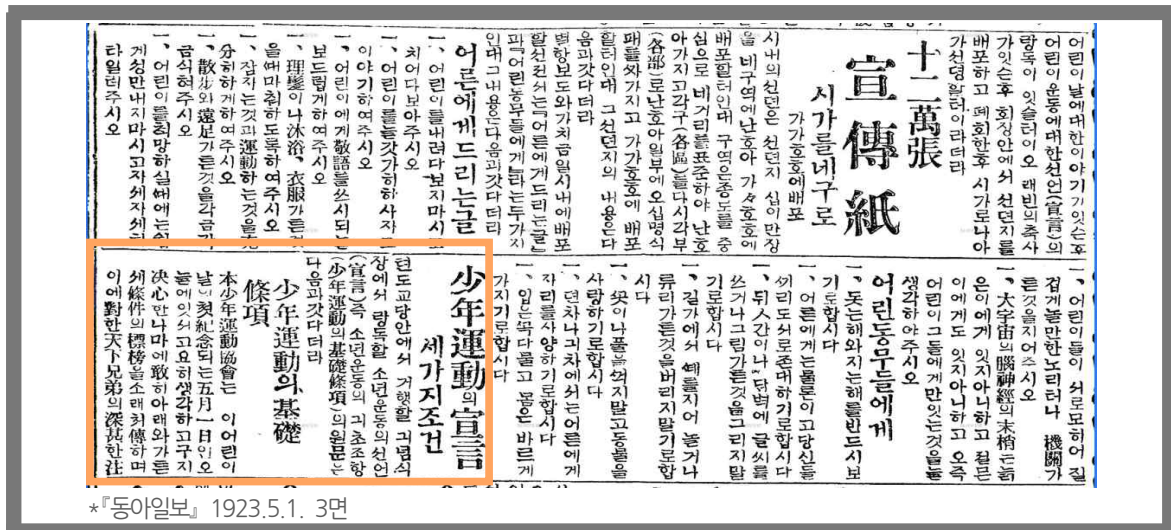
이 선전문물은 1923년 5월1일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물입니다. 이것은 1924년 국제아동권리선언인 ‘제네바선언’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 취지 : 젊은이나 늙은이는 일의 희망이 없다. 우리는 오직 나머지 힘을 다하여 가련한 우리 후생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자.

소년운동의 선언 세가지 조건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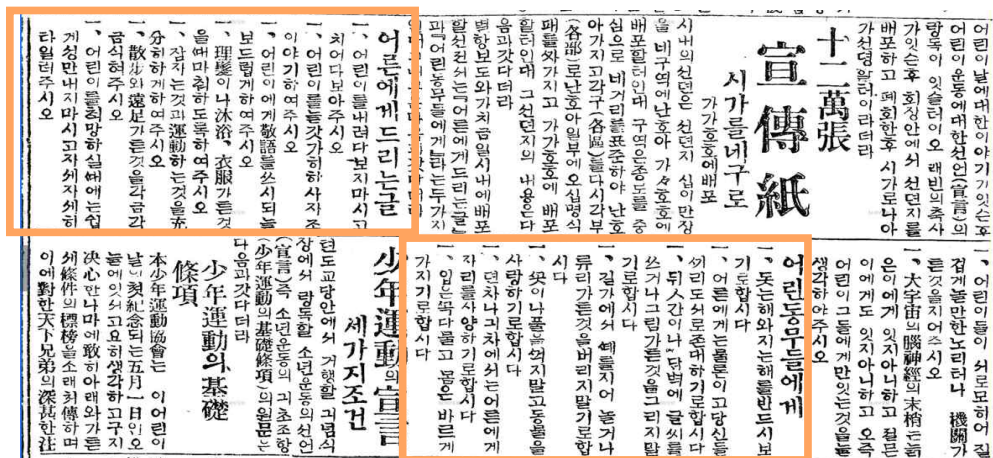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동아일보』 1923.5.1. 3면

어린 동무들에게

1.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1.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1.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동아일보』 1923.5.1. 3면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1.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1.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1. 산보와 원족 가튼 것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1.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날의 약속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짝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짝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짝을 위하여 그 나무는 뺏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억박하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뺏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제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아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제4회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논문공모전

| 주최 | (재)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주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 후원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청소년 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제안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후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하는 양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www.kosssa.or.kr)을 통해 지금까지의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조사연구학회(www.kasr.org)와 함께 <제1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우수논문을 발표하고 시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은 10년간 누적된 행복지수 조사자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여 시작된 것으로 2018년 <제4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대학원생 및 학부생,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저 가능
- 참가신청방법 : 공개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A4용지 5매 이하, 자유양식의 연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시상 : 학술대회 발표 및 상금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추진일정은 한국방정환재단과 한국조사연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2017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안녕하십니까? 추계 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일정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0:30 ~ 12:20	튜토리얼: 설문조사방법론의 체계적 이해: 설문지의 오차를 중심으로	조사방법론1	
13:30 ~ 15:20	공론조사의 적용과 한계	2018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보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3회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공모전 논문 발표 및 시상식
15:30 ~ 15:5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16:00 ~ 17:50	공론조사의 실제와 개선방향: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조사방법론 2	시정률 측정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